

2014

HAJA CENTER
ANNUAL REPORT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하자 15년, 기억의 노래

하자 15주년 생일 잔치를 축하합니다.
2000년 1월 15일 오호대 재학생들이



목차

haja profile

6

- 조직도
- 2014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
- 재정 현황

청소년 진로교육

11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2014 청소년 창의캠프
-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 대안적 진로탐색 시범 프로젝트
‘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 청(소)년 토요일진로(삶디자인)학교
- 문래중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프리스쿨’
- 청소년 진로콘서트
- 토요일 오픈클래스
-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청소년 운영위원회
- 교육포럼
-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교사/활동가 아카데미)
- 생각하는 청개구리(어린이 창의교육사업)

하자 네트워크학교

75

- 하자네트워크학교
- 하자작업장학교
- 로드스콜라
- 영세프 스쿨
- 연금술사 일학교

하자허브

111

- 허브 멤버십
- 허브 네트워크 조성(카페& 갤러리)
- 나눔부엌
- 자공공 아카데미 3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
- 무한나눔사이클 자전거공방
- 흙공방

내외부 네트워크 & 파트너십

129

- 마을 의례
-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 2014 달시장(영등포 달시장)
- 대외 홍보사업
- 하자투어

haja profile

조직도
2014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
재정 현황

조직도

센터장

부센터장

운영지원부

경영기획팀

팀장 1명
인사·총무 1명
회계·행정 1명
자원·물품관리 1명
전산관리 1명

시설팀

팀장 1명
시설관리 1명
보안 2명
미화 3명

기획부

교육협력팀

팀장 2명
교육기획 5명
홍보 1명
외부협력 2명

학교운영팀

학교장 1명
팀장 2명
교사 4명
공동수업 2명

허브공방팀

팀장 2명
교사 4명
공동수업 2명

2014년 하자에서 있었던 일들

2월 14일 하자허브 멤버십 방들이 파티

3월 3일 영세프스쿨 5기 입학식

3월 3일 로드스폴라 6기 입학식

3월 11일 하자작업장학교 중등, 고등 청년과정 입학식 및 졸업식

3월 12일 JP모간-연세대 공동 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출범

2월 12일~3월 28일 하자네트워크학교 '하자마을 인문학입문'

3월 29일 하자마을 '입촌(立村)잔치'

3월 29일 하자허브 휴공방 오픈

4월 15일 하자마을 '시농'

4월 16일 세월호 사건

4월~12월 'Plan-B, 삶을 위한 다양한 상상' 프로젝트 진행

4월~6월 청소년 토요일학교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 '온 삶을 먹는 요리' 진행

5월 17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청년놀이활동가 모임 시작

5월 9일 '자생, 삶의 기반' 연금술사 일학교 시작

5월 19일 하자마을 성년식

6월 21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분당'

6월 27일 달시장 개장

6월~8월 하자허브 열린학습모임 진행

7월 29일~8월 1일 청소년 창의캠프

8월 5일~8월 8일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9월 17일~11월 12일 자공공아카데미 3기 '지속가능한 삶의 인문학'

9월 26일~9월 29일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9월 30일~10월 21일 하자작업장학교 '서울형 적정기술 쟁점 연속토론회'

10월~12월 청소년진로콘서트 총 4회 개최

12월 6일 생각하는 청개구리 공유마당

12월 10일 '자생, 삶의 기반' 연금술사 일학교 수료식

12월 11일 달시장 갈무리행사 '달달파티'

12월 18일 하자 15주년 생일파티 '기억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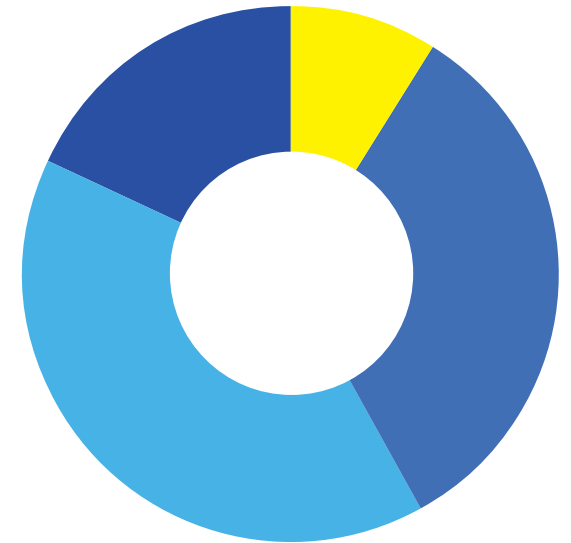
재정현황

하자센터 수입현황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사업수입	프로그램 강습료, 시설이용료		304,636
사업외수입	이월금, 법인전입금, 기타		1,083,535
시비보조금	서울시 운영보조금		1,727,171
공모사업 보조금	세부내역	재원처	보조금 총계
공모·외부지원 사업 보조금	중등토요진로학교	서울특별시	629,582
	청소년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창의캠프	서울특별시	
	마을장터 달시장	영등포구청	
	대안교육 지원사업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로켓에너지 정책포럼	완주군청	
	창의인재 육성사업-생각하는 청개구리	한국암웨이	
	자생 삶의 기반	JP모간	
총수입			3,744,924

2014 수입현황



총수입 3,744,924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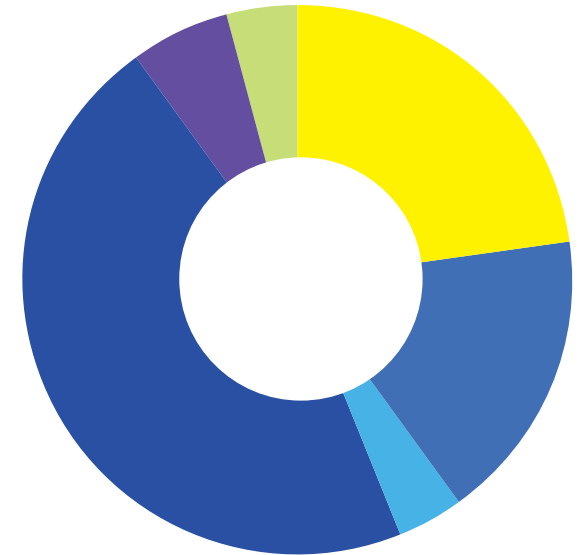
- 사업수입 8% 304,636
- 사업외수입 29% 1,083,535
- 시비보조금 46% 1,727,171
- 공모사업보조금 17% 629,582

하자센터 지출현황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인건비	인건비	794,798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상이전 등	541,281
시설비	시설유지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147,369
	세부내역	사업비 지출 총액
사업비	청소년 진로(일일직업체험, 청소년 진로콘서트)	1,125,640
	비진학청소년 진로설계(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학교연계프로젝트 (문래중 자유학기제 시범모델)	
	청소년창업캠프, 커리어워크	
	청소년 창의활동(동아리)	
	중등토요진로학교	
	토요오픈클래스 (놀라운토요일서울EXPO)	
	교사활동가영역(교육포럼)	
	허브네트워크 조성 (멤버십 운영, 나눔부엌, 허브카페, 갤러리)	
	자공공아카데미, 마을인문학	
	하자공방 (흙공방, 목공방, 자전거공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네트워크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청소년운영위원회	
	창의 인재 육성사업(생각하는청개구리)	
	마을장터 달시장	
	자생 삶의 기반-살림집	
	연금술사	
로컬에너지 정책포럼		
사업외지출	예수금, 예치금	204,033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과년도지출 등	91,008
총지출		2,904,129

2014 지출현황



총지출 2,904,129 천원

- 인건비 27% 794,798
- 운영비 19% 541,281
- 시설비 5% 147,369
- 사업비 39% 1,125,640
- 사업외지출 7% 204,033
- 예비비 및 기타 3% 91,008

청소년 진로교육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지원 및
전환기 진로교육과정 모델 개발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개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직업인과의 만남, 즐거운 체험, 또래 청소년끼리의 협업을 주 요소로 하는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직업 선택으로서의 진로가 아닌 다양한 일에 대한 상상력과 협업하는 즐거움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사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인의 스토리와 일에 대한 태도를 중요시하고, 강의보다는 체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1회 2시간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협업과 소통하는데 좀 더 여유를 두기 위해 3시간 작업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더불어 공교육 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접점을 넓히기 위한 교사설명회,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하는 등 일회성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 사업 이름 :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대상 : 14~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월 15일(수) ~ 12월 19일(금)
- 참가방법 : 온라인 / 전화 신청
- 참가비 여부 : 1인당 7,000원(체험형) / 10,000원(작업형)
- 장소 : 본관 및 신관 각 워크룸
- 총 사업비 : 105,050,158원
- 총 참여인원 : 11,213명(실인원)

기획의도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다녀가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하자센터의 대표적인 진로 프로그램이다. 진로가 단순한 직업선택이 아닌 일에 대한 태도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설명회’를 연초에 진행하였다. 교사설명회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로 하자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은 청소년과 학교가 일회성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과 틀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는 공간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작업공간을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정비하였고, 일회성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강사(직업인)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진로 프로그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진행

* 프로그램 운영

구분/시간	수	금
체험형 10:30~12:30 (2시간)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릿댄스 ⑦마술 ⑧플로리스트 ⑨도시농부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릿댄스 ⑦게임하자 ⑧패션디자인 ⑨캘리그래피
작업형 13:30~16:30 (3시간)	①라디오 ②게임만들자 ③영상 ④싱어송라이트 ⑤요리 ⑥천연염색 ⑦친환경문구디자인 ⑧춤마임 ⑨목공(금요일만 진행)	

구분	영상	게임 만들자	분장	친환경 문구 디자인	싱어송 라이트	천연 염색	라디오	요리	그래 피티	뮤지컬	보컬	네일 아트	마술	패션 디자인	춤마임	스트릿 댄스	게임 하자	목공	플로 리스트	캘리 그래피	도시 농부	자전거 리사이클링	총계
횟수	60	57	57	53	52	51	50	49	41	40	38	37	37	36	33	30	29	27	21	20	15	2	11,213
연인원	784	752	750	669	674	674	679	599	568	556	519	488	482	475	443	435	372	338	282	264	215	25	

폐강 II 포장데코하자: 8회(115명), pop 디자인하자: 3회(37명), 명함디자인하자: 1회(18명)

* 참가현황

구분	참가학교			참가단체	총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복지관 등	
이용시설(곳)	100	73	3	19	239
이용인원(명)	7673	2967	96	477	11,213
다회차 참여	9회: 통진중 4회: 양동중 3회: 부천성곡중, 고림중, 광명광남중, 연신중, 문래중 2회: 죽전중, 중앙중, 진위중, 강남중, 괴산북중, 구일중, 군산영광중, 명덕여중, 무학중, 문성중, 문창중, 병점중, 부천원미중, 서운중, 성지중, 소사중, 수명중, 수주중, 신남중, 신능중, 신정여중, 양평중, 여주점동중				
면제자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경수중, 고림중, 남서울중, 동작고, 목암중, 병점고, 봉래중, 부천상록학교, 부천성곡중, 서울동천학교, 성곡중, 소사중, 수주중, 양구중, 여강고, 인천생활과학고, 중앙기독중, 파주중, 푸른꿈 고등학교 (면제자 306명)				

☞다회차 참여학교는 1회 참여 당 1곳으로 표기함.

성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 5회씩 공간을 바꿔가며 운영하던 것을 오전, 오후 하루 2회, 고정된 공간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이주로 공간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프로그램 앞뒤로 생긴 여유 시간은 더 이상 공간세팅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인솔교사, 강사들과의 소통에 쓰였다. 2학기부터 마련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그간 담당자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예약 현황 파악이 수월해졌고 불필요한 문의전화도 확연히 줄었다.

연초에 마련된 교사설명회를 통해 비진학청소년 이슈를 고민하던 대원고등학교 진로교사와 공교육 내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그 결과 '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새로 배치한 3시간 작업형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에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반영했다. 연령에 따라 진로 탐색 욕구가 다른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프로그램 개발, 강사 역량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점 등도 이런 모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성찰

2014년은 20개 이상의 프로그램, 1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더 효과적으로 만나기 위해 운영상의 효율을 꾀했던 한 해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시행착오, 프로그램의 형식 변화 등에 적응하느라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질적 개선은 눈에 띄게 이루지 못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일직업체험은 전체 이용인원 중 70%가 중학생, 특히 1, 2학년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학교 저학년의 참여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연령에 따른 욕구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중학생의 경우,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직업인과의 대화’가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강사 모임 등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부분이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은 물론 매체나 분야를 과감히 다르게 편성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단편적인 직업 소개보다는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의미를 담은 직업군과 직업인의 발굴, 청소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배움의 경험을 디자인해야 하겠다.

이밖에도 참가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고해야 할 점들은 또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종합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4.44를 나타내 지난 2008년 조사의 4.33, 2012년 10월 조사 4.43, 2014년 5월 조사 4.36, 2013년 11월 조사 4.4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는 남자 평균이 4.49이고, 여자 평균이 4.40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미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강사(직업인)에 대한 만족도 역시 평균 4.44로 기존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소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5로서, 프로그램 만족도 4.44와 운영자 만족도 4.6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유는 주로 ‘좁다’ ‘비위생적이다’, ‘뻥뻥하다’ 등이었다. 조사 기간이었던 11월에 갑작스런 추위가 있었고, 학생의 개인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요 공간으로 쓰이는 본관이 오래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조사 때부터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망

2007년 시작된 일일직업체험은 직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와 소개를 넘어서 직업인과의 만남, 대화, 또래 청소년끼리의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이런 종류의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직업과 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민을 담은 분야의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가 짜놓은 학사 일정에 따라 대규모로 움직이는 방식의 진로탐색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동기나 흥미가 결여된 체험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밖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의미와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일화성 연계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벗어나 자발적 동기를 가진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심화형 프로그램의 개발 등 대안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직업인과 함께 3-4회에 걸쳐 직업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몸을 써서 작업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일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다양한 상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학여행 등을 통해 서울까지 체험을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일일직업체험이 진행되면서 쌓인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 의미 등을 담아서 지역에서도 응용 가능한 확산의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more info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든든 지원
<http://www.hankookilbo.com/v/158f52a4d31541c1950e8622157528e8>
<한국일보> 2014.10.14

• 꿈 찾아 직업체험하고 싶은 청소년, 모이세요!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40926010003627>
<브릿지경제신문> 2014.9.27

글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2014 청소년창의캠프

- 사업 이름 : 2014 청소년 창의캠프
- 대상 : 서울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 진행기간 : 2014. 07. 29 ~ 08. 01
- 참가방법 : 학교장 추천 및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및 개별 현장
- 총 사업비 : 33,000,000원
- 총 참여인원 : 총 140명(총 38개 교)

개요

2009년에 시작해 6년째를 맞는 청소년 창의캠프는 청소년 진로캠프 ‘커리어워크’와 함께 일회성 체험과 강의 일변도인 기존 캠프의 한계를 넘어 문화예술 매체 활용, 체험, 토론, 현장답사,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적용해 화제를 모아왔다. 청년 문화예술 작업자와 활동가, 사회적기업 등 공공성 지향의 멘토 그룹을 매칭시키고, 팀별 협업으로 또래 간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중 청소년 창의캠프는 창작력, 독창성 등 개인의 특별한 자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창의성에 공공성을 부여해 매년 새로운 사회적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그간 ‘불만을 해결하는 창의성’, ‘질문으로 시작하는 창의성’ 등의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의 주제는 ‘서로를 살리는 창의’였다. 빼어난 개인의 특별한 기량이 의존하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창의적 과정과 결과가 나와 나,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리고 변화하게 될지 체험해 본다는 의미이다.

기획의도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 인식에는 변화가 많은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공공적 관점과 이에 수반되는 창의적 삶의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특성화고 청소년들에게는 시대 동료와 청년, 그리고 부모나 교사가 아닌 다른 어른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자신과 사회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창의캠프는 참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의적인 청년 팀들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매칭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안에서 자원과 동료를 찾고, 창의적인 일거리와 일자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세부 프로그램

* 전체 구성

프로그램	주요 내용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작업자 및 활동가 그룹들과 함께 공공작업을 실행해보며 창의에 대한 폭넓은 의미들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창의’에 대한 상을 팀 멤버들과 공유한다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캠프의 운영 안내 및 미션 공유
공동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한 각 팀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정의해보는 공동 워크숍
공공작업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활동 및 작업을 통해 공공을 위한 창의적 실행과제들을 경험하는 공공작업 워크숍. 현장 방문, 청년 문화작업자 및 활동가 그룹들과 공동 진행
프레젠테이션 &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해결 과정을 나누는 팀별 프레젠테이션 • 멘토의 축하 메시지와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작은 축제



공동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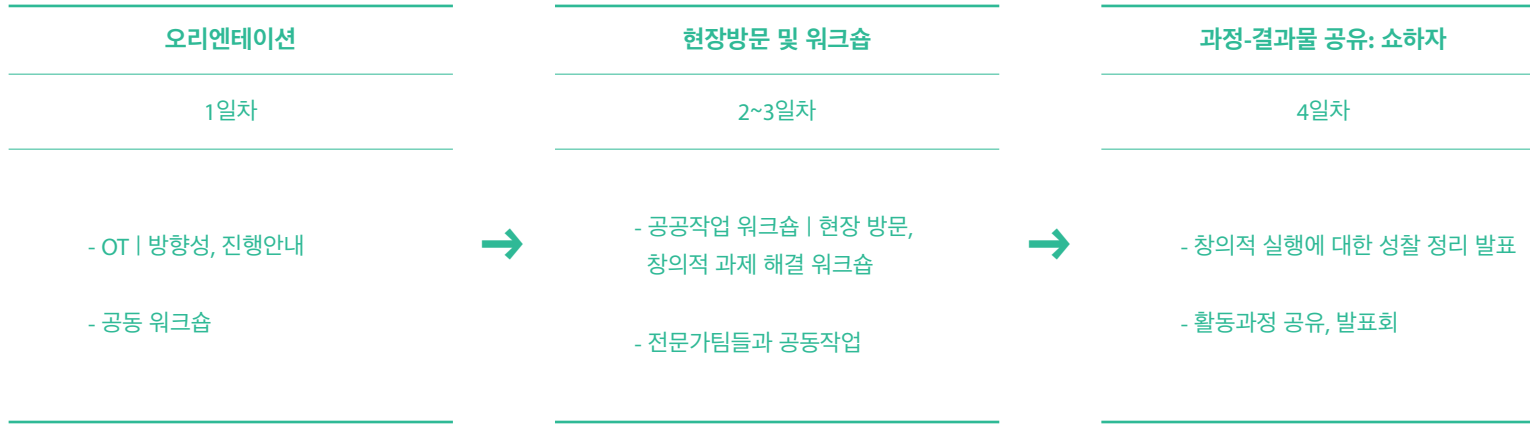
‘창의’에는 3만여 가지의 정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마다 ‘창의’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듯 ‘서로를 살리는 창의’ 또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놀이, 창의 토론, 손작업,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살리는 창의’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철학을 꺼내 보면서 ‘서로를 살리는’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의 힘을 발견해보는 주제 워크숍이다.

공공작업 워크숍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장에서 시도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생각으로만 머무른다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액션워크숍은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마주쳤을 때 ‘돌러앉는’ 지혜를 발휘하여 ‘속도의 시계’에서 벗어나 ‘방향의 나침반’을 점검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청소년들이 세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커뮤니티 디자이너, 자연에너지 생태 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일상과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실행하게 된다. 개별 작업들은 팀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 시작하고, 또 완성해 보고자 했다.

워크숍 명	진행팀
거리의 가구들_ 공공의 가구 만들기	000간
생활기술 탐정학교	문화로놀이짱
징검다리 프로젝트_ 이웃을 살리는 아이디어 워크숍	오늘공작소
꽃밭본능을 되살려라!	게릴라농부들
옥상 설계자 - 도시 안에서 다른 삶 살기	동대문청년 DRP
야매공작	땡땡이공작
막춤 공연단_우리들의 바디슬로건	힐링모션
서로를 살리는 규칙 Do-Do-Do	여러가지연구소
불만연구실	청개구리제작소
에너지 전환 워크숍	루트에너지



성과

‘서로를 살리는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다른 길을 상상하고 경험해 보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팀을 섭외하였고, 활동 영역과 매체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신선하게 돌아보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을 해보면서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을 설명할 때 ‘말 잘 듣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야생성을 잃은’ ‘왜 저러는지 답답한’ ‘무기력한’ 등의 수사를 종종 사용한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친구와 동료를 발견하면서, 혼자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동료를 만나고 함께 힘을 주며 만들어가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캠프 기간 내내 참여 청소년들은 함께한 청년 작업자, 하자센터 판돌 등 여러 파트너들의 지지와 응원, 격려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참여자 코멘트

캠프 설문결과를 보면, 1학년, 2학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업과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창의캠프가 전반적으로 흥미가 있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79.5%(매우 그렇다 : 51.5% + 그렇다 : 28.0%)였으며, 특히 과반수 이상이 매우 흥미롭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작업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92.4%(매우 그렇다 : 72.0% + 그렇다 : 20.5%)로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2.0%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초기 캠프 신청을 확인하고 참가를 확정짓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직접 신청에 비해 학교 중심으로 단체 신청이 주를 이루어 캠프에 대한 사전 이해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프로젝트 팀과의 호흡을 맞추고, 또래 동료들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점차 참가자들의 캠프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여갔다. 그 결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이 활동성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창의캠프의 경험을 통해 참가자가 배우고 느낀 부분들을 주관식으로 설문을 받았다. 캠프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참가 신청 당시에 청소년들이 대답한 창의의 개념은 거의가 “나(개인)”와 “특별한 능력”을 중심으로 대답하였다. 4일 간의 창의캠프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창의란 “우리를 중심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답이 다수였다.

성찰

모든 워크숍 진행에 있어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차례의 기획 회의 및 논의, 현장 답사 등 지난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캠프 운영 과정에서는 필수 물품 구입, 디자인 및 편집 인건비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쓰인다. 이번 캠프는 편성 예산이 적어 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워크숍 진행팀 등 협업 파트너들이 캠프의 취지에 공감하며 재능 기부 또는 재능 공유 형태로 참여해 준 부분이 있었기에 진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올해와 유사한 콘셉트와 규모의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체 예산의 상향 조정과 함께 세부 분야별 예산 배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한 장소에 전 참여자가 모여 팀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쇼하자 형식을 바꿔 신관 1층 야외 공간인 중정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중정을 둘러싼 각 공간에 팀별 작업 및 결과물을 세팅하고, 둘러보는 다른 팀 참여자 및 스태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식이었다. 이후 중정에



함께 모여 영상 촬영 및 퍼포먼스 형식의 팀별 발표가 이어졌다. 이런 방식은 서로의 공간을 오가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으나 영상의 오디오가 잘 안 들리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최소한 영상 촬영 및 퍼포먼스 발표는 내부 공간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행팀이 효과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해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시를 할 경우에는 팀별 의도에 맞도록 세팅하면서도 이후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전망

올해는 특히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을 안배해, 가능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매칭했다. 이 때문에 참여자들은 작업 이전에 이미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었고, 작업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하루 일정이 끝난 뒤 집까지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구이자 동료로 만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매칭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는 지역과 진행팀의 작업 공간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사례가 많아 정해진 기간만 진행되는 단회성 캠프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청소년 진로와 창의성 교육'이라는 화두는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간의 창의캠프에서 시도한 '공공성' '지역성' '현장성' '협력과 공존'의 성과가 하나로 연결되어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more info

리뷰 <http://www.haja.net/?p=9436>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04095312>

글 | 한민정(들레, 교육기획팀)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개요

서울지역 특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는 특정 직업군/직업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직업·일의 의미와 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잡 쉐도잉(Job Shadowing)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는 총 43개 학교,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직업·일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창조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10개 팀(대지를 위한 바느질, 놀공발전소, 청년장사꾼, 파릇한 절문이,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PaTI, 오가니제이션 요리, 유자살롱, 그 꽃, 영화제작소 눈)과 함께 했다. 'MEET-SHARE-CHANGE'을 슬로건으로 4일 동안 분야별 직업 멘토와 또래 청소년들이 만나 함께 작업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와 협업의 즐거움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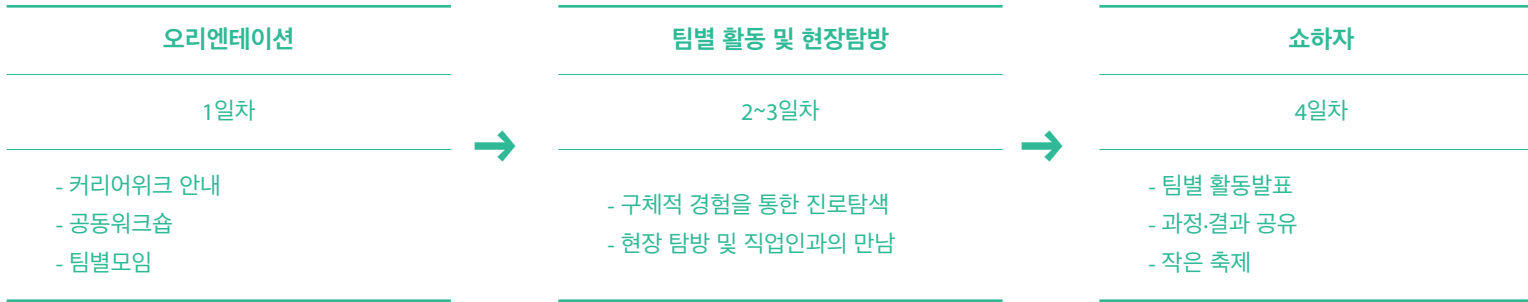
- 사업 이름 :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 대상 : 서울지역 특성학교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8월 5일(화) ~ 8월 8일(금)
- 참가방법 : 학교장 추천 및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분야별 현장 및 하자센터 워크룸
- 총 사업비 : 60,000,000원
- 총 참여인원 : 604명(연인원)

기획의도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직업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역할, 책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각 분야별 진행팀은 ‘나’보다는 ‘함께’ 잘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런 세상을 위해 일하는 이들-사회적기업가, 혁신적 예술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세부 목표 역시 개인의 흥미와 보람을 넘어서 일의 사회적 의미와 공공의 가치를 고루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 진행되었다. 또한 잡 웨딩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진행팀이 곧 멘토이자 일하는 현장이 되어, 실제 본인들의 일을 워크숍 형태로 기획해 참여 청소년들과 공동 작업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분야별 팀이 일종의 코디네이터로서 외부 멘토와 직업현장을 따로 섭외해 워크숍과 분리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4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백화점 식의 다양한 만남이나 투어보다는 실제 멘토팀이 하고 있는 일과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작업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는 물론, 직업·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까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체 캠프 진행 및 스케줄



첫째 날

시간	내용	장소
10:00~10:30	하자센터로 집결 / 등록	신관 허브홀
10:30-11:00	커리어워크 소개	
11:00-13:30	공동 워크숍	
13:30-14:00	팀별 소개	
14:00-15:00	점심식사	팀별 공간
15:00~17:00	팀별 모임 / 회고	

둘째 날 · 셋째 날

09:00-13:00	팀별 작업	팀별 현장/공간
13:00-14:00	점심식사	
14:00-17:00	팀별 작업	팀별 현장/공간
17:00-18:00	팀별 모임 / 회고	

넷째 날

09:00~13:00	팀별 모임 및 쇼하자 준비	신관 허브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쇼하자!	
16:00-17:00	팀별 모임 / 회고	팀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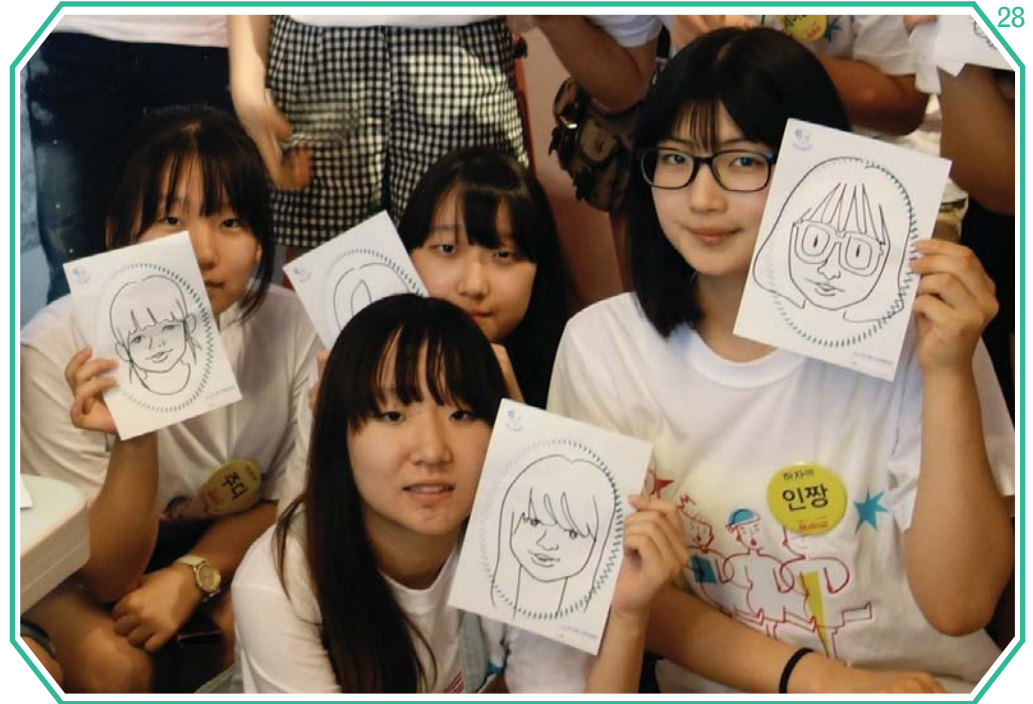
성과

코디네이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직업 멘토이자 일을 벌이는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청소년과의 공동 작업이 가능한 팀 섭외에 주력하였다. 고정된 직업·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안적 가치와 방식을 만들어가는 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고민하며 창조적 일자리를 보여주는 팀들을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청소년과의 교류가 처음인 팀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전혀 없는 팀도 있었지만, 초심자 특유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흘러 넘쳤다. 15명 가량의 참가자들을 위해 회사 멤버 전원이 출동하기도 하고, 4일 동안 사무실 공간을 전면 개방해 오롯이 캠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팀도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팀들의 열정에 기존 팀들도 자극을 받는 듯 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물론 멘토들 역시 청소년들의 성실한 태도와 참신한 아이디어에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자신들의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참여자 코멘트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5.5%(매우 그렇다 70.9%+그렇다 24.6%)가 캠프 내용이 흥미로웠다고 응답했고, 진로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4.8%(매우 그렇다 56.0%+그렇다 3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나 일을 경험하는 공동작업/제작실습(워크숍)이 99.3%(매우 그렇다 80.6%+그렇다 18.7%)로, 멘토와의 만남(94%)이나 현장방문(94.8%)보다도 크게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직업에 대한 생각 변화에 가장 도움을 준 프로그램도 공동작업/제작실습(워크숍)이 39.6%로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피상적인 정보 전달이나 수동적인 견학보다는 현장에서 멘토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을 해보는 프로그램 방식이 앞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불만족스러웠던 점으로는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 학생들 간의 교류가 적었다(9.0%)’를 꼽았다. 실제로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마지막날 쇼하자 시간을 제외하면 다른 팀의 활동을 공유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매일 끝나는 시간에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종회 등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캠프 규모도 크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종회를 위해 다시 하자로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실시간 자유롭게 상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드 등을 개설하거나, 마지막 쇼하자를 전체가 어울려 소통하는 판으로 구성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성찰

150여명 가까운 인원이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고 단시간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첫날 공동워크숍은 놀공발전소와 함께 팀빌딩 게임을 준비했다. 모바일을 활용한 모막(MOMAK)이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팀원 간의 소통이 중요한 빅게임이었다. 단체로 즐기는 빅게임,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 방식이 모바일에 익숙한 참가자들의 흥미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그린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이 게임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도시 개발(원자력 발전소, 초고층 빌딩 건설 등)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이 실수로 남았다. 물론 게임 진행 과정에서 이런 방식의 도시 개발 폐해를 설명하면서 게임의 새로운 룰과 판 짜기를 고민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긴 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형식의 특성상 참여자들이 팀별 게임 승패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전체 캠프의 취지와 목표를 참여하는 팀들과 좀더 세심하게 공유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전망

넘쳐나는 진로 프로그램에 피로해진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경험과 만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나열된 직업들을 탐색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상상하고 만들어어나가는 일,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사회적 의미와 역할로 연결하는 일머리를 키우는 일이 가능한 캠프를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직업 분야별 팀 구성과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고 과감한 기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의 직업군을 세도잉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년의 관심사와 아이디어가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인과 만나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차후에 커리어워크에 다시 참여한다면 해보고 싶은 분야로 전기, 전자, 광고, 스포츠 등을 꼽았다. 학생들이 전공하는 금융, 기계, 전자 등 이공계 분야 전공의 청소년들이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적정기술 등을 접하면서 발휘되는 상상이 캠프 안에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가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면,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경험으로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확장된 사고, 인식의 전환 등을 불러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more info

제4섹터 직업인과 청소년의 만남... 하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진행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0385>
http://www.kyeonggi.com/_press/?newsid=760385
<뉴스와이어> 외 보도자료 전문게재 131건 2014.7.30

조희연 교육감, 특성화고 학생과 '삼계탕 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56941>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07800239&spage=1>
<연합뉴스> 외 다수 2014.8.7

글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대안적 진로탐색 시범 프로젝트 “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 사업 이름 : 대안적 진로탐색 시범 프로젝트 ‘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 대상 : 진로 탐색의 기회와 전환을 시도하는 17~19세 공교육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4월~10월
- 참가방법 : 대원고, 태릉고 대안진로교실 학생
- 참가비 여부 : 학교·하자 매칭펀드 방식
- 장소 : 하자센터 및 개별 현장
- 총 사업비 : 17,704,811원
(시보조금:2,343,050원 / 자체 운영금:15,361,761원)
- 총 참여인원 : 1,130명(연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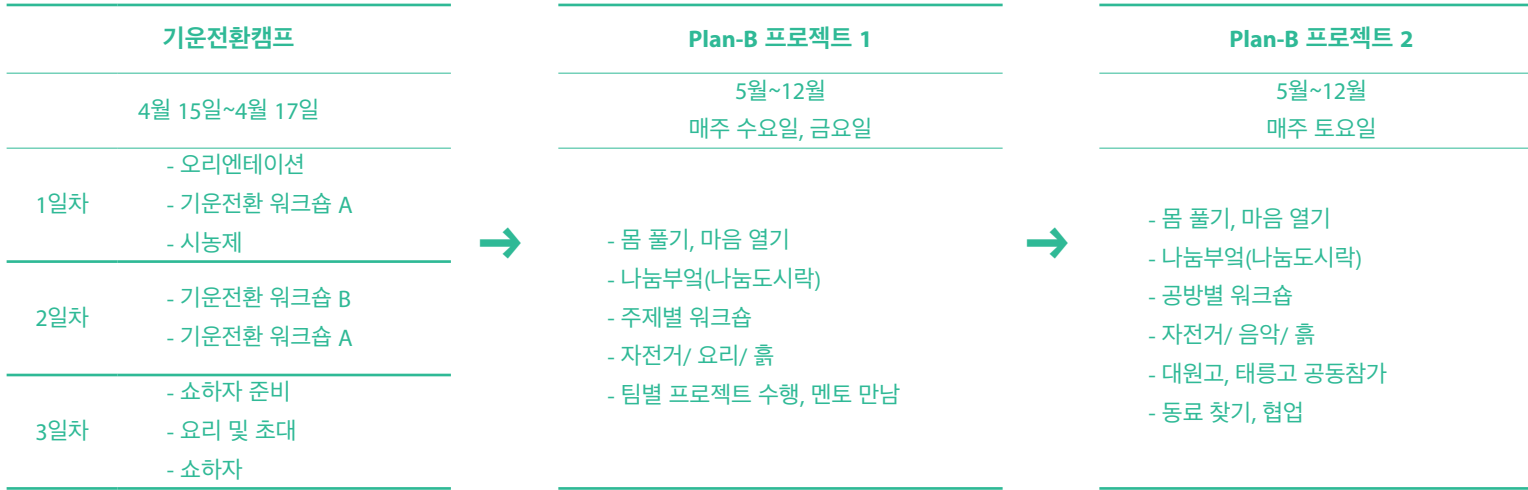
개요

대안적 진로탐색 시범 프로젝트 ‘Plan-B, 다양한 삶의 상상’ 프로젝트(이하 플랜-B 프로젝트)는 진학만을 위해 입시 위주의 공부에 매몰돼 온 트랙에서 벗어나 자기 욕구와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전환’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공교육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돌보고,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운전환캠프로 플랜-B 프로젝트를 열었다. 이후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 안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일과 삶을 접하면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키웠다. 자전거, 흙, 목공 작업을 하면서 내 안의 에너지에 온전히 몰입해 보기도 하고, 소박한 점심상을 차려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다. 또 ‘내가 되고 싶은 어른’ 혹은 ‘만나고 싶은 어른’은 어떤 사람들일지를 생각하며 작업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기획의도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인문계고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인식 하에 점차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인문계고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취 욕구와 입시경쟁력 모두 대학 진학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학생-교사 모두 수업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감소하고(서울시 2010년 62.8%→2012년 55.8%(△8%) / 전국 2010년 79%→2012년 55.8%) 비진학 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진로탐색의 기회를 찾지 못한 채 관계와 정보의 빈곤 속에서 자기 동기를 찾지 못하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10대 동료(또래), 청년, 어른과의 관계 맺기와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일과 삶을 만나면서 진로를 탐색해 보고, 정서적 지지와 삶의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플랜-B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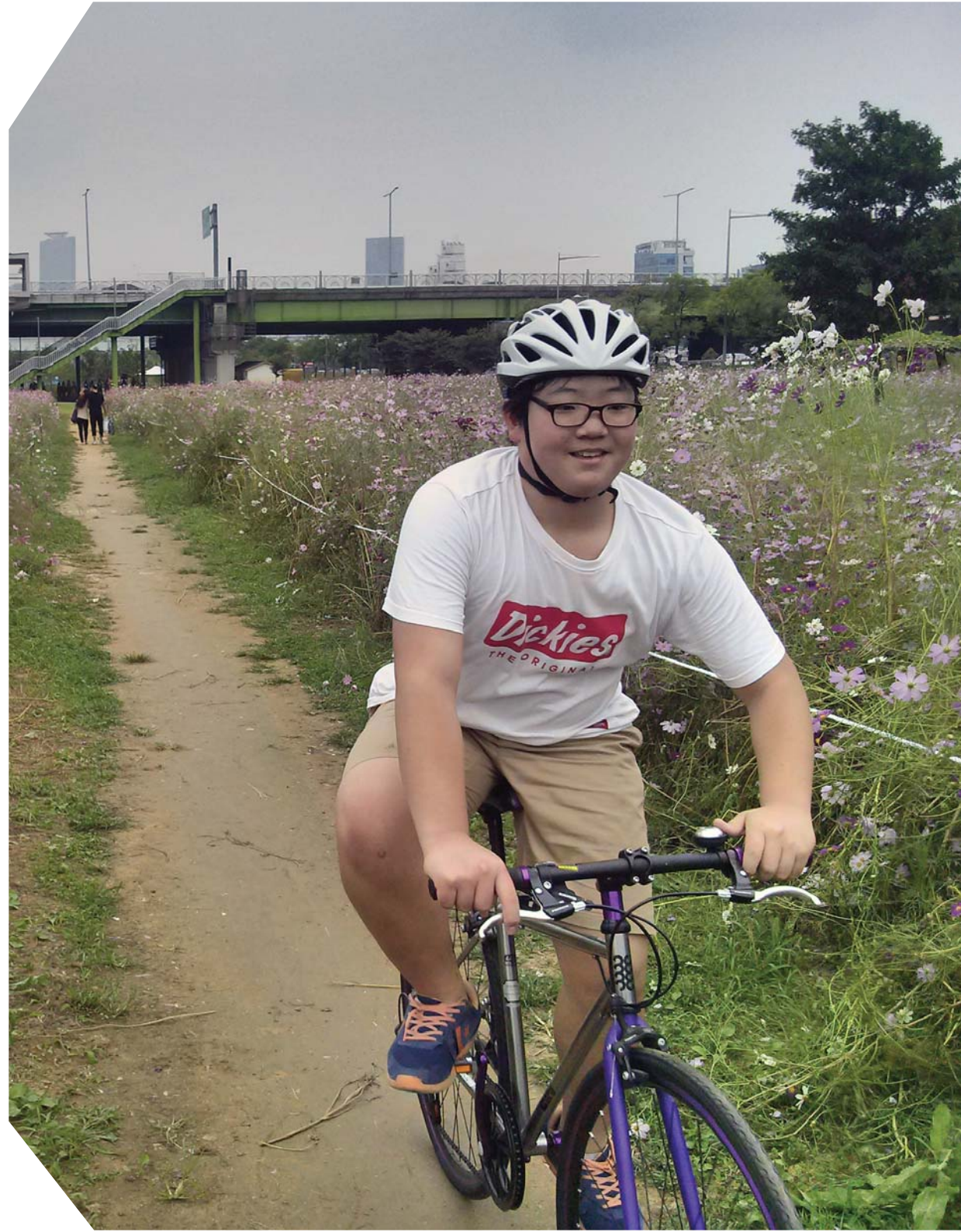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운전환캠프	기운을 나누고, 일상을 전환하는 캠프	4월 15일(화)~4월 17일(목)	신관 103호 외 하자센터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관계와 일 경험
상반기 플랜-B 프로젝트	자전거 워크숍	5월~7월 매주 수/금	자전거 공방 및 현장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한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 봄
	생활기술 워크숍		목공방, 흙공방	생활기술을 익혀 나와 주변(학교)를 바꾸어 살리는 활동
하반기 플랜-B 프로젝트	자전거 워크숍	9월~12월 매주 수/금	자전거 공방 및 현장	자전거 등하교로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어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남
	흙공방 워크숍		흙공방 및 현장	허브 정원의 타일 벽화 작업/ 내가 만나고 싶은 어른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릇 빚기
	음악공방 워크숍		음악공방 및 현장	일상을 노래와 가사에 담아 음악으로 만들어 모여 앉은 모든 곳을 음악의 공간으로 만듦
	공통수업		허브 신관 103 및 책방 등	어른이 되는 '나'를 상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감

성과

교실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시공간이 주어졌을 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꽉 짜여진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교실 안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청소년들은 하자센터에서 새로 만난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면서 차차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하자센터에 몸과 마음을 붙이기 위해 시도된 ‘기운전환캠프’는 하자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하는 통로이자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질 플랜-B 프로젝트의 예고편인 셈이었다. 하자투어를 하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후에도 학교와는 확실히 다른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다림”이었다. 청소년들이 하자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두고 보았다. 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수용하고, 행동하기까지의 시간을 허용하고 또 시행착오도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반응은 처음과 끝이 달랐다. 처음에는 “대체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라며 구체적으로 목표를 말해 주지 않아 답답해하던 학생들이 많았다.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각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조금씩 반응들이 달라졌다. “2시간 걸려서 값만한 가치가 있어요”라는 말에 “왜?”라고 물으면 “거기 가면 공기가 달라요.” “우리를 인정해주는 공기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왕복 3시간 여에 달하는 이동 시간을 마다하지 않았고, 전일참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기도 하여 2학기에는 주 2일 전일 참가로 구성을 바꾸기도 하였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기계 다루는 법(혹은 갖은 방법)을 배우기였다면 하자에서는 알아서 하는 법,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과정에서의 회고가 있었다.



성찰

프로젝트 도입 과정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년의 계획을 진행하면서 만들어 갔기에 초반 안내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하자에 학생들이 주민으로 입성한다고 했을 때, 하자마을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하자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간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소통하며 진행해야하는 과제가 남는다.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기운전캠프와 이후 프로젝트에서 같은 공방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 참여에서 흥미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1년을 같은 리듬으로 갈 학생들이라면, 초반 캠프에서는 1년 간의 계획을 공유하고, 우리만의 약속을 정해보는 등의 관계맺기와 마음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 달성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생활력)과 실제 학생들의 생활태도의 괴리감이 있었다. 손만 움직인다고 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손작업을 할 때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며, 디자인할 수 있는 구성력 등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자율과 자치가 과정상에서 병행되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망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자기 동기와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연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시행착오를 통해 구성된 사업이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자를 ‘두 번째 학교’로 만들어가는 시작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찾지 못한 ‘배움’을 하자에서 찾고 만들 수 있는 여유와 전환의 씨앗이 발견되었다. 지난 1년의 프로젝트는 자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몸과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꾸릴 수 있는 구성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내는 여정이었다. 자율과 자치가 일상을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고, 각자의 질문으로 시작해 다양한 답을 내 보고 함께 가볼 길을 선택해 시도해보는 것, 또 하나의 학교이자 배움터로서 하자가 시도했던 플랜비 프로젝트의 가치였다. 하자에서의 이루어지는 배움의 가치가 공교육 안에서 시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넓게 퍼져갈 수 있도록 틀과 길을 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글 | 한민정(들레, 교육기획팀)



청(소)년 토요진로(삶디자인)학교

■ 사업 이름 : 청(소)년 토요진로(삶디자인)학교

⊖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

동물에 관심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디자인과정에 관심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을 만나고 싶은/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
협력해서 일해보고 싶은 청소년

■ 기간 : 2014년 4월 12일~7월 25일(총 11회차),
10월 11일~12월 20일(총 11회차)

■ 대상 : 중학교 청소년(14~16세)

■ 장소 : 하자센터 및 각 활동현장

■ 참가비 여부 : 없음

■ 총 사업비 : 금 5,534,060원(1차), 금 9,772,830원(2차)

■ 참여 인원 : 각 회차별 청소년 25명, 총 50명(실인원)

⊖ ‘온 삶을 먹는 요리’

요리와 먹거리를 좋아하고,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디자인 과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일을 하는 어른을 만나고 싶
은/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 협력해서 일해보고 싶은‘ 청소년

■ 기간 : 2014년 4월 19일~6월 14일(총 10회차)

■ 대상 : 중학교 청소년(14~16세)

■ 장소 : 하자센터 및 각 활동현장

■ 참가비 여부 : 없음

■ 총 사업비 : 금 3,470,970원

■ 참여 인원 : 청소년 20명(실인원)

기획

“나의 개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타자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면서 세상이 파괴되어 감을 알고, 또 그것이 나/우리의 상황임을 안다면,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며 일상을 만들지 고민해보자. 작은 행동부터 한 번 시작해보자.”

“거대구조를 처음부터 바꾸려 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다. 구조만 외치고 사라지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즐겁게 해나가자”

“어른들을 만나고, 일을 경험해보자.”

“진로(삶)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내 손으로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고민해보자”

2013년 시작한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는 공공의 아젠다와 개인의 관심이 만나는 주제에서 출발해 통합활동을 통해 짧은 기간이나마 삶의 태도를 고민해보는 프로젝트형 과정이다. 2014년에는 4월 12일 총 50명의 중등 청소년들과 함께 두 개의 과정, 각 10여 회차의 여정을 진행했다. 두 개 과정은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와 ‘온 삶을 먹는 요리’이다.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는 생활환경과 구조, 습관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만들어 내고 있는 문제 상황을 과제로 두고, 이를 해결하며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일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 또래 친구들과 협업하며 몸을 써서 일해보는 체험형 워크숍 기반의 프로젝트이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하자센터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대를 보며 자신의 삶과 일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 연결시키는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스스로 돕고, 함께 도우며, 지속가능한 삶을 꿈꾼다-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주제로 하여 학습과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 공간에서 역할을 찾고 나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단지 돈과 안정성만이 아닌 나름의 ‘가치’를 고민하며 진로를 찾게 되는 판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머리와 아이디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감각을 활용해 일을 해보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함께 잘 하기 위해 소통하고 서로 돕는 경험을 하도록 기획된다. 2014년 토요일진로학교의 세부 주제는 파일럿으로 출발한 2013년에서 변화를 겪었으나 큰 맥락은 같이 하고 있다.



시리즈 1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는 ‘유기동물’로 불리는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을 주제로, 단순한 감정으로 일시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현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만나보았다. 지난해에는 몸과 마음이 다친 개들을 위해 보호소나 임시 보호처에서 사용할 물품을 제작했으며, 이번에는 심각한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다양한 입장에서 두루 살펴보고, 논의해보면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화장실과 놀이터를 만들어 보았다. 목재, 천 등 주재료는 재활용했으며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했다.

1회차에서 참여 청소년들은 워크숍을 통해 ‘함께 하기’ ‘잘한다라는 기존 기준을 깨고 보기’ 등 약속을 공유하고, 다큐멘터리 <더 언더독>을 만든 SBS 이승태 PD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2회차엔 인천수의사협회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와 연결된 일산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찾아가 상황을 듣고, 동물들도 만나 팀별 조사를 진행했다. 3회차에서는 수년간 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서정주 수의사와 만나 국내외 상황과 동물원 등에서의 동물권 문제, 길고양이 문제에 접근할 때의 태도와 아이디어,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4~9회차에서는 하자센터 신관 지하 목공방 등에서 직접 몸을 쓰는 작업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이정민 이사 등 소셜 임팩트 디자이너나 동물 관련 지역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함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네 명이 선배로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시리즈 2 ‘온 삶을 먹는 요리’는 세월호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1회차가 시작되어 모두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명에 대해 감사하면서 첫 만남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도 ‘요리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매 시간 요리를 하긴 하지만, 대량 생산되어 공급되는 급식과 편의점 삼각김밥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이 밥과 제철 반찬을 직접 해보고 그 맛을 느껴보면서 ‘먹는다는 것’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삶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간, 시간, 문화, 사회, 관계, 생명 등을 아우르는 식문화로 접근했다. 몸으로 행동하는 체험을 통해 함께 사는 건강한 삶과 먹거리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강의와 요리, 작업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 몸-머리-마음이 함께 움직이도록 했다. 제목은 윈델 베리의 <온 삶을 먹다>라는 책에서 따왔다.

<평화를 짓는 밥상>을 쓴 자연요리 전문가 문성희, 그린 디자이너이자 도시농부인 이영연, 사찰요리와 전통요리 전문가인 하미현, 법학자이자 환경활동가인 김은진 님, <자연을 닮은 밥상>의 저자이자 카페 운영자로서 마크로비오틱 요리법을 전파하고 있는 이윤서, 흥대 도시텃밭 다리를 디자인한 이경래, 여성환경연대의 농사 멘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이들의 삶과 현장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야기해 보았다. 작업 면에서는 도시텃밭을 방문해서 흙도 만지고 왜, 어떻게 구성하는지 관찰한 뒤, 학교 텃밭과 연계 모색도 해보고, 유기농 농부들과 요리사,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6월의 도시장터 마르쉐@에 직접 만든 브로슈어와 요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성과

청소년 토요진로학교는 주제중심 통합활동으로 ‘가치’에 대한 고민, 공적 가치로 일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어른’ 및 친구와의 만남과 협력, 시뮬레이션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현장 기반, 일상을 재구성해 보고 공공적 현장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는 노동이 되도록 기획, 진행되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는 2013년보다 더 밀도있는 경험을 가져 보기로 하고 주제알기/입체적 이해/할 수 있는 일 진행 이라는 3단계 구조의 워크숍 기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몸을 쓰는 일의 과정에서 몰입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해 보는 것을 중요하게 배치하였다. 손작업 노동을 통해 뭔가 쓸모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느낌은 저성장시대 돈으로 모든 생활 기반을 소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무력감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뚜렷하게 성취감을 보여 손작업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주요 요소로 배치할 만하다.

15명 모집에 16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신청했으며, 파주, 남양주, 용인, 수원 등 먼 곳에서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몰입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1~3회차를 통해 유기동물 이슈가 사회의 구조 및 생명권까지 연결된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치유된 동물을 포함하여 보호소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 어른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이후 작업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4~9회차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작업에서는 강사진이 다양한 구체적 실례를 제안했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담아 동물 및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진행했다. 손을 사용한 물품 제작 작업도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작에 몰입하면서 열정을 보이는 청소년도 늘어났다. 소하자 준비 과정에서는 평일에도 포털 사이트 카페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팀별 발표를 준비하는 등 몰입도를 보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개인 SNS에 사진과 함께 과정을 올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스케치 영상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이뤄지는 회고, 회의 과정에서의 발언, 이후 피드백 등을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진로에 대한 기준이 다각화, 구체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펙을 쌓고 싶다는 불순한(?) 생각을 하면서 참여했는데,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며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자아들을 깨닫게 되었다. 각기 다른 지역, 환경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며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매일 매일을 즐기는 방법부터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오늘 소하자 준비를 하다가 점심 김밥을 먹기 위해 우리끼리 하자센터를 돌아다니다가 올라갔던 옥상이었다. 누군가 옥상 문을 여는데,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누군가 있지도 않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눈치를 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깜짝 놀랐고 매우 슬펐다. 하지만 옥상에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제까지 못 느꼈던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래, 이렇게 40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온 삶을 먹는 요리>는 어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와 먹거리에 대한 관점을 배우는 것, 그 철학에 기반한 제철음식을 만들고 현대 도시 생활의 대안적 먹거리를 만들어 함께 먹는 것,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도시형 대안장터에서 공유하고 먹거리를 판매하는 3단계 구성으로 기획, 진행되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처럼 관점 변화에서 현장과 연계한 행동까지 경험해 보는 입체적 과정을 구현한 것이다. 이 때 독립된 워크숍들을 옹니버스식으로 연결해 하나의 맥락을 가지도록 구성했는데, 회차 별로 시작과 끝의 연결 짓기를 수업 중 일부로 넣어 참여자들이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체 의미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해 대도시 청소년들임을 감안, 생활환경을 근거로 하는 도시농업/ 텃밭을 가보고 그 밭의 생산물로 요리를 해보며, 공동체적 유통방식인 CSA나 정기 꾸러미 판매 등도 조사하게 했다. 요리 과정에서도 먹는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성한다는 것, ‘자연스러움’의 중요성과 제철 농산물과 밥상을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에서도 먹는 고기와 곡식들이 ‘생명’임을 느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먹기 전에는 다 같이 바람과 햇살과 농부님 등에게 감사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살’을 사는 생명이었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이들을 떠올리는 기회를 배치했다.

또한 자연 생태계와 청결, 함께 먹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 공동의 일상 약속을 만들었다. 텀블러와 수저, 앞치마, 머리끈을 챙겨와 활용하도록 했으며, 정리까지가 요리이므로 조리도구 정리까지 역할을 나눠 했다. 음식물 쓰레기도 지렁이 퇴비장 등을 활용해서 직접 처리했다. 중반까지도 반 이상이 잘 지키기 않아 여벌 물품을 준비해야 했으며 이후로는 서로 챙기며 진행하게 되었다. 마지막 ‘쇼하자’도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까 / 어떤 음식을 어떻게 나눌까 / 함께 먹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직접 구성하도록 했는데 포트락 방식부터 음악 선곡, 맞이해 환영하고 나눠 먹는 과정까지 자체 기획, 진행할 수 있었다. 주중에 학교와 학원을 오가다가 토요일 하루만 오는 경우라 몸의 ‘습’이 바뀌기는 어려운 구조이나, 부모들의 피드백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가 생겼던가 집에서 식사를 직접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모습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몰입도도 좋아서 총 10회차 동안 회차별로 85%의 청소년이 100% 출석했다. 초반에는 4~5명을 제외하면 개별 워크숍에서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시간에는 질문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회차가 쌓이면서 서로 돕고 대화하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개별 회고와 쇼하자 때의 에세이 발표, 부모 인터뷰 등을 참조하면, 초기에 가졌던 ‘요리=레시피’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우고, 자연과 생명, 생태계의 순환과 생활과의 연결에 대해 일부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먹는 것을 개인 취향의 문제로 생각했다가, 자신의 선택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같이 나눠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유명하고 멋진 요리사가 꿈이었던 참여자들은 미래의 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고백하였다. “평소에는 활기가 없는데 이 활동 전후로는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 신기했다”는 부모 피드백도 있어 청소년과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야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평소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지만, 난 늘 라면의 유혹에 넘어간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밥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또 요리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가 생겼다.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 일손도 거들어 드렸지만 중학생 돼서는 귀찮아서 아무 것도 안하고 컴퓨터만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다.”

“모르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좋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게 했으며 음식 관련 책들도 구입하셔서 내 식단을 따로 만들어 먹게 해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다. 지금도 내 몸에는 아토피 흔적들이 남아 괴롭히는 중이며 음식도 계속 조심해야 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었다. 그런데 이윤서 선생님이나 문성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먹거리를 배우고 나니 그 중요성도 알겠고 희망도 생겼다.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는 꿈이 생겼다.”



전망

몇 년 전부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속적으로 설정한 것이 단순히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질문하고 고민하며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실천하는 것, 나의 하루 하루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게 하자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뭔가 해 보는 활동과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물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비록 당장은 작고 소박한 것들만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일상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올해 진행을 통해 이런 설정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추후 확산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프로젝트 이후로 이들이 하자센터에 접속해 고민과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 주거 지역이 하자와 거리가 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원 수강이나 여행 등 개별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뚜렷한 이슈가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프로젝트 이후 하자센터가 공교육 청소년을 비롯한 하자 밖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다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팀 단위를 넘는 공동의 과제로서 센터 전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more info

2014 토요진로학교, 순항 중입니다!"
<http://www.haja.net/?p=8864>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http://www.haja.net/?p=9247>

참여한 청소년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yadyham>

글 | 손민정(브리스, 교육기획팀)

문래중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프리스쿨’

- 사업 이름 : 문래중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프리스쿨’
- 대상 : 문래중학교 1학년 33명
- 진행기간 : 2014년 8월 26일(화)~12월 11일(목)
- 참가방법 : 학교 연계
- 참가비 여부 : 학교·하자 매칭펀드 방식
- 장소 : 하자센터 각 워크룸 및 인근 지역(야외활동)
- 총 사업비 : 1,380,000원
- 총 참여인원 : 759명(연인원)

개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시행을 맞아 연구학교인 문래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개별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한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 이들의 자존감과 성취동기를 높이고 교육주체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용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진학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접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학습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014년 하자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이 개별 관심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 개의 문화예술분야 창작체험 프로젝트(공공디자인, 음악, 영상)를 기획, 운영했다. 학교 교실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또래 청소년들이 청년 창작자와 협력하여 공동의 창작물을 창조해보는 경험을 통해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찾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의도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문래중학교 학생들과 한 학기,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만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와 경험 쌓기에 주력하였다. 교사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암기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주변 일상을 새롭게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동의 창의적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창작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크게 공공디자인, 영상, 음악을 매개로 진행했으며 프로그램 당 10~11명으로 구성, 팀 작업을 중심으로 하였다.

‘공공디자인하자’에서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익힌 뒤 학교 환경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영상으로 이야기하자’는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워크숍 등을 진행한 뒤 독립영화를 제작, 상영하였다. ‘일상을 노래하자’에서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면의 감수성을 끌어내는 오감 깨우기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의 노래를 작사, 작곡, 연주, 녹음한 뒤 공연하였다.

* 세부사업별 내용 및 연인원

프로그램명	인원(연인원)	강사	활동내용
공공디자인하자	11명 (253)	최건 (가루)	골목, 담벼락, 공터 등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스쳐가던 공간에 드로잉, 춤, 가드닝 등의 작업을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변화를 줌으로써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게릴라 아트 체험 프로젝트
영상으로 이야기하자	11명 (253)	박새별	영상매체와 영상언어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고 상영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더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영상창작 체험 프로젝트
일상을 노래하자	11명 (253)	한겨레 (한군)	작사, 작곡, 악기제작 등 창작 기법을 익혀서 일상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로 자신들만의 창작곡을 만들어 연주함으로써 표현과 소통의 힘을 키우는 음악창작 체험 프로젝트

*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2일/ 2회	4일/3회		2일 (학교사정)	4일/13회	6일/14회	2일/20회	4일/21회
		9일 (추석연휴)	11일 (학교사정)	7일/7회	9일 (한글날)	11일/15회	13일 (수능)	9일/22회	11일/23회
		16일/4회	18일/5회	14일/8회	16일/9회	18일/16회	20일/17회	16일	18일
		23일 (학교사정)	25일/ 6회	21일 (학교사정)	23일/10회	25일/18회	27일 / 19회	23일	
26일/1회	28일 (학교사정)	30일 (학교사정)		28일/11회	30일/12회				

* 모듬 구성 및 운영방식

구분		1회	2~11회 (10회)	12회	13~22회 (10회)	23회
1모듬 (12명)	디자인 모듬	공동 OT	디자인	쇼하자 1 (중간발표)	디자인	쇼하자 2 (최종발표)
2모듬 (12명)	영상음악 A모듬		영상		음악	
3모듬 (12명)	영상음악 B모듬		음악		영상	

성과

“오늘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들뜬 얼굴로 설 새 없이 얘기해요” 문래중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이 한결같았다. 교실에서 엎드려 시간을 보내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학생들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아주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표현과 소통이 중요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특성상 참가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원하는 활동을 공동의 작업으로 연결하였다. 몸의 감각을 깨우는 신체활동과 마음 여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젊은 창작자들은 강사나 교사로서가 아니라 몸에 배인 수평적 관계로 접근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강사(어른)를 만나서 기뻛고,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에서 존중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창의적 표현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과 워크숍이 진행되면서는 앉아서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참가자들도 스스로 작업에 몰입,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을 격려해주고 관심과 칭찬으로 지켜봐준 학교 교사들이 있어서 더욱 상승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교 밖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교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디자인, 영상, 음악 등의 작업자들과 만나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새롭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극장, 한강, 정릉시장 등으로 현장학습을 나가는 날이면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 현장학습이 단순 일탈에 의한 흥미유발이 아닌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을 경험하고 주체적인 배움의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현장 연계를 고민해야 하겠다.

또한 진행에 있어서는 총 22회 모두 한 가지 매체로 진행한 디자인 팀보다 영상과 음악 두 매체를 각 11회씩 번갈아 경험한 팀이 더 좋은 반응을 보였다. 공공디자인이 영상이나 음악에 비해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작용했지만, 대체적으로 기간이 짧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찰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기획이나 진행에 있어서 협업이 다소 아쉬웠다. 선택프로그램이었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초반에 참가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내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역할 외에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유학기제를 통해 참가자들이 갖게 된 변화나 동기화된 흥미가 이후 학교생활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밖 활동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교와의 공동 기획, 교사의 참여관찰,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경험의 결과를 지속할 수 있는 후속모델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전망

2013년 시범 시행된 자유학기제가 2016년이면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의 진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는 찾아갈 체험현장이 없어서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직업체험 등을 유료로 연결해주는 민간업체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탐다운 방식의 정책으로 진로교육 역시 사교육 시장에 흡수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학습의 동기를 발견하고 삶을 꾸려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서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리려면 작은 경험이라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삶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배움이 필요하다.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청소년 스스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지역의 학습자원을 통해 스스로 또 함께 잘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도와야 할 것이다.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하며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과 피드백이 자유학기제 이후에 또 다른 학습동기로 이어질 때, 지역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지역과 함께 변화할 때, 자유학기제 시행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청소년 진로 콘서트

- 사업 이름 : 청소년 진로콘서트
- 대상 : 15~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0월 24일, 11월 21일, 11월 28일, 12월 5일
- 참가방법 : 온라인 참가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본관 999클럽, 신관 하하허허홀
- 총 사업비 : 4,430,400원
- 총 참여인원 : 455명(실인원)

개요 · 기획

‘진로’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란 콘셉트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단순 ‘직종’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초대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채로운 일의 경로와 삶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대규모 강연 콘서트로 기획하였다. 이때 참가 청소년들이 강연의 내용과 의미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다.

먼저,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참가 청소년들이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방적 특강 형태에서 벗어나 감성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브릿지 공연을 배치하였다. 또한 초대된 연사가 본인의 삶과 일에 대한 가치를 직접 정의하는 한 줄 문장 "나는 [] 한 사람"을 직업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강연 전에 각 연사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음악과 함



	이름	소속
강연자	박홍이 신지예 홍정현 임진모 심민아 오 단 홍성재 이윤신 복태 & 한군	연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오늘공작소 대표 (주)퍼블릭그라운드 대표, 동대문청년 PM 음악평론가 창의연구소 루미나 대표 청년장사꾼 000간 대표 음악가, 평화운동가 밴드 '복태와 한군'
사회자	김찬호 손민정	하자센터 부센터장 하자센터 교육기획팀
공연팀	갈매기 낚시 심민아	플랜비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2인과 강사 창의연구소 루미나 대표
영상촬영	박홍준	프리렌서



* 프로그램 진행 개요

구분	오프닝	강연	공연	클로징
	오리엔테이션	프리젠테이션	브릿지 공연	클로징 텍스트
내용	-공연 / 동영상 -강연 소개 : 프레젠테이션	1인 20분, 총 3인 진행	-강연 사이를 잇는 소규모 공연 및 영상 등 -강연자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강연의 전체적 의미를 전달하는 글 및 동영상
진행	사회자	강연자	사회자 및 공연자	사회자

* 1회차

날짜	10월 24일	시간	13:00 ~ 15:30	장소	신관 하하하하홀
강연자 리스트		강연 내용		참여 인원	
박홍이 연세대 물리학 명예교수		일이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		파주중학교 재학생 등 135명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홍정현 퍼블릭그라운드 대표, 동대문청년 DRP PM		일상의 기억을 만들고 기록하는 사람			

* 2회차

날짜	11월 21일	시간	14:00-16:00	장소	신관 하하하하홀
강연자 리스트		강연 내용		참여 인원	
임진모 음악평론가		음악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부흥중 외 3개 학교 201명	

* 3회차

날짜	11월 28일	시간	13:00 ~ 15:30	장소	본관 999클럽
강연자 리스트		강연 내용		참여 인원	
심민아 창의연구소 루미나 대표		사람들의 'True Color'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		신갈고 외 2개 학교 41명	
오단 청년장사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홍성재 000간 대표		이웃과 함께 사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			

* 4회차

날짜	12월 5일	시간	13:30-15:30	장소	신관 허브홀
강연자 리스트		강연 내용		참여 인원	
이윤신 음악가, 평화운동가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봉래중 외 2개 학교 78명	
복태와 한군 인디 뮤지션		음악이 몸과 마음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사람들			

성과

지난해에도 진행된 바 있던 진로콘서트를 올해는 각 회차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다. 이 중 2회 차 진로콘서트에서는 하자센터에서 일반고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했던 ‘플랜비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2인과 강사가 팀을 이뤄 2곡의 자작곡, 1곡의 기존곡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3회 차에는 오프닝과 클로징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해 참여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보았다. 또한 4회 차에서는 강연자가 뮤지션이라는 특성을 살려 음악과 강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기획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강연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연사들의 삶에 대한 동경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희망을 보여 주었다. 또한 현재의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품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참여자 코멘트

질의응답 중 받은 질문을 통해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가 청소년들의 질문은 가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의 꿈을 반대하거나 지지해주지 않는 주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꿈에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고 싶은 일이 이미 늦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꿈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돈과 하고 싶은 일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유명하지 않고 돈도 없는데 행복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공부가 중요한가? 대학이 중요한가?” “진로를 정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이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대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본 강연보다 더 연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진행 방식 등에 반영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성찰

진로콘서트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강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연자 섭외 과정에서 사전 미팅을 반드시 했고 추후에도 수시로 메일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잡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자의 개인 스케줄로 사전 소통이 어려워 콘서트가 임박해서야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전 미팅을 비롯해 소통이 원활치 않은 강연자를 섭외할 때는 정확히 그에게서 듣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최소한의 초고를 받아야 전체적인 기획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강연 영상의 공유 부분이다. 현재 하자가 영상 공유 툴로 사용하고 있는 비메오는 사이트 특성상 공유 기능보다는 아카이브 기능에 더 가깝다고 판단될 정도로 개별 영상의 검색이 어렵다. 다음 해에는 유튜브와 같이 공유가 원활한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전망

청소년들에게 ‘진로’란 언제나 중요한 고민 지점이다. 그동안 진로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다수의 청소년들과 만나왔는데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다. 원인을 찾아보니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강연이 많이 열리고 있으며 이 또한 참가 인원 모집이 원활치 않아 고심하고 있었다. 올해의 경우 일반 참여 신청이 많지 않아 그간 연계하고 있는 일선 학교 쪽으로 홍보를 했고 몇몇 학교에서 단체 참여를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집중도 및 다양성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진로콘서트의 구성과 방향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청소년들과 ‘진로’라는 주제로 만나면서 별도의 모객이 필요한 형태를 지양하고, 공교육 청소년들과 만나는 여러 루트에서 배움과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자에서 이뤄지는 다른 프로젝트의 공동 과정으로 설계하거나 일일직업체험 등과 연계해 특별과정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more info

강연 영상 :
일이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 | 박홍이(연세대 명예교수)
<https://vimeo.com/113575688>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https://vimeo.com/113887253>

일상의 기억을 만들고 기록하는 사람 | 홍정현(퍼블릭그라운드 대표, 동대문 청년 DRP PM)
<https://vimeo.com/113673779>

음악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 임진모(음악평론가)
<https://vimeo.com/114944546>

사람들의 'True Color'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 | 심민아(창의연구소 루미나 대표)
<https://vimeo.com/115313104>

글 : 한민정(들레, 교육기획팀)

토요 오픈클래스

- 사업 이름 : 토요 오픈클래스
- 대상 : 14~19세 청소년 및 일반 성인
- 진행기간 : 2014년 1월~12월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활동에 따라 다름
- 장소 : 하자센터 및 활동현장
- 총 사업비 : 470,350원
- 총 참여인원 : 3,689명(연인원)

개요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 보았다. 시기와 대상에 따라 강연, 축제, 워크숍 등 형태를 유연하게 기획하면서 비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기획 의도

청소년들의 진로 및 사회적 학습을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등 외부 현장과 연계한 활동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해보면서 자기이해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와 집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다.

진행

청소년들의 진로 및 사회적 학습을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등 외부 현장과 연계한 활동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해보면서 자기이해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와 집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다.



구분	일시	대상	인원	내용
다문화가정 1:1희망멘토링	4월 19일(토) / 3시간	12~15세 청소년(다문화가정/멘티) 및 30대~50대 성인 (LGI노텍 임직원/멘토)	38명	<p>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정 밖의 다른 어른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배움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멘토(어른)와 멘티(청소년)가 만나 상호 대화와 몸짓 언어, 함께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워크숍 이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다 (초록옥상) 또 하나의 얼굴 찾기, 페르소나 (조슈아나무) 몸으로 마음 표현하기 (신+두란)
서울놀토 엑스포	8월 23일(토) ~8월 30일(토) / 8일간	청소년, 그 외 일반인	3,468명	<p>서울 전역 청소년센터들이 함께 선보이는 축제의 장. 각 권역별 개막식을 시작으로 1주일 동안 서울 지역 각 청소년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행사 친환경노트 제작, 손 마사지 워크숍 - 주중 & 주말엑스포 일일직업체험, 달시장, 어린이놀이터
서울청소년축제	10월 24일(토) / 8시간	14세~19세 청소년, 일반 성인	183명	<p>서울 지역 청소년수련관 및 특화시설이 주체가 되어 여는 청소년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부스 운영 봉숭아 물들이기, 나뭇잎으로 손수건 염색하기

성과

토요오픈클래스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했다. 사회공헌 의지를 가진 기업 한 곳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기획해 진행했고, 서울놀토엑스포와 서울청소년축제를 통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판을 열어보았다. 하자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교육 워크숍을 진행해온 참여 문화예술작업자들은 기획에 즐거이 동참해 주었으며 현장에서도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하자 내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이 기존과는 다른 대상, 파트너, 활동 등과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전망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토요일에 청소년 활동의 장을 열어보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를 다 실현하지는 못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을 만났으나 정작 청소년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자의 토요일’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하자에 드나드는 청소년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체 활동들을 더 폭넓게 지원하거나 허브 공방 등 하자 내부와의 협업을 늘리는 등 기존의 자원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가능할 것이다.



more info

LG이노텍, ‘희망멘토링’ 발대식 개최...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지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04272>
<이투데이> 외 30여개 매체 2014.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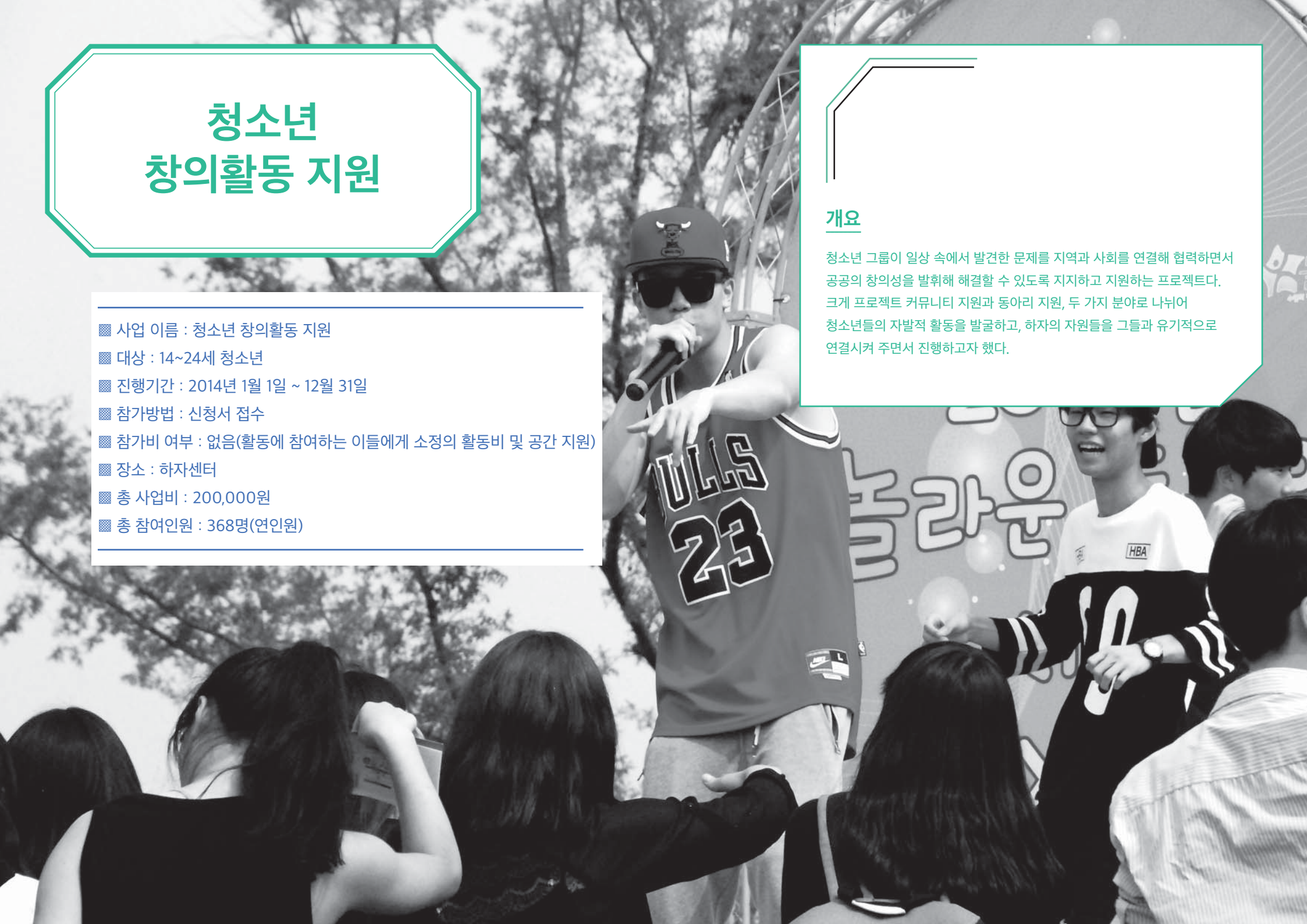
글 | 김진옥(바다, 교육기획팀)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사업 이름 :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대상 : 14~24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참가방법 : 신청서 접수
- 참가비 여부 : 없음(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및 공간 지원)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200,000원
- 총 참여인원 : 368명(연인원)

개요

청소년 그룹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지역과 사회를 연결해 협력하면서 공공의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크게 프로젝트 커뮤니티 지원과 동아리 지원,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발굴하고, 하자의 자원들을 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면서 진행하고자 했다.



구분	일시
2월	청소년 힙합 동아리 ‘랩하자’ 결성
4월	청소년 동아리 ‘목공하자’ 결성 ‘랩하자’ 일일 워크숍 1회 ‘DJ301’ 홍보 뮤직 비디오 촬영
5월	‘랩하자’와 ‘DJ301’의 프로젝트성 동아리 ‘Project 301’ 단기 결성 ‘목공하자’ 동아리 수요 나눔부엌 및 손쓰는 수요일 활동 참가
6월	‘랩하자’ 일일 워크숍 2회
8월	‘랩하자’ 동아리 ‘놀토엑스포’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9월	‘랩하자’ 동아리 대표 동대문 청년DRP 집담회 패널 참가
11월	‘랩하자’ 동아리 앨범 작업, 녹음

※커뮤니티 활동지원은 시기상 진행되지 못하여, 동아리 활동으로만 진행됨

성과

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와 자발적 청소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시작되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자발적 동아리가 탄생했고, 꾸준히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미 활동 중이던 DJ 동아리의 일원으로 하자를 오갔던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 분야인 힙합, 랩 장르를 좋아하는 또래 청소년들을 모아 랩 동아리를 결성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매주 1~2회 모이고 있다. 또 한 경우는 2013년 진행된 ‘라이프디자인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당시 작업했던 목공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의미를 담아 꾸준히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아예 동아리로 등록하게 되었다. 원거리인 파주에 살면서도 한 달에 몇 번씩 또래 친구들과 하자의 목공방과 자전거공방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공교육 청소년이 캠프를 통해 하자와 낯을 익히고 또래와 만나 동아리까지 결성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이다.

‘랩하자’ 동아리의 경우 7년 전 프로젝트로 출발해 동아리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의 폭도 넓다. 10대 시절 하자를 만났던 청소년들이 이제 후기 청소년이 되어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전망

사실 이 사업의 다른 한 축인 자발적 청소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은 올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던 4월 즈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학교 밖에서 재기발랄하게 딴 짓을 하는 시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려던 이 활동이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시작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던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다. 또한 하반기에도 이미 시작된 팀 전체 일정과 사업 진행 흐름 속에서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교육기획팀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대부분 공교육 청소년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들이 생각할 틈과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10대들을 만나는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올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두 개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탄생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의 활동이 하자 안에서 잘 보이지 못했으며 지원 또한 미흡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금, 토 등 주말에 동아리 청소년들이 하자를 찾았지만 담당 판돌이 이들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나 피드백, 차후 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다. 내년에 하자센터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멤버십’을 구상하면서 이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나갈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글 | 김진옥(바다, 교육기획팀)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 사업 이름 :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 대상 : 14~24세 청소년
 - 하자센터 프로젝트에 2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하자 네트워크학교 재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
 - 그 외 하자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 진행기간 : 2014년 5월~ 12월
- 참가방법 : 공개모집
 - 지원서 접수 : 2014년 4월 25일 ~ 5월 3일 18시
 - 서류 합격자 : 2014년 5월 7일
 - 인터뷰 : 2014년 5월 8일
- 활동내용 :
 - 하자센터 청소년 자치 활동 및 행사 기획
 - 청소년 사업제안 등
 - 월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참여/기타 하자센터 행사 참여
- 총 사업비 : 1,675,740원
- 총 참여인원 : 총 10명 (청소년 운영위원)

개요

하자센터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하자센터의 사업방향에 따라 이름과 내용을 달리하며 운영되어 왔다. 2014년은 하자센터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치 행사를 기획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으며.

- ① 별자리파티 기획단, 책 읽기, 영화보기 소모임
- ② 체육대회, 문화체험, 현장학습 등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축으로 기획하였다.

날짜	구분	내용
2014.05.17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운위 소개 및 역할 안내 ○ 소모임 및 멘토소개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 청소년 소개 ○ 기타 안건논의
2014.05.24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장수여 ○ 별자리파티기획
2014.05.28	별자리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의 오스카 빈 - 훈민의 기타 연주 - 유자청의 슈가타운, 무화과오두막 ○ 생일축하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유자청 반주) ○ 영쉐프 케익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쉐프에서 만들어진 케익 베이스에 생일자들이 데코레이션 ○ 축하편지와 선물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돌들이 써준 편지, 선물 뽑기
2014.06.20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자리 파티 리뷰
2014.07.19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논의
2014.08.28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포럼 관련 논의
2014.09.19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포럼 준비 모임 1.
2014.10.26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포럼 준비 모임 2.
2014.11.12	정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포럼 정리 및 이후 활동계획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대회 계획 - 문화체험 - 현장학습 (완주 외)

2014.11.29	체육대회	○ 하자마을 운동회
2014.11.30	문화체험	○ 제프 & 리사 마임 공연 관람
2014.12.13	현장학습	○ 하자의 흐름과 관련한 현장 방문 - 적정기술 박람회 '나는 난로다' - 덕암 에너지자립마을
2014.12.17	정기회의	○ 1년 평가 및 개인 회고

성과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하자네트워크학교에 재학 중인 중등과정 3명, 고등과정 6명, 청년과정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자센터는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하자네트워크학교 5개 학교 학생들의 공동의 자치 활동을 중점에 둔 활동을 기대하였으나, 각 학교 고유의 학사 일정으로 인하여 여러 학교 학생들의 통합적인 자치활동은 여의치 않았고, 대신 정기모임을 이어갔다.

정기모임을 통하여 ‘별자리파티’, ‘책모임’, ‘영화 보기’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의 연합 소모임 활동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고, 체육대회, 문화체험, 현장학습 등 공동학습의 현장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망

근 10년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여러 형태로 변화하며 하자센터의 청소년 그룹으로써 그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해왔다. 2013년에는 다양한 유입 경로와 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고 하자센터와 다른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결합 지점이 달라 내부 결속에 시간이 많이 할애하였고, 실질적인 하자 내 청소년 대표 그룹으로서의 활동은 조금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하자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고 있는 하자네트워크학교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학교들의 학사 일정이 달라 자치활동 보다는 정기 회의를 통해 공동 활동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고 체육대회, 문화체험, 현장학습과 같은 공동 행사를 마련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포럼

- 사업 이름 : 교육포럼
- 대상 : 교사, 교육관련활동가, 일반 성인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12월 / 총 7회
- 참가방법 : 이메일, 아카이브 신청
- 참가비 여부 : 각 회차별 상이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1,500,280원
- 총 참여인원 : 560명(실인원)

개요

교육포럼은 현장의 교사, 관련활동가들과 함께 주제별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 진로 관련 담론을 펼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시대의 맥락과 흐름을 읽고 진단하면서 국내외 현장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파트너들을 찾는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 주제 및 대상에 따라 강연, 워크숍, 공동의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기획 의도

청소년 진로교육과 관련, 학교 안과 밖의 삶을 두루 포괄하는 교육 활동과 연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다양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 실험해 온 하자센터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환기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현장과의 연계를 더 밀접히 하고자 했다. 2014년에는 청소년 교육 관련 이슈 중 자유학기제, 전환학년제 등 정책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일정		사업명	내용	참여인원
1	2월 18일(화)	일일직업체험 교사설명회	2014년 일일직업체험의 내용과 개편 지점 등을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에게 소개했다. 하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과 일선 교육 현장의 연계 지점을 찾기 위한 설명회로 기획되었다.	25명
2	3월 12일(금)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교사/활동가모임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과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파트너들과의 간담회	10명
3	4월 18일(금)	자유학기제 자문회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문회의	25명
4	6월 18일(수)	진로진학 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중등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부전공 자격연수	33명
5	7월 25일(금)	크리스 메리코글리아노 초청강연	세월호 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알바니 프리스쿨 크리스 메리코글리아노(Chris Mercogliano) 前 교장을 초대해 오늘의 교육을 되돌아 보며 이야기 나누었던 자리	230명
6	10월 31일(금)~ 11월 2일(일)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교사 초청 세미나	전환학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교사들을 초청하여 교육철학, 교육과정 및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토론하는 세미나	180명
7	12월 23일(화)	넘나들며 배우기 - 학교, 혼자선 안된다	현재 제도교육이 배움의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즉 지역사회 및 마을과 만나는 경험 속에서 배움과 삶의 동기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포럼	57명

성과

총 7회로 진행된 각 포럼 및 워크숍은 1)주제별 포럼 및 세미나 2)현장의 실행-진로교육의 방향 및 기획 3)교육기획자·교강사의 성장 4)사회적 함의 도출 및 확산 등 크게 4가지 갈래로 기획, 진행되었다.

사업적 맥락을 공유하고 연계할 학교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진행한 일일직업체험 교사설명회를 통해서도 올해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Plan-B' 프로젝트를 함께 할 일선 학교 두 곳을 발굴할 수 있었다. 전환학교, 마을교육은 9월에 열린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도 논의되었고 이어 10월과 12월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미국 메트스쿨 빅픽처러닝의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월호 이후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보았던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의 강연 또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교육포럼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세월호 이후 청소년의 삶, 전환학교 등 하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방식 또한 취지와 주제에 맞춰 세미나, 토론회,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일정 역시 비정기적으로 이슈 환기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각 팀에서 외부 파트너들과 연계해 조정했으며 예산 또한 각각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교사 초청 세미나,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강연, 넘나들며 배우기 포럼 등은 특히 하자센터와 동일한 교육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대안교육연대, 민들레 같은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실현할 수 있었다. 다음 해에는 이런 협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more info

한국교육, 이대로는 망한다 <프레시안> 2014.11.0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49>

'가만히 있어라' 교육이 죽인, 세월호 아이들 <아시아경제> 2014.08.0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0610220907362>

가만히 있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시사IN> Live 2014.08.1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1>

1년간 인생설계 돕는 학교 아세요? <한겨레신문> 2014.11.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4868.html>

글 | 김진욱(바다, 교육기획팀)

생각하는 청개구리 (어린이 창의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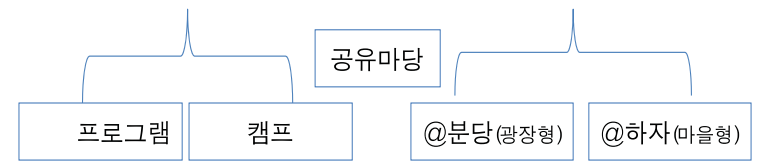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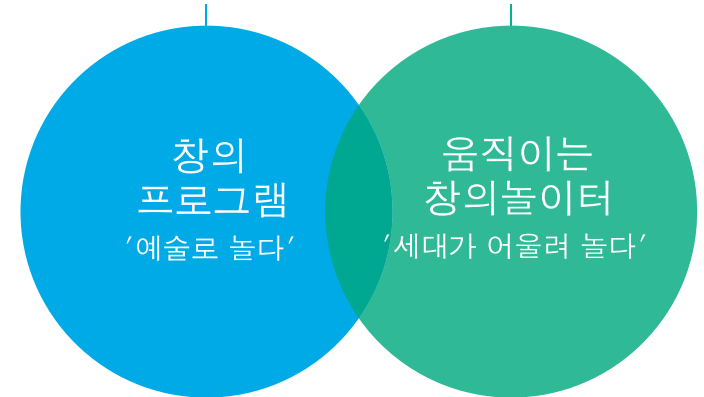
- 사업 이름 : 생각하는 청개구리(어린이 창의교육사업)
- 대상 : 유아~13세 이하 청소년, 청년, 성인
- 진행기간 : 2014년 3월~2015년 2월
- 참가방법 : 지역 아동복지기관 연계(창의 프로그램)
: 자유 참여(움직이는 창의놀이터)
- 참가비 여부: 없음
- 장소: 하자센터, 분당 암웨이브랜드센터, 각 아동복지기관
- 총 사업비 : 266,573,988원
- 총 참여인원 : 3,130명(실인원)

개요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교육사업으로 불확실한 세상, 위험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잠재된 창의성을 발현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놀이'에 초점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기획, 진행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다세대가 놀이와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는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라는 놀이축제로서 연내 하자센터 및 분당 암웨이브랜드센터에서 선보였다.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예술로 놀며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 프로그램 확산으로서 각 지역 아동복지관, 문화예술 작업자들과 공동 기획, 진행해 보았다.

문화예술작업자와 어린이들이
예술을 매개로 함께 놀았다.

다양한 세대가 놀이로
어울리는 장이 펼쳐졌다.



생각하는 청개구리

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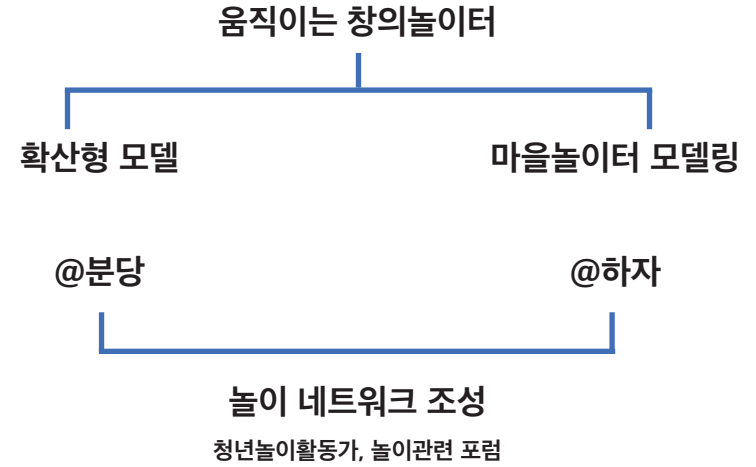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더불어 사는 창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창의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창의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창의는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어울려 노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 신뢰, 도전, 협력, 즐거움, 배려, 공정함 등을 알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놀 수 없는 환경과 경쟁적 상황에 놓여 놀이가 사라지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놀이에 집중했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놀면서 상호간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창의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작업자와 예술 창작 활동을 하며 ‘예술로 논다’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기획했다. 놀이터 현장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현 시대에서의 놀이에 관해 함께 공부하고 기획하는 모임인 청년놀이활동가를 구성하고 진행했다. 이와 함께 놀이에 관한 인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놀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룹을 모아 소규모 포럼을 열었다.

진행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함께 놀며, 힘과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축제의 장이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놀이, 세대 간 어울림이 있는 놀이가 펼쳐지며 ‘더불어’와 ‘함께’라는 취지를 구현한다.

	월	주제
@분당	6월	가족과 놀자
	8월	함께 놀자
@하자	6월	놀이, 서로를 바라보게 하다
	7월	함께 놀자
	8월	놀이, 서로를 살리다
	9월	다세대가 함께하는 놀이
	10월	다음을 약속하는 놀이터
놀이 네트워크 조성	9월	1차 놀이 난감모임
	9월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례공유 포럼
	10월	2차 놀이 난감모임
	5~12월	청년놀이활동가 모임 및 활동



‘더불어 사는 창의’라는 모토를 가지고 목공, 영상, 음악, 디자인 등 문화예술작업자와 함께하는 공동창작 과정을 만들어 확산했다. 이 과정은 대상 어린이들에게 관계를 쌓아가는 놀이가 되었다. 서울, 경기 일대 지역 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과 매칭되어 맞춤 활동을 했으며 여름캠프 및 연말 공유마당도 열었다.

프로그램명	문화예술 작업그룹	아동복지기관	매체	내용
기발한 사진가	기억발전소 (예비 사회적기업)	동서울 지역아동복지센터	사진, 영상, 문학	사진 활동을 하며 주변을 관찰하고 다양하게 표현함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나와 주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생각한다.
꿈지樂 꿈지ROCK	문구 (인디 뮤지션)	서대문 지역아동복지센터	음악, 목공	함께 작사, 작곡을 하고 공동의 악기를 제작함으로써 음악으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너와 나	위누 (사회적기업)	영등포 지역아동복지센터	회화, 디자인	다양한 방식의 놀이를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원가를 만든다. 타인을 위한 제작을 하면서 관계를 생각해본다.
우리 안에 마음 나무	디자인교육연구 그룹 생감.자	구세군 지역아동복지센터	디자인, 연극	자연놀이, 연극놀이, 디자인을 하며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감정과 욕구를 통한 관계의 연결망을 고민하고 예술을 매개로 표현한다.
생활기술 공작소	수산업 (청년 작업자그룹)	청운 지역아동복지센터	목공, 재봉, 디자인	공용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만들어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쓸모있는 연구소	예술생성소 풀 (소셜 벤처)	강동 지역아동복지센터	시각예술	버려진 것들을 새롭게 만들며,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으며 더불어 사는 의미를 같이 풀어간다.
열한빛깔 무지개	김선영 (문화예술 교육자)	청솔 지역아동센터	춤, 미술	함께 어울려 놀면서 몸으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상상으로 친구와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다.

영상놀이 연구소	영화제작소 논 (사회적기업)	강서 지역아동복지센터	영상, 영화	공동으로 영상을 만들며, 함께 생각을 나누고 표현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협업'을 경험한다.
우리 동네 프로젝트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티벌	SOS 지역아동복지센터	공연음악, 춤, 디자인, 영상	마을을 생각하며 음악, 영상, 디자인, 춤 활동을 벌인다. 동네와 이웃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하며 '함께 살기'를 구현한다.
움직임직 마법사들	슈퉁크 (애니메이션 작가 그룹)	혜명 지역아동복지센터	애니메이션, 영상	공동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다. 공동창작 과정을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성과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어린이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축제, 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영등포의 대표적인 마을장터로 자리잡은 달시장과 연계해 진행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하자'는 마을놀이터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마을장터 속에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하자'는 어울림 속에서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장이 되었다. 어린이와 어른이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만들어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어른들은 어릴 적 놀던 놀이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자녀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 모임의 태동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성과를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분당에서도 확대하기 위해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 공간을 넓히고 공동 창작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놀이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포럼을 진행하면서 향후 연계를 모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청년 놀이활동가 과정을 진행하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현장에서 세대 간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해 보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대가 놀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 작업자, 아동복지기관, 하자센터가 함께 기획했다. 정해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자간 논의하면서 지역자원, 어린이들의 성향 등을 고려한 맞춤 활동을 설계했다. 이때 프로그램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것보다, ‘더불어 창의’라는 주제로 공동창작을 하며 나, 우리, 자연, 사회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고, ‘놀이’라는 매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와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2014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동창작물을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사례가 2013년 대비 더 늘어났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놓을 공동의 가구들을 손수 만들어 제작하는 활동, 동생들을 위한 놀이와 게임을 만드는 활동, 타인에게 보여줄 영상을 만드는 활동, 도시와 농촌 친구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캠프 활동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창의'를 몸소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 코멘트

“처음에 ‘놀이활동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내가 잘 놀지 못했으니 아이들이라도 맘껏 놀게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말이다. 그런데 ‘놀이’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아이들을 ‘놀게 하자’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놀이를 시키자’가 아니라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그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유정/ 청년놀이활동가

“활동을 통해 저희를 친한 친구 사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김현정/ 창의 프로그램 ‘영상놀이연구소’ 참여 어린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속에서 세계가 태어나고 스토리가 구성된다. 결핍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펼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갈등과 토론과 합의를 찾는 법을 선사한다. ‘개인’과 ‘공유’와 ‘창조’가 유기적으로 자라고 변모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진정한 ‘놀이’가 사라지고 있다.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아이들과 바로 그 ‘놀이’를 하고자 하였다.

이문주/ 창의 프로그램 ‘움직임직 마법사들’ 참여 작가

“작업물의 규모가 커서 팀을 이뤄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작업이 일찍 끝나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필요한 다른 팀에 가서 도와주며 ‘더불어 산다’는 말에 담긴 따뜻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한 해 동안 아이들과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았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남는 건, 힘이 필요할 때 말없이 다가와 뒤에서 받쳐주었던 친구의 손길, 그리고 완성했을 때 느꼈던 뿌듯함과 짜릿함, 만들면서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이야기와 웃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다. 이런 순간의 감정과 기억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더불어 창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희진/ 창의 프로그램 ‘생활기술공작소’ 참여 작가



성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와 창의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창의’라는 주제와 ‘놀이’라는 모토로 진행되었으나 연계고리는 약했다. 또한 생각하는 청개구리가 지향하는 ‘놀이’의 취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놀이의 공동 토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놀이 난감모임과 같은 네트워킹 모임을 기획,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같은 놀이 활동을 하고 있어도 각 단체나 팀별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연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놀이활동가는 놀이터에서 다른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이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 진행 과정에서 청년이 ‘놀이를 잃어버린 세대’, ‘놀이가 부자연스러운 세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뿐 아니라, 20~30대인 이들 역시 놀이가 어색했고, 한편으로는 놀이가 간절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놀지 못했고, 그래서 놀이를 매개로 진심으로 다른 세대를 만나는 일이 쉽지않은 않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놀이를 둘러싼 논의는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다.

¶ 창의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었던 만큼 다양한 작가 집단, 장인들을 어린이들과 만나게 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이로 인해 세대간 배움의 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만 연계하기 때문에 때로는 활동이 센터 안으로만 수렴되고 외부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다. 실제로 참여 어린이들 대상의 설문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이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담당 작가 외에도 다른 예술작업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다.



내년에도 ‘놀이’라는 공통의 이슈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더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의 경험을 기반 삼아 마을놀이터를 통해 더 많은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광장형 놀이터는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두의 놀이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다. 스폰서 기업은 물론 다른 기관, 그룹과의 연계를 맺어 캠페인 등을 펼치기도 쉬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관계를 만들어온 지역 기반 가족단위 주민들과 함께 마을놀이터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을형 놀이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연결되어 어울려 사는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성인 대상의 다른 사업들과도 연결되어 확장, 진화되어 갈 수 있다.

¶ 창의 프로그램

2014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해온 창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작업자와 어린이의 예술 활동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혜적 입장에만 머물렀던 아동복지기관이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함께 기획하면서 기획 파트너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SOS지역아동복지센터와 하자센터 내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프로젝트’는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등 다세대가 어우러지며 영상, 춤, 디자인 등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3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맺어온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함께 일하는 공동 작업자의 위치에서 함께 작업하고, 우리 동네(신월동)를 둘러보며 이웃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꾸준한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지역 및 문화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창의’의 의미를 확장해가는 또 하나의 실험이 될 것이다.



more info

2014년 생각하는 청개구리 정리 영상 <http://vimeo.com/118086642>
움직이는 창의놀이터@하자 인터뷰영상 <http://vimeo.com/117230461>
움직이는 창의놀이터@하자 스케치영상 <http://vimeo.com/117228144>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현장 놀이 인터뷰 영상 <http://vimeo.com/109789392>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분당 스케치 영상 <http://vimeo.com/108546872>

글 | 김승영(라운, 교육기획팀)

하자 네트워크학교

하자 안의 작은 학교들
그리고
함께하는 네트워크 실험

하자네트워크학교

- 사업 이름 : 하자네트워크학교
- 대상 : 하자네트워크학교 재학생
(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세프스쿨, 집밖에서 유유자적프로젝트, 연금술사)
- 진행기간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 장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20,917,810원
- 총 참여인원 : 1,165명(연인원)

개요

하자네트워크학교는 하자 안에 있는 5개의 작은학교들(하자작업장학교, 로드스콜라, 영세프스쿨, 연금술사, 유유자적프로젝트)과 함께 2012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각의 학교들과 함께 하자가 지향하는 ‘창의적 공유지대’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네트워크학교는 2014년 3월 마을인문학 입문 및 특강, 마스터클래스 춤 워크숍과 질문하는 과학수업, 현장학습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목		날짜	내 용
마을인문학	입문	3월 12일~28일	1강. 생각을 살리고 - 이 우연한 만남, 전환을 위한 1년 (하자마을총장 조한혜정) 2강. 기운을 살리고 - 무중력 시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어디에 있을까? (집밖에서 유유자적 대표 이충한) 3강. 관계를 살리고 -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로드스콜라 교장 김현아) 4강. 공간을 살리고 - 삶 디자인 : 공공생활거점 ‘살리고 살리고’ (하자공간디렉터 박수범) 5강. 기술을 살리고 - 아라우에서 밀양까지 : 거대기술의 탄생, 그 이후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 초빙교수 정철) 6강. 마을을 살리고 - 하자마을에서 놀자, 배우자, 살자! (하자센터 부센장 황윤옥)
	특강	4월 23일	문화인류학자 김현미 특강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집 떠난 이들과 이웃하여 살아가기”
		6월 5일	사회학자 김찬호 특강 “생존에서 존엄으로”
7월 22일		공동체 상영회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마스터 클래스	남정호 춤 워크숍	8월 4일~13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남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춤 워크숍
	질문하는 과학수업	10월 15일~11월 20일	연세대학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세 분의 명예교수의 강연을 듣고 질문하는 과학수업
현장학습		6월 6일~8일	고정희 시인 추모 기행 (해남)

하자네트워크학교 첫 해가, 하자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개교 시점과 운영 목적이 다른 하자 안의 학교들이 모여, 하자가 지향하는 ‘공공적 창의시대’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면, 2013년은 네트워크학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각 학교의 다름 - 지향의 차이, 교사/학생 소속감의 차이, 규모의 차이, 운영주체의 차이 - 을 인정하며, 새로운 운영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였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각 학교의 현황과 그간의 경험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며, 네트워크학교에 대한 지향점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자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수업을 개설하며 네트워크학교의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수업의 참여 대상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 및 확산 가능성을 점쳐 본 한 해였다.



전망

3년차를 지나며, 네트워크학교의 기본적인 운영 틀거리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

학기 초반, 하자라는 공간의 새로운 주인으로 마을에서 함께 지내기 위한 ‘공동의 감수성’을 인문학을 통해 학습했다면, 의례와 여행은 ‘공동의 기억과 경험’을 쌓아가며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익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본일정을 토대로 각 학교들은 학교 간 논의와 학생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커리큘럼과 일정, 교육 철학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내용과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향후 네트워크학교는 공동 일정의 확대와 콘텐츠 개발 보다는, 학교 간 협력과 학생 참여도를 높이며 ‘네트워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more info](#)

사이트 <http://nschool.haja.net>

하자작업장학교

하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는 제 4섹터의 창의적 공공작업자로 성장해갈 청소년들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2001년 9월에 개교하면서 하자작업장학교 1기를 시작했고, 10년째 되던 2010년에 다시 2기로 이어졌다. 1기는 학교밖에도 청소년이 있으며, 평생 지속할 즐거운 배움과 일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 밝히는 학교였다.

2기의 하자작업장학교 또한 1기의 하자작업장학교처럼 청소년들의 ‘학교만들기’ 기획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학교는 ‘배움이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함께 있는 ‘우정의 작업장’이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학교이다.

1. 중등과정(2년) : 손과 시간과 마음의 연결망을 만드는 '실과교실' : '우정'과 '협동'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은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살리는 실과교실이다. 생활기술로서 버려진 자전거를 세상에 하나뿐인 자전거로 재생하고, 목공 연장들과 친해져 작은 목공일을 배우기도 한다. 인문학과 글쓰기, 노래짓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배운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한다.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실 공간이나 주변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종종 세계에서도 몇 개 안되는 모래강 내성천을 찾거나 내성천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산어린이학교와 (자전거/목공) 공방협력교실을, 성미산학교와 평창의 농장학교 농활을 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더하여 영월의 강원도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진로/생태캠프를 진행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었다.



2. 고등과정(3년) : 불안 숲을 구원하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크리킨다학교' : '생태, '평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다양성, 함께 살기)

고등과정의 시즌2를 시작한 뒤 곧이어 목격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학교의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했다. 시즌2의 세 개 키워드는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 디자인, 영상, 공연음악, 춤 등의 예술적 매체를 배우고 익히되, '현미 네 흙(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인문적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2013년에는 부안, 영광, 삼척, 밀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 지형'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시작했고, 2012년부터 시작한 SOS 어린이마을과의 '우리동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3. 청년과정(2년) : 삶과 공동체의 회복resilience를 꿈꾸는 '전환기술작업장' : 자공공 (自助/ 公助 / 共助)

2013년에 시작한 청년과정은 '스스로를 돌보고 함께 살고 일하며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슬로건 하에 시작한 자공공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과정의 학습을 돕는 인턴 혹은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농업과 적정기술(목공, 철공, 난로제작 등)의 기초수업을 진행한 첫 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적정기술 집짓기인 살림집 프로젝트와 자공공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more info

사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school>

트위터 <http://twitter.com/#!/hii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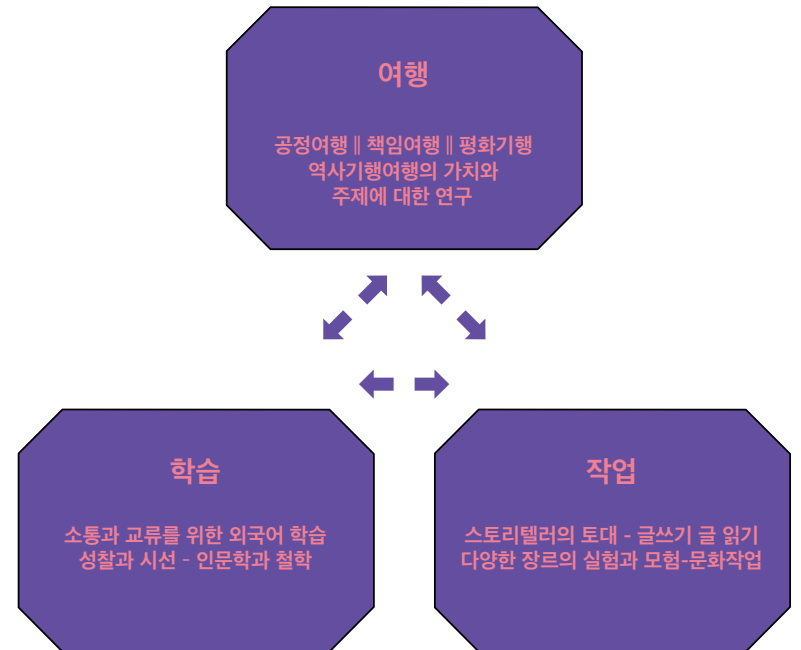


로드스콜라

- 사업 이름 : 길 위의 학교 로드스콜라
- 대상 : 15~22세 청소년
- 모집시기 : 12월 말~다음해 1월 중순
- 모집 정원 : 15~20명
- 학비 : 2,100,000원(점심식사 포함)
- 학제 : 3년제(1년 2학기)
- 재학 인원 : 1년차 길머리과정, 길가온 1과정 21명,
2년차 길가온 2, 3과정 13명

개요

로드스콜라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로드(road)와 '학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콜라(schola)를 합친 말로,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학교, 여행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로드스콜라는 여행 속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배우고 국내외 개인 및 그룹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연대한다. 소통과 배려,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하며,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세상을 지속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정	내용
2013.11~12	[6기] 2014년 신입생 모집
2014.1.06(월)~1.10(금)	[6기] 지원자 상호면접
2014.1.13(월)~1.16(목)	[5기] 길가온1과정 평가 테이블
2014.1.15(수)	[6기] 신입생 최종 합격자 발표
2014.1.22(수)	[6기] 신입생 1차 오리엔테이션
2014.1.25(토)	[4기] 수료식
2014.2.3.(월)~2.10(월)	[6기] 등록기간
2014.2.27(목)	[3기] 졸업식
2014.3.3(월)	[5 & 6기] 6기 입학파티, 5기 길가온2과정 개학파티
2014.4.14(월)~5.16(금)	[6기] 길머리과정 제주 프로젝트 4.15(화)~4.24(목) 도보여행 4.26(토)~5.16(금) 마을 프로젝트
2014.5.4.(일)~6.17(화)	[5기] 길가온2과정 영국 프로젝트
2014.5.19.(월)~5.23(금)	[6기] 단기방학
2014.5.26(월)	[6기] 재개강
2014.6.18(수)~6.24(화)	[5기] 단기방학
2014.6.25(수)	[5기] 재개강
2014.7.4(금)	[5 & 6기] 6기 길머리과정 수료 & 5기 길가온2과정 종강파티
2014.7.14.(월)~7.18(금)	[6기] 길머리과정 평가 테이블 길가온2과정 평가 테이블
2014.7.21(월)~7.22(화)	[5 & 6기] 여름 M.T
2014.7.23(수)~8.31(일)	[5 & 6기] 여름방학

2014.8.20(수)	[6기] 길가온1과정 개강파티 및 학기수업
2014.9.01(월)	[5기] 길가온3과정 개강파티
2014.9.2(화)~12.26(금)	[5기] 길가온3과정_수료프로젝트 : 음반제작, 평화콘서트
	[6기] 길가온1과정 학기수업
2014.9.16(화)~10.20(월)	[6기] 고려인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2014.10.21(화)~10.27(월)	[6기] 단기방학
2014.10.28(화)	[6기] 재개강
2014.11.06(목) ~11.07(금)	[5기] 수료 프로젝트 창작연극 <보단, 나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
2014.12.16(화)	[6기] 길가온1과정 종강파티
2014.12.23(화)	[5기] 수료식

* 2014년 로드스콜라 1년차 6기 21명과 2년차 5기 14명 대상으로 동시 진행되었음

성과

로드스콜라 6기는 길거리과정에서 30일간 제주여행 프로젝트를 기획해 제주지역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고, 마을 지도를 만들고, 도보여행 코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을과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정과 신뢰, 작업자로서의 올바른 품성을 갖추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몸으로 학습한 것이다.

길가온1과정에서는 고려인 이주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50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고려인의 이주, 연해주 정착, 다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등 한국과 러시아의 부침 많은 근현대사 속에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던 고려인들의 삶 속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로드스콜라 5기는 길가온2과정에서 영국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세계 이웃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남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몸에 익히고 다문화 수용하는 감수성을 계발해 보았다.

길가온3과정은 수료 프로젝트로 그간 세 번의 여행과 공부를 기반으로 자신의 일상과 여행을 기획하고 만드는 문화작업자로서 활동했다. 이 성과는 창작 연극 <보단, 나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를 비롯해 노래 음반,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였다.



전망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여행학교 로드스콜라의 교육과정을 대안교육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청소년, 일반 성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른들을 위한 로드스콜라의 첫 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나이, 성별 등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드스콜라 여행에 참여하여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글 | 김미경(야리, 로드스콜라 길잡이교사)



연금술사 일학교



2014.05. 크림, 잼, 쥘, 이환, 푸첩

- 사업 이름 : 연금술사 일학교
- 대상 : 비진학미취업 18~24세 후기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 참가방법 : 지원서 제출
- 참가비 여부: 무료
- 장소: (주)연금술사 업장 및 서울 전역
- 총 사업비 : 90,000,000원
- 총 참여인원 : 실인원 11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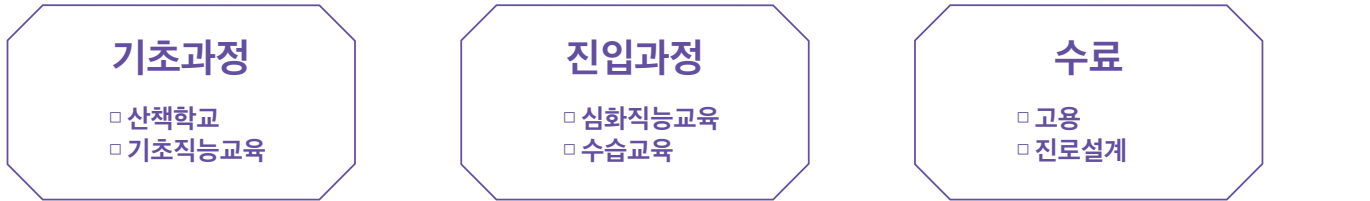
‘연금술사 일학교’는 비진학미취업 후기청소년의 먹고 살기를 둘러싼 곤란함을 풀어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음식업 - 진로교육 통합모델 수립)’를 목적으로 진행한 파일럿 사업이다. 이 사업은 JP모간이 연세대를 통해 후원한 교육사업 ‘자생, 삶의 기반’의 지원을 받아 운영받았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은 연세대 현장 기관인 하자센터와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주관했으며 ‘연금술사 일학교’는 하자센터와 (주)연금술사가 공동 주관하였다. 또한 기획 초기부터 줌마네, (주)오요리아시아, (유)별일사무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기획하며 진행해 나갔다.

기획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아닌 ‘진짜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긴장감 넘치고 결심이 필요한, 어른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십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은 미끄러져 나간다. 이로 인해 단절과 체념 상태에 빠지는가 하면 ‘텅 빈 시간’에 대한 목마름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연한 맴질노동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일자리 제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오늘을 충실히 보냄으로써 일할 맛이 나고,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일상 속 자신감을 쌓아올려 삶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로 질문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일에 대한 동기(마음)와 몸(습관)을 만들고, 일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어느새 그 일터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해야 했다. 질 좋은 일자리도 확보하고 현장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연금술사 일학교’의 모델은 그런 고민 속에서 틀이 잡혀 나갔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안전한 일자리와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참여 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교육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 초기 3개월 동안 학생들은 주 1회 ‘산책학교’에서 공부하고, 주 2회 ‘소풍가는 고양이’에서 일을 하면서 기초 직능교육을 받았다. 이후 4개월 동안 연계된 현장 일터로 파견해 심화 직능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받았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각 일터와 참여 청(소)년이 상호평가를 거쳐 고용을 결정했다.



기초과정

- 산책학교
- 기초직능교육

진입과정

- 심화직능교육
- 수습교육

수료

- 고용
- 진로설계

일정	단계	내용	실행주체 및 파트너
2월	기획 및 파트너십	기획 및 파트너 네트워크	(주)연금술사, (주)오요리아시아, 줌마네, (유)별일사무소, 하자센터
3~4월	모집	- 모집 및 홍보 - 상호면접	(유)별일사무소, 하자센터, (주)연금술사
5월	기초과정	- 오리엔테이션 - 산책학교(주 1회, 월요일) - 기초 직능교육(주 2회, 화~금)	(주)연금술사, 하자센터, 줌마네, 소풍가는 고양이
6월		- 산책학교(주 1회, 월요일) - 기초 직능교육(주 2회, 화~금)	줌마네, 소풍가는 고양이
7월		- 기초 직능교육(주 2회, 화~금) - 1차 기초 직능평가 및 개별 진로상담	줌마네, (주)연금술사
8~10월	진입과정	심화 직능교육(월~금 중 주 3회)	(주)연금술사, (주)오요리아시아
11월		수습교육(월~금 중 주 5회)	(주)연금술사, (주)오요리아시아
12월	결정	- 2차 기초 직능평가 - 수료식 - 고용결정	(주)연금술사, (주)오요리아시아, (유)별일사무소

성과

* 선배 청(소)년의 멘토 역할로 중도하차율 미미

연금술사 일학교 교육생들의 수료 비율은 86%로, 중도하차율은 14%에 불과했다. 중도하차율이 낮은 이유는 또래인 선배 청(소)년들이 롤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이 많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술사 일학교’는 선배 청(소)년이 후배 청(소)년을 이끌어줌으로써 ‘일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과 편견을 없애고, 일을 통한 희로애락을 경험하도록 현장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는 다른 인턴십이나 직업훈련 교육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한다. 생각해보는 훈련도 한다.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실 공간이나 주변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종종 세계에서도 몇 개 안되는 모래강 내성천을 찾거나 내성천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산어리일학교와 (자전거/목공) 공방협력교실을, 성미산학교와 평창의 농장학교 농활을 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더하여 영월의 강원도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진로/생태캠프를 진행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었다.

* 스스로, 또 함께 고용을 결정하다

수료 후 교육생들의 고용율은 6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수료했으나 취업하지 않은 3명의 교육생들도 ‘연금술사 일학교’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았다. 이에 따라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 친구는 오랜 단기 아르바이트 생활로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태였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소모품 취급을 당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금술사 일학교’에 지원했는데, 상반기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으나 과연 밥벌이가 될까가 큰 고민이었다는 그는 일단 중장비기사 자격증을 획득해 음악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생계수단을 마련했다. 다른 한 친구는 학교로 돌아가 원래 전공인 자동차 분야 취업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진로 이슈를 소개하다

한국사회에서 높은 학력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경우 일자리 선택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되며, 대부분 경험을 쌓지 못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만 전전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든다. 정부는 많은 지원정책을 만들었지만 대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다’ ‘일하기 싫어한다’ 등의 편견을 갖고 있어 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2014년 한 해 수 차례의 교육포럼,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12월 10일 교육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통해 자신들의 변화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중 두 참여자의 소감이다.

“‘연금술사 일학교’에서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너무 익숙해져버렸다. 이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만약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쓸쓸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끔찍하다.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연금술사 일학교를 다니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변한 것 같다. 특히 화를 참고 남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풍가는 고양이’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꾸기 위해 노력한 나 자신도 기특하게 느껴진다. 불규칙했던 생활 패턴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이 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도 좋아지고, 화도 잘 내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내는 성격 탓에 친구, 가족들과 매일 싸웠는데 이젠 모두하고 원만해졌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소풍가는 고양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성찰

교육 과정은 사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전일제인데다 현장 기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집이 어려워 결국 당초 목표했던 20명에 못 미치는 11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인 현재 청(소)년의 욕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의외의 현장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애초에는 고3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문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많은 문의를 받았다.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립기관인 하자센터를 통해 서울 및 경기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결과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나 실질적인 직업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씁쓸한 반증이기도 했다. 만약 학교 현장의 바람대로 2학년 재학생을 선발했다면 목표 인원 20명을 문제없이 넘겼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연금술사 일학교 기획팀은 이들이 남은 학교 생활을 유지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이후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재학생들은 선발하지 않았다.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오히려 대상층 중 하나로 봤던 시설 청(소)년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난제였다. ‘연금술사 일학교’에는 두 명의 시설 청(소)년이 지원했다. 한 명은 청(소)년 장기쉼터, 또 한 명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0세가 되어 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모두 2명 중도하차했다. 이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문제인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 문제를 ‘연금술사 일학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설 청(소)년의 진로설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이다. 이들은 최대한 빨리, 살아가갈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기를 기대한다. 이 때문에 긴 교육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단기적, 일시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성향이 크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한 현장에서 장기근속하며 직능 숙련도를 높이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빈곤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초기에 찾아온 두 명의 청(소)년도 마찬가지였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담당자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상의했으나 가장 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청(소)년은 결국 중도하차했다. 현재 한 명은 쉼터에서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머물 수 있게 해 주었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거 비용을 벌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친척 집에 기거하며 돌봄을 받고 있다.

전망

‘연금술사 일학교’는 ‘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모델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상황 및 일할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에만 집중하다보면 비용과 책임의 문제로 결국 소수 청(소)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 고용과 무한책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좀 더 확장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2014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장기적, 단기적 기획들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 우선 학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세울 계획이며 더불어 2014년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워크북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일선 취업 현장 등에 확산할 예정이다. 1년 남짓 짧은 기간에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장단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일학교 기획 및 진행을 통해 얻었던 가장 큰 소득이라 할 것이다.



more info

연금술사, 첫 만남의 스케치
<http://www.haja.net/?p=8962>

6개월 과정의 ‘일 배우는 학교’ <연금술사 일학교>의 일상
<http://www.haja.net/?p=9438>

소풍가는 고양이 새집으로 이사하다
<http://www.haja.net/?p=10500>

내 일(My Work)로 내일(Tomorrow)을 배우다, 삶의 기반으로서의 교육과 일이 만나는 ‘연금술사 일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e365company/220385998019>

글 | 박진숙(씩씩, (주)연금술사 대표)

영세프스쿨

개요

영세프스쿨은 청소년들의 요리를 통한 자립과 대안적 삶을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요리대안학교이다. 영세프들은 일과 교육이 통합된 학습현장 '영세프 밥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요리하는 몸을 만들고 태도를 익히며 기초를 다진다. 영세프스쿨의 교육 과정은 요리 전공수업뿐만 아니라 요리 인문학, 요리 감성학, 시즌학교, 인턴십 등 배움과 나눔을 담은 다양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사업 이름 : 청소년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
- 대상 : 17~22세 청소년
- 모집시기 : 매년 12월 말~다음해 1월 말
- 모집정원 : 10명(최대 12명)
- 학비 : 무료
- 학제 : 2년제(1년 2학기)
- 2015년 재학인원 : 1년차_ 기초과정 12명, 2년차_ 인턴과정 10명



단계	1년차 트레이닝	2년차 인턴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전일제 수업 - 매주 월요일~금요일, 9:00~18:00 - 시즌학교(제주) : 7월 초순(예정) - 방학 : 8월 중 - 수료식 : 12월 15일(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 슬로비 - 성북 슬로비 - 제주 슬로비 - 7PM, 샵메뉴 - Gourmet Box 외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수업, 요리인문학(경영, 회계, 위생, 환경수업) - 요리감성학(연극, 밴드, 몸 수업 등) - 푸드테라피, 미각수업, 도시농사, 멘토 특강 - 시즌학교, 팝업매점, 자치회의, 테스트마켓(달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업무 수행 - 인턴십 현장 기획 - 개별 미션 수행 및 학습 일지 작성
학생	12명	10명
	최현준 (개리), 오대걸(닝), 김상후(둘리) 정희라(라이), 한현정(라임), 서이현 (린) 윤민(민), 김지희(보킴), 이진석 (스윙스) 권준형(오즈), 김민정(크롱), 손성훈(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슬로비 김은솔, 김희진 - 제주슬로비 윤금정 - 카페슬로비 이명준 - 7PM 유준범 - 샵메뉴 김태우 - Gourmet box 김신우, 강인하 - 드림 메디컬 이용운 - 슬로비 사업팀 은승빈



성과

분류	2014
선발인원	12명
수료인원	12명(강인하, 김신우, 김은솔, 김태우, 김희진, 박선욱, 박태경, 유준범, 윤금정, 은승빈, 이명준, 이용운)
인턴/ 취업/기타	10명
	인턴 제주슬로비_윤금정, 성복슬로비 김은솔, 김희진 카페슬로비 이명준, 7PM 유준범, 샤페뉴 김태우, 드림메디컬 이용운 Gourmet box 김신우, 강인하, 슬로비사업팀 은승빈 기타(진학준비 및 개별진로 모색) 박선욱, 박태경
사업비	120,110,000원
후원 자부담	27,120,000 15,010,000
후원처	하자센터, 서울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중점 사항	요리인문학 요리를 통해 사람됨을 배우는 과정 중점 교육
교육 내용	요리인문학(경영, 환경, 도시농사, 절기음식) 요리감성학(마임수업, 밴드수업, 아트워크) 요리 실습 (밥집실습,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핑거푸드, 커피) 테스트마켓, 시즌학교, 배움 나눔 워크숍 등



전망

2014년 영세프스쿨은 1년차 학습과정, 2년차 인턴십, 그리고 중간의 시즌학교를 통해 배움과 나눔의 과정을 겪어보았다. 1년차 과정에서는 총 3단계의 학습단계를 밟아 나갔다. 1단계는 요리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으로서 자기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단계는 마을의 요리사, 돌봄의 요리사로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로서 자립의 길을 모색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2014년 입학한 5기 12명은 한 명도 그만 두지 않고 1년 과정을 수료해 더욱 보람있는 한해였다.

인턴십은 현장에 투입되어 배우는 실천 과정으로 취업 또는 취업 직전의 심화 코스다. 이때는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이 함께한다. 시즌학교는 일하고 배우면서 함께 생활하는 현장 기반의 1주일 단기 교육과정으로 1년차 과정 및 인턴십 과정 모두에서 참여 가능하다. 이 시즌학교의 경우 반응이 좋아 2015년에는 7월초 정도에 제주 슬로비를 기반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영세프 청년 레스토랑을 목표로 창업학교를 기획 중이다. 주요 멤버는 전문가 그룹 및 이미 1년 이상의 현장 트레이닝을 수료한 영세프스쿨 1기~5기이며 실제 창업을 위한 세부 계획 및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갈 생각이다.

more info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chef8

밥 짓고 농사 짓고... "요리로 세상을 배워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65989>

SBSCNBC, <착한 의자> 2014.6.25

영세프들의 제주 요리여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47252.html>

<한겨레신문> 2014.7.16

인문학과 요리의 만남, 맛있는 청소년대안학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169

<오마이뉴스> 2014.11.12

글 | 이선숙(보리, 영세프스쿨 담임교사)





마을생태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학습 생태계



허브 멤버십

■ 사업 이름 : 허브 멤버십

■ 대상 : '자공공'이라는 하자허브의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허브 공간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하자 내 활동에 참여하여 '마을주민'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는 개인 혹은 팀

■ 진행기간 : 2014년 1월~12월

■ 참가방법 : 인터넷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인터뷰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신관 허브

■ 총 사업비 : 83,400원

■ 총 참여인원 : 연인원 6600명

개요

시장의 영향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와 공적영역이 축소되면서, 공공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거나 높은 비용으로 유료화하는 추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허브 멤버십은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그룹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때 청소년 교육기관이기도 한 하자의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멤버십 주민들이 하자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및 다른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감수성을 키우고 나아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조(自助), 공조(公助), 공조(共助)의 원리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삶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창의적 공공지대'를 더 확장해 나간다.

기획의도

하자허브 주민들은 공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시/정기적 만남과 모임을 통해 자공공 원리 하의 다양한 담론과 실험을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들과 관계를 맺고, 자연스러운 협업의 문화를 익히도록 돕는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판돌 및 하자 내 청소년 간의 만남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기획을 했다.

* 손의 시간(Hands Hour) : 하자 내의 품이 드는 각종 생활생산과 돌봄작업을 함께 하는 시간을 제안하고, 허브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호혜적 관계맺음과 협력의 문화가 생기도록 했다.

* 허브주민 반상회 및 네트워킹 파티 : 매달 허브 멤버십을 중심으로, 허브주민들이 모여,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허브 안의 공방 커뮤니티, 학습모임 및 기타 워크숍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허브 멤버십 운영

구분	일정	내용
허브 멤버십 활동	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의 멤버십은 평일 허브의 1~3층 공유공간에 상주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 다른 주민과도 만나는 접점을 가져옴 - 2014년에는 마을기술센터 핸즈, 방물단, 소셜메이트 SOM, 엄마의 쉼표, 영등포 자생단 등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다양한 형태의 팀, 개인이 허브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 - 이외에 개별 관심사를 매개로 다른 주민과 관계맺고 활동해 나가는 여러 커뮤니티 모임 활동 (바느질 소모임, 메이커Maker 동아리, 종이접기, 플라워아트 등)
멤버십 공모	4월, 10월 (그 외 상시 오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허브 및 멤버십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연 2회 멤버십 공모 진행 - 공모 기간 외에도 상시로 신청을 오픈
네트워크 모임 (방들이, 반상회, 연말파티 등)	2월 14일 (방들이) 3월 7일, 5월 30일, 7월 4일, 7월 22일, 9월 12일(반상회) 12월 5일 (연말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네트워크 모임으로, 한 해의 문을 열며 새로 입주하게 된 팀들이 주체가 되어 꾸미고 초대하는 ‘방들이’, 한 해를 즐겁게 보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하는 연말파티, 그 외 격월로 진행되는 반상회 등이 있음

구분	일정	내용
손작업 워크숍	2014.1.1 ~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카페와 마을회관 활용 - 허브주민을 중심으로 외부 강사진을 초청해 진행됨 : 돌레인의 손뜨개질 및 수세미 만들기 워크숍 등 - 주로 청년작업자인 허브주민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비 유료 워크숍 : 소이캔들 (단미), 드로잉 (아라), 우쿠렐레와 기타 (훈민) 등 - 허브주민들이 진행한 무료 워크숍 및 동아리 모임 : 메이커 운동 (맹글고), 손바느질 (햇빛부엌, 바느질 손님과 미쓰리), 플라워아트, 종이접기 (지향), 지관공예 등 * 하자허브 공방 중심의 워크숍 - 살리고 살리고 (목공방) - 36.5℃ (휴공방) * 신관 중정, 뒤뜰, 4층 허브정원 활용 - 허브팀이 자체적으로 기획, 실행한 농사 및 식물 키우기 워크숍 : 허브미니농원 프로젝트, 허브 나선정원 만들기
열린학습모임	2014.1.1 ~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열린학습모임 (매주 수요일) 상반기 주제 :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반기 주제 : 회복력(리질리언스)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집담회 및 오픈포럼 (2회) 상반기 주제 : 기본소득 하반기 주제 : 회복적 사고

성과

허브의 '손의 시간'이라는 주제 아래 마련된 다양한 자리를 통해, 멤버십들이 서로 만나고 엮이며 하자마을의 정신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었다. 일례로 목공방에서 진행된 '살리고 살리고'는 리사이클, 협동적 자율-공공노동에 참여하면서 목공 자급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단골'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강사로 참여하는 하자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재능나눔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청년 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실비 기준의 유료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급정신을 공유하고, 동시에 적절한 수입을 올리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열린 학습모임에서는 하자허브의 주민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작업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매주 진행된 이 학습모임의 내용과 연계해 상반기 기본소득 집담회, 하반기 회복력(리질리언스) 오픈 포럼 등 두 번의 외부 연계 행사를 열어 외부 그룹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의미 있었다. 회복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팀인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과 진행한 하반기 포럼은 특히 하자센터의 사례를 회복적 사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와 학습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성찰

허브를 일터로 활용하면서 멤버십의 일이 하자의 일과 만나는 접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멤버십이 직접 제안 혹은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가는 '파트너' 관계보다는 이미 짜인 틀에 참여하는 식의 협업이 많았다. 한편, 하자의 일과 만나는 접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 사이의 협력과 협업의 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 주민 간의 더 자연스러운 협업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브에 머무는 주민들 가운데 중심점이 될 만한 자발적 코어그룹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멤버십 각자의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핸드 아워 등 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공공의 가치를 체득하게 할 것인지, 단순히 '일'로써 만나는 것을 넘어 호혜적 관계맺음과 살림경제의 실험을 편안하게 느끼고 실천하도록 하는 장치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 단위의 워크숍이 커뮤니티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례 발굴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긴 호흡으로 자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 워크숍과 기타 활동을 기획할 핵심 주민을 찾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 생활기술의 학습이 관계의 빈곤을 해소하고 자급도가 높은 삶의 사례 개발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다른 생애기획을 할 수 있는 참조 지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망

하자허브에서 마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원인 멤버십을 둔다고 했을 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의 질문을 하면서 허브의 장기 비전에 따라 그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공간을 채울 허브 멤버십과 하자 전체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 해 동안 3층에 ‘입주’하여 일을 해나가기로 했던 팀들 가운데에서 개별 사업 진행 미비, 외근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워 허브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3층 입주공간의 운영원리를 전면 공유 공간으로 변경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사회 혁신가를 위한 지원공간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 자리를 점유하는 ‘입주’의 형태로 협업해야 하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자신의 사업과 일을 넘어 함께 살기와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co-working space’에서 ‘co-living space’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손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여러 워크숍과 학습의 장이 몸의 감각을 깨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연습의 장으로서 지속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ja.hub
 하자허브 스케치 <http://jagongong.net/category/hub/>

허브 네트워크 조성

- 사업 이름 : 허브 네트워크 조성
- 대상 : 연계 사회적기업, 멤버십 등 하자마을 주민 및 지역, 사회적경제 그룹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 참가방법 : 현장 참여
- 참가비 여부 : 없음, 음료 및 간식 품앗이(허브카페)
- 장소 : 신관 1층 허브카페, 2층 허브 갤러리
- 총 사업비 : 4,809,500원
- 총 참여인원 : 카페(10,079명, 연인원) 갤러리(연인원 2,060명)



허브 커뮤니티카페

개요

신관 1층 허브카페를 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생활생산, 노머니경제 등 허브의 운영원리가 기반이 되는 공간이자 커뮤니티를 조성하였다. 돈을 내고 음료와 간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허브의 주민들이 적절한 주기 별로 차, 커피원두, 간식 등을 가지고 와 나눔으로써 모두가 공공에 기여하는 경험을 공유했다.

진행

초기에는 판들이 직접 운영하다가 3월부터 파트타임 카페지기를 고용하여 공간을 더욱 본격적으로 활성화했고, 매일 오후 간단한 티푸드가 준비된 ‘허브 티타임’에 모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허브 티타임’에 하자 주민들이 모여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휴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동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카페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하자주민 및 멤버십 팀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도 지원했다. 청소년, 여성을 위한 공연기획 단체인 세일링 드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커피 관련 팀들이 모인 액츠29 등이 카페 공간을 정기적으로 활용했다.



성과 & 전망

2014년 한 해 허브카페 운영은 카페지기를 통해 공간의 활기를 유지하고, 하자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 티타임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카페지기의 경우, 돈을 적게 벌면서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일의 형태를 실험할 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비용(인턴임금)을 수반하기 때문에 하자허브의 주 대상층이나 운영 방향에 따라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난제가 있다.

거의 매일 늦은 오후에 진행된 티타임은 1, 2층이 중정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허브공간의 특성상 구성원 및 방문자들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특히 하자마을 주민의 카페 이용은 셀프서비스 및 무상의 원리로 운영하였고, 대신 필요한 재료(커피 원두, 간식, 차) 등을 자발적으로 가져오도록 해 나눔부엌과 함께 물물교환의 노머니 경제를 실험해 보았다. 결과적으로는 허브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카페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티푸드를 만들고 나누면서 서로 안면을 익히고 대화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워크숍, 학습 등 공동의 활동이나 협업 등으로 진화하지는 못했다.

아기 엄마들의 책임기 모임 '작은 나무'를 중심으로 엄마들이 매주 1회 부엌에서 유아식을 만들며 교류하기도 했으나, 육아 문제 등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엌이 커뮤니티 활동의 매개가 되도록 오픈해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좀더 세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 해 허브카페를 통해 본관과 신관으로 나뉘어 근무하는 하자센터 판돌, 사회적기업, 허브 멤버십 등 하자의 모든 주민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한번씩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킹이 일어나게 된다. 서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나 전망을 공유하며 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좋은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브갤러리

개요

시관 2층의 갤러리 공간에 공공성을 갖춘 전시를 대관료 없이 수용함으로써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하자위 허브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공적 메시지를 전달해 보았다. 또한 창의서밋, '플랜-B(Plan-B)' 등 하자위 허브와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및 작업의 결과물을 전시해 하자위 허브의 회고를 이끌어 냈다.

진행

2012년 7월부터 전시를 이어온 허브갤러리는 상시 공모를 통한 비정기 전시를 통해 다양한 이웃 그룹들을 만나왔다. 그 통로는 꾸준히 연계해온 하자마을 주민들의 전시(삼별 / wood working 展, 손은정 / 선물공장 프로젝트), 창의캠프 등 다른 하자사업과의 연계(동네형들 / 청년열기) 등 다양했다. 이들과의 전시를 통해 허브갤러리는 하자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주요 전시

1.5 ~ 1.29	빈진향 <그곳에 사람이 산다> 전
5.13 ~ 6.13	보리출판사 <원자력발전소를 멈춰라> 전
8.8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쇼하자 결과물 전시
8.23 ~ 8.24	손은정 <선물공장 프로젝트> 사진전
8.26 ~ 9.4	동네형들 <청년열기> 전
9.26 ~ 10.3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부대행사 <드로잉프레스> 진행 및 결과물 전시
11.29 ~ 12.12	삼별 외 <Wood Working> 전



성과 & 전망

일련의 전시를 통해 허브갤러리는 하자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계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처음 전시를 시작한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기획전 또는 초대전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어 아쉬웠다. 하자의 내외부 사업을 다른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앞으로도 커뮤니티 갤러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외부 전시를 균형감 있게 안배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인 및 팀이 유입되는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자공공넷 허브스케치 <http://jagongong.net/category/hub/hub-hands/>

글 | 변세경(나무, 기획2팀)

나눔부엌

- 사업 이름 : 나눔부엌
- 대상 : 하자센터의 가치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왕래하는 다양한 개인 및 커뮤니티
- 진행기간 : 2014년 1월 8일~12월 10일
- 참가방법 : 즉석 참여
- 참가비 여부 : 없음 (참여자들이 반찬, 후식, 식재료 등을 가져옴)
- 장소 : 신관 1층 허브카페
- 총 사업비 : 3,358,220원
- 총 참여인원 : 2,761명(연인원)

개요

나눔부엌은 ‘마을’의 다양한 성원, 다양한 세대가 나눔과 돌봄, 현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을 구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독신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매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집밥’이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로운 개인들이 홀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거리’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나눔부엌을 설정해 보았다. ‘창의적 공공지대’의 성격을 갖는 하자허브(신관)의 카페, 주방 공간을 활용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만남의 장으로 기획, 진행했다.

2014년 나눔부엌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 정기 수요 나눔부엌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나눔부엌’ 담당자를 중심으로 주로 허브를 맡고 있는 판돌을 비롯해 하자센터 전체 판돌, ‘주민’으로 불리는 멤버십들이 직접 조리한 밥과 2~3가지 기본 찬, 국 등을 매회 제공했다.

나눔부엌 참가자들은 반찬 한 가지, 혹은 후식 등을 들고 와서 나눔부엌 팀이 제공한 밥과 찬,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가져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식사했다.

나눔부엌 메뉴는 복날 닭백숙 등 절기에 맞춰 제공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하자의 적정기술 프로젝트 결과물인 장작 화덕 등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생채, 적정기술, DIY(DoItYourself), 자급문화 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참가자는 하자의 판돌들 외에 하자센터 내의 사회적기업, 하자허브 멤버십 팀, 하자와 연계된 다양한 커뮤니티, 하자 성원들의 초대를 받아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회 평균 40~50명의 인원이 나눔부엌에 참가하였다.

* 이벤트 나눔부엌

나눔부엌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자마을에 행사가 열려 많은 내외부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는 경우 자연스럽게 연계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마을의례 및 행사로는 입춘식, 2014년 창의서밋, 하자마을 김장파티, 하자센터 생일파티 등이 있었다. 보통 발표, 공연 등이 함께 준비되고, 잔치 음식이 제공되는 가운데 100~200여 명이 참가하는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 반찬 만들기 모임

주로 토요일을 이용해, 반찬을 만들 줄 몰라 식재료를 그냥 버리게 되는 독신 청년들이 참여해 반찬을 함께 만들어 식사하고 나눠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 오게 하자는 취지였다. 한 해 5~6회 정도 진행되었다.

* 도시락 카페

판들과 멤버십들이 점심시간에 각자 싸운 도시락을 함께 어울려 먹는 것으로 시작해 쌀을 돌아가면서 구입해 직접 밥을 짓고, 반찬 한 가지씩 갖고 와서 나눠 먹는 ‘밥계’의 형태로 발전했다. 매일 소규모의 나눔부엌이 진행된 셈이다. 함께 먹는 시간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어려웠던 이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성과

수요 정기 나눔부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하자센터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첫 초대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거의 매일 모여 점심을 함께 먹는 도시락 카페는 질 좋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이점 외에도 내부 성원들이 ‘식구’로서의 연대감을 갖게 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컸다. 또한 각종 마을행사와 함께하는 이벤트 나눔부엌도 하자 ‘마을잔치’의 일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매회 40~50여 명의 참여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진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전망

마을의 ‘부엌’은 단순히 먹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는 과정을 통해 연대, 환대, 나눔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활동을 함께 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살이 구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목적 아래 2014년 1월부터 하자허브에서는 나눔부엌에서 함께 식사한 후 자연스럽게 학습과 실천 단계로 이어지도록, 학습모임과 ‘손쓰는 수(手)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다. 학습모임 시즌1에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즌2에서는 사회생태학적 맥락의 회복력(Resilience)과 창의적 공공지대(Creative Commons) 두 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각종 ‘소소한 생활기술’ 워크숍을 비롯해 같은 신관에 위치해 있는 목공방, 흙공방, 자전거공방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고, 수요나눔부엌 외에도 반찬 만들기 워크숍 등 음식/요리 관련 다양한 모임을 토요일에 진행했다. 앞으로도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more info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하자허브 수요스케치 <http://jagongong.net/category/hub/hub-hands/>



하자허브

자공공(自助, 共助, 公助)의 실현 :
창의적 공공지대
(Creative Commons)



자공공 아카데미 3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 사업 이름 : 자공공 아카데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
- 대상 : 시대를 함께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탐구하려는 이들
- 진행기간 : 2014년 9월 17일(수), 24일(수), 10월 8일(수), 29일(수), 11월 12일(수) 오후 5시~저녁 8시
- 참가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 총 사업비 : 2,911,800원
- 총 참여인원 : 177명(연인원)

개요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함께 돌보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허브의 운영원리인 ‘자공공(自共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온 ‘근대’ 문명을 성찰하는 프로젝트. ‘공간과 사회 큐레이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1기를 시작으로 2기에는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을 나누며 시대를 이끌어갈 기본 개념과 가치를 익히고 다져 보았다. 2014년 하반기에 출발한 3기는 재난 이후의 사회라 불리는 후기/탈근대를 파악하고 낙관적인 전망과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나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공공 아카데미 3기는 자기 삶의 등불을 갖고, 함께 등불을 들고 살아갈 준거집단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세계를 구하는 프로젝트를 하자 주민 및 친구들과 함께 기획해 보는 경험을 가져 보았다.

기획

2008년 월가파동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나/우리는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시점을 바꾸만은 국왕이 죽고 아직 새 왕이 들어서지 않은 ‘인터레그넘(interregnum)’ 상황, 울리히 벡은 ‘탈바꿈’의 시간대로 본다. 제도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가 중첩된 위험사회(risksociety),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로와 생애를 기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위험사회, 경제위기(특히 동아시아) 이후의 사회, 재난 이후 사회라 불리는 후기/탈근대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인식론적 전망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했다. 동시에 기본적인 일머리와 관계 맺기, 긴 호흡 등 표류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획 능력을 키워보고자 했다. 특히, ‘공공재(the commons)’의 회복, 장인, 협동, 그린 job, 도시에 주목하면서 준거 집단과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비롯해 관찰을 통한 학습과 공감능력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해내는 ‘일머리’를 키우는 경험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1강(9월 17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위기와 기회의 경계에서'

세계 곳곳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점,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이 새로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강연자 | 김정후(런던대 UCL 지리학과 박사)

장소 | 본관 마을서당 103

참여인원 | 49명

2강(9월 24일) '4.16 세월호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재난과 치유사회에 대하여'

꿈과 신화 연구자에게서 무의식 세계가 보여주는 재난의 경고와 의미를 듣고, 세월호 유족들의 자기 치유 방식에 대해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급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무력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 보았다.

강연자 | 고혜경(신화와 꿈 아카데미 원장)

이현정(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장소 | 신관 203호

참여인원 | 42명

3강(10월 8일) '청년 세대의 가치지향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과 사유에 대하여'

중국의 개방개혁 이후,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 삶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인류학자의 강연을 듣고 난 뒤 한국의 청년 담론 및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강연자 | 조문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장소 | 신관 203호

참여인원 | 37명



4강(10월 29일)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녹색 일자리'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코산업의 전 지구적인 확산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녹색 일자리 관련 제도들을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상상과 확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연자 | 이태동(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소 | 신관 203호

참여인원 | 25명

5강(11월 12일) '지속가능한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마음'

교실 붕괴 등 입시 위주 교육이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들을 학교가 모두 안고 가기 보다는 부모와 이웃이 있는 마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향을 상상하고 의논하는 자리

강연자 | 황윤옥(서울시 교육청 참여소통기획관)

장소 | 신관 203호

참여인원 | 24명

진행

'도시재생' '재난과 치유사회' '청년세대의 가치지향성' '녹색 일자리' '지속가능한 교육' 등과 같은 주제를 선정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살펴보고, 위험사회, 재난사회 이후를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느끼고 사유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3시간 동안 일방향 강의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몇 개조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체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 역시 존중과 공감능력을 발휘해 경청한 뒤 생산적으로 참조하고 일머리를 키우는 조별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준거집단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다.



참여자 코멘트

“하자에서 자공공 아카데미를 듣는 우리는 어떤 일을 기획해 볼 수 있을까? 나는 대학생들이 하자의 주민으로서 함께 할 만한 일을 능동적으로 기획해보면 어떨까 한다. 사실 진로 선택보다 더 문제인 것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듯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시기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도전적이라고 여겨지는 대학생들이 하자에서 판을 꾸리기 시작한다면, 대안학교 청소년과 공교육 청소년 등도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일으킨다면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성찰

2기에 이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3기를 진행했다. 시대적 과제를 두루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각 강좌별로 연계 지점이 크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광범위하게 현 사회를 성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에 계속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전망

인문학은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깨면서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협동이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의논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만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대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고민을 풀어갈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

자공공 아카데미는 이 시대를 성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존경, 그리고 공통의 감각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준거집단, 창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신의 삶과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아카데미 과정이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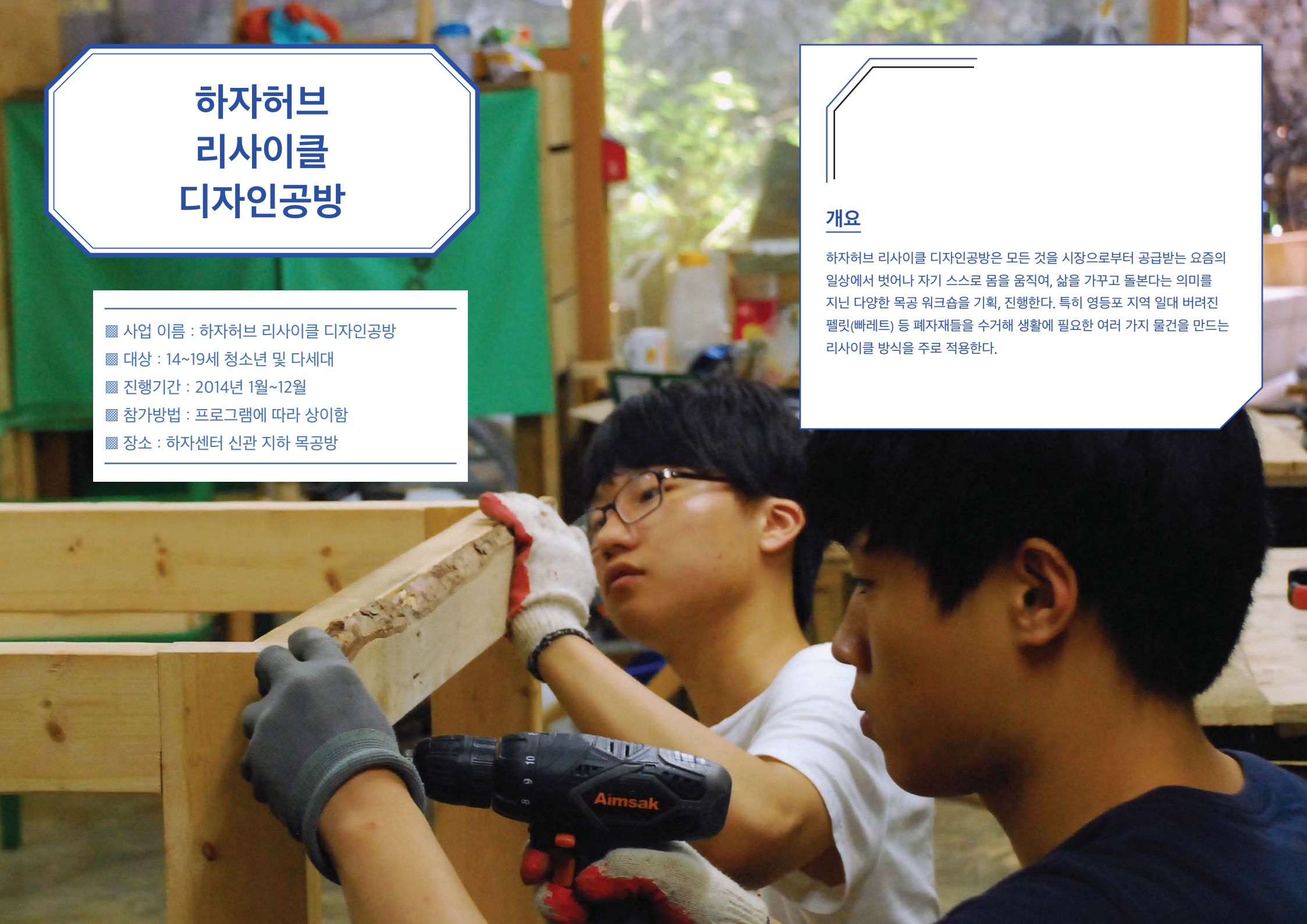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

- 사업 이름 :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
- 대상 : 14~19세 청소년 및 다세대
- 진행기간 : 2014년 1월~12월
- 참가방법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지하 목공방

개요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은 모든 것을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요즘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삶을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를 지닌 다양한 목공 워크숍을 기획, 진행한다.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 버려진 펠릿(빠레트) 등 폐자재들을 수거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리사이클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기획,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하자작업장학교, 산어린이학교가 함께한 협력학교 실과교실과 공교육 청소년 대상의 전환학년 파일럿 프로그램 ‘플랜-B(Plan-B)’가 있었다. 매주 수, 금 진행되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에서도 ‘목공하자’를 진행했다. 일일직업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목공방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생활도구를 다루는 태도를 익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만든다든가 모두가 함께 작은 집을 짓거나 공공공간에 필요한 그늘막을 제작,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명	부제	일시	프로그램 내용
협력학교 실과교실	천천히 정확하게 깨끗하게	3월~12월 매주 화·목	생활 도구를 차분하게 다루는 훈련을 통해 몰입하는 경험을 태도로 익혀본다
일일직업체험	목공하자	3월~12월 매주 수·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목공방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업해 보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플랜-B (Plan-B)	매체 오가기	상반기	휴과 나무라는 매체를 동시에 다루면서,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에 필요한 것을 협업으로 만들어 사회에 기증하는 경험을 한다
청년작업자 양성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방	10월~12월	여러 명의 청년 작업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방으로 시범 운영해본다

성과

“이번 학기에 정교한 손작업을 많이 하는데, 손이 아무지지 못한 나로서는 너무 어렵다.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법도 배우는데, 무척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연

“자율목공 시간에 보드 데크를 만들어 보았는데, 집에 와서 보드 트럭 길이를 재보고서야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들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연

“아버지 생신선물을 만들어 드렸다. 대나무와 작은 나뭇가지들로 만든 솟대 두 개와 대나무 받침대를 붙여서 명함이나 사진을 꽂을 수 있게 만든 이름하여 ‘솟대 사진꽂이’다. 엄선한 재료들만 모아 나무껍질을 벗기고 사포질도 정말 열심히 했다. 손톱 밑의 살이 벗겨져 말라 비틀어져 버릴 정도였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해 주셔서 보람이 느껴졌다.”

슬비

협력학교 실과교실 참여 청소년들의 리뷰를 보면 이들이 몸을 쓰고 공구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목공이라는 생활기술을 통해 도구를 다루면서 몰입을 배우고, 폐목재를 이용해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경험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늘 시장을 통해서만 물건을 구매하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써가며 ‘생산’해보는 것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수업에서 적용된 ‘천천히 정확하게 깨끗하게’라는 연습방식은 참여 청소년들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나아가 일상생활의 행동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진행된 플랜-B(Plan-B) 역시 참여 청소년들이 나무라는 매체를 통해 집중과 몰입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망

하자의 목공방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결과에만 집중하거나 생활기술을 목공에 한정하지 않고, 손과 몸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오고가는 공방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공방의 운영방식을 작업자 여러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 작업자, 공방 워크숍을 다양하게 구성해 보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의 협동과 개별 몰입의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이용 연령대를 좀 더 다채롭게 해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more info

10년 뒤 20년 뒤까지 천천히 [기획2]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선택한 목수, 내가 할 수 있는 목공을 하는 목수, 살아갈 자신감을 얻는 목수... 도시의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는 목수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75.html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27

글 | 조유나(가비, 기획1팀)



무한나눔사이클 자전거공방

- 사업 이름 : 자전거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대상 : 14~19세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월~12월
- 참가방법 : 전화 / 이메일 신청
- 참가비 여부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지하 1층 및 외부
- 총 사업비 | 2,999,640원
- 총 참여인원 | 924명

개요

하자센터 무.나.사 자전거 공방은 지난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창의적 동력의 자전거공방 문화 만들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자전거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서 학교 안팎의 전환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인간 동력에 의한 에너지 생성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생활생산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가, 자원활동가 등과 연계해 자전거를 매개로 한 진로직업, 생태, 지역연계 체험 및 마을에서의 자전거 공방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

기획의도

2012~2013년은 다양한 대상과 청소년 자전거교실(단기 프로젝트, 일일직업체험, 삶디자인 학교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이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2014년에는 대상의 폭을 줄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꾸준히 함께하기 위해 하자작업장학교를 비롯한 두 개 대안학교 중등과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협력학교 실과교실’을 진행했으며 공교육 고등학교 두 곳과 협력한 장기 프로젝트인 ‘플랜 B’에도 참여하였다. 대안교통수단으로서의 탈거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기(리사이클링), 인간 동력으로서의 몸 발견하기, 생태와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생활기술로서의 자전거 정비기술 워크숍 등을 참여 청소년들의 관심과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 명		부제	일시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 자전거 교실	협력학교 실과교실	상반기 리사이클링 자전거 만들기	3.11 ~ 12.17	산어린이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 청소년들과 폐자전거를 활용한 탈거리를 직접 만들면서 버려진 자원을 선순환하는 일의 가치, 자전거의 구조와 이동 등에 대해 이해해본다.
		하반기 자전거 타기 생활화 홍보 영상제작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장점에 대해 알린다.
	플랜 B	상반기 리사이클링 자전거 만들기 및 자전거 여행	5.12 ~ 10.31	폐자전거를 활용하여 탈거리를 직접 만들면서 버려진 자원의 선순환의 가치와 자전거의 구조와 이동에 대해 이해해본다. 속초로의 자전거 여행을 떠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진다.
		하반기 자전거로 통학하기 및 자전거여행		자전거로 통학하는 연습을 통해 일상에서 대안교통수단 활용의 습관을 기른다. 꾸준히 자전거 통학을 해서 길러진 체력을 기반으로 가평 자전거 여행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성장했음을 느껴본다.
	일일직업체험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 바퀴 업사이클링	3. 28 / 4.4	버려진 자전거에 관심과 정성이 들어간 기술을 접목 할 때 또 다른 가치를 지닌 생활생산이 가능해짐을 경험해본다.
	커뮤니티 확산 사업	심란한 공방	세대 간의 소통창구	1.1 ~ 12.31

성과

2014년은 최소 1년~2년(협력학교 실과교실 2년, 플랜B 1년) 동안 매주 1~2회씩 청소년들과 호흡을 함께 맞췄기 때문에 여러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단순히 레저가 아닌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내 몸을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손작업을 통한 생활기술에 대한 사고 전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서로 다르지만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 등이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같은 자전거라도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용한 것도 성과이다. 청소년들은 내 안의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하며 신나게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타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버려진 자전거를 정성어린 기술과 협동으로 다시 탈릴 수 있게 만드는 리사이클링 작업, 자전거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영상 작업,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전거 생활화를 실천하는 자전거 통학 등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말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자 했던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코멘트

협력학교 실과교실의 청소년들은 2년 동안의 자전거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일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이자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를 압축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이 한결 더 튼튼해진 느낌이다.” “4번 정도 자전거 통학에 도전했는데, 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자전거를 통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신선했다.” “버려진 자전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직접 리사이클링한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릴 때 너무 뿌듯했다.” “이제 자가 정비를 웬만큼 할 수 있어서 펍크가 나도 두렵지 않다.”

플랜 B에 참여한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꾸준히 자전거 타기 연습을 통해 학교에서 하자센터까지 25km가 넘는 거리를 자연스럽게 통학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신기하다.” “100kg이나 나가는 몸으로 남산 오르막길 앞에 섰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상에 도착하니 너무 힘들지만 가슴이 벅찼다.” “가평 자전거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자전거를 타고 7분도 가기 힘들었던 내가 7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와 동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다.” 등의 소감이 나왔다.



성찰

삶의 전환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자전거공방은 지난 3년간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고루 적용하는 장기 프로그램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프로그램 외의 상황들이 아직까지 여의치 않다. 일단 도로 환경이 위험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도 부족하며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도 초기 수준이다. 또한 자전거 통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등이 적절한 배려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자전거 구입 비용 및 도난 문제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전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전거란 매체가 청소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레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자 안의 자전거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등과 연계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확산해보고 싶다는 바람이다.

more info

플랜 B 가평 자전거 여행 영상
http://youtu.be/p_zNtz99ujQ

글 | 박정규(미라클, 기획1팀)



흙공방

- 사업 이름 : 흙공방
-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2014년 12월
- 참가방법 | 프로젝트별 모집
- 참가비 여부 | 무료
- 장소 | 하자센터 신관 101호 흙공방
- 총 사업비 | 2,203,920원
- 총 참여인원 | 총 1,655명(연인원)

개요

흙공방은 도시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흙의 에너지와 순환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와 배움이 이뤄지는 시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점토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맨발과 손으로 흙을 느낄 수 있는 놀이 공간 등으로 구성된 흙공방은 2014년 1월부터 하자마을 주민들과 판돌들이 직접 손을 보태어 공공의 자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흙공방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대안학교 중등 청소년 대상의 협력학교 실과교실, 공교육 고등 청소년 대상의 기운전환캠프와 플랜-B, 지역주민 대상의 흙워크숍, 어린이를 위한 흙놀이터 등이 진행되었으며 하자마을 기념품 제작과 허브 정원 타일 벽화 등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함께 제작하는 커뮤니티 활동들도 이루어졌다.

기획

생태와 삶의 근원인 흙의 매체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손작업을 함으로써 지식과 지혜, 이성과 감성, 머리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배움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흙을 만지면서 생태적인 작업에 친근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정화력(淨化/카타르시스)을 생성하고, 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행위와 작업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타인과 소통하는 공감능력, 회복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대안학교 중등 청소년 대상의 협력학교 실과교실, 공교육 고등 청소년 대상의 플랜-B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이 친구들과 협력해 공공의 자원을 살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터를 정성껏 가꾸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형태의 흙작업을 놀이와 연결시킨 어린이 대상의 흙놀이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마을공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다.

프로그램 명	일시	대상	연인원	프로그램 내용
공방조성 워크숍	1월~2월	청소년 / 성인	40명	흙공방 공간 조성을 위한 손작업 워크숍 및 공간 세팅
오픈 파티	3월 29일	아동 / 청소년 / 성인	150명	흙공방 오픈을 알리는 행사로 하자 내외부 손님을 초대하여 공방 안내와 워크숍, 공연 등을 선보임
기운전환캠프	4월 15일~17일	청소년 (대원고등학교/ 태릉고등학교)	30명	공교육 청소년 대상의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공방형 워크숍 진행
플랜-B	1학기 : 5월~6월 2학기 : 9월~10월	청소년 (대원고등학교/ 태릉고등학교)	368명	공교육 고등학생 대상의 전환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공방별 손작업 워크숍과 공방의 일상을 체험하는 전일 프로그램
흙공방 주민 워크숍	4월~6월	아동 / 성인	70명	하자허브 '손쓰는 수요일'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대상 (어린이 및 성인)의 공방 워크숍 진행
달시장 흙공방 체험	6월~10월	아동	750명	마을장터 달시장을 찾는 지역 주민 중 어린이 대상의 흙공방 놀이터 및 물레 체험 워크숍 진행
흙건축 특강	9월 3일	청소년	15명	한국흙건축연구소 김순응 대표 초대 특강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 타일벽화 워크숍	9월 26일	아동 / 청소년 / 성인	150명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기간 진행된 서밋 참여자 대상의 워크숍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
협력학교 실과교실	9월~12월	청소년	126명	협력학교(하자작업장학교/산어린이학교) 중등과정 실과교실의 일환으로 흙작업 워크숍

2014년 휴공방은 실과교실과 플랜-B 등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워크숍과 휴놀이터 등 대중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었다. 개별 프로그램들 역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목표, 진행방식, 회차 등이 맞춤 운영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 수업이 아닌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 주중 1~2회 등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참여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상의 활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리뷰를 통해 단계별로 손작업을 하면서 작은 성취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존감 형성에 자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휴작업의 에너지가 이들의 정서적 상처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요소는 청소년이 단순히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을 넘어 작업하는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해 두루 애정과 돌봄의 마음을 갖는 바탕이 되었다.

휴놀이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하자 인근 지역의 어린이, 부모 등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달시장을 연계해 더욱 배가되었다. 특히 도시 속에서 마음껏 만나지 못했던 흙을 매개로 한 놀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휴공방에 놀러 오는 단골 어린이 그룹이 생겨났을 정도였다.

참여자 코멘트

* 협력학교 실과교실 참가 중등 청소년 리뷰

처음 휴공방에서 흙을 밟았을 때가 기억난다. 예전에는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와서 그릇도 원래는 흙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서영

흙이 네 종류 있었는데, 색이 다르고 질감이 다른 게 신기했다. 그만큼 새로웠고 꼬막 밀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뭘 만들지 구상하고 만들면 망하는 게 별로 없고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매력 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 쓰지 않고 손으로 다 만드니까 그 점이 좋았다. 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마에 넣을 때도 공간 감각이 있어야 최대한 많은 작품을 구워낼 수 있으니까. 물레를 칠 때도 손으로 잘 느끼면서 감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여

생각하지 않고 했다. 흙을 만지면 힐링이 되는 것 같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짧아서 아쉽다.

핀

내가 원래 정리를 잘 못하는데 흙공방에서는 정리를 잘 한 것 같아 좋다.

윤오

*** 공교육 고등 청소년 대상의 플랜비 리뷰**

-요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흙공방에서 하루 동안 있으면서 없어진 기분이다.

물한컵

-정원 꾸미기 계획을 세우고 스케치를 했는데 재미있었다. 이제 실천할 것을 생각하니 설렌다.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재미있다. 멀지만 않다면 학교 대신 다니고 싶다.

혜림

-옥상에서 땀흘리면서 작업하다가 노래도 틀고 시원한 것도 마시니까 더 재미있었다. 많이 힘들고 손도 다쳤지만 다 만들고 보니 너무 예뻐서 보람있고 뿌듯했다. 다시 해도 좋을 것 같다.

지현

성찰

공방의 손작업은 일회적인 체험이나 워크숍보다는 지속적으로 만나 일상의 일부로 자리할 때 더 효과적이고 의미도 깊다. 실과교실이나 플랜-B는 매주 만나 서로의 작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같이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등 일상을 함께하면서 효과가 커졌지만 흙놀이터와 지역주민 워크숍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일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공방작업의 단계별 특성을 [호기심과 흥미->관찰과 이해->몰입과 집중->반복과 훈련->구상과 표현->적용과 나눔]이라고 요약하자면 흙공방 체험은 몰입과 집중에서 끝나 활동의 강렬한 인상만 남을 뿐 일상의 변화로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덧붙여 기존 문화센터 등과는 달리 공공의 작업을 하면서 주변을 가꾼다는 지역주민 워크숍의 기본 운영 원리는 시간을 갖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았다.



전망

흙공방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움과 놀이는 대상자와 작업자의 호흡이 중요하며 시간 운영도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상호 소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충만감을 느끼고 몸을 직접 쓰는 과정에서 공감능력과 회복력을 키워간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이라면 잠시나마 고민과 스트레스를 뒤로 하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주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이 일상에 자리잡는다면 자신과 타인, 일과 삶,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방과 후 학원 스케줄에 쫓기고 방에서 혼자 놀기만 했던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흙을 밟고 다니며 생동감을 찾아갈 것이다. 자녀와 대화가 없어 고민했던 학부모들은 흙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틀지도 모른다. 흙공방은 위와 같은 모습들이 실현되는 공방이 되고자 2014년 한 해 다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 실험들을 바탕으로 2015년 마을공방으로서의 진화를 준비중이다. 물론 흙공방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놀이는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당사자에게 체화되어서야 그 효과가 드러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흙에 빠질 수 있다면, 삶을 꾸려가는 힘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조유나(가비, 공방팀)



**마을 네트워크
&
파트너십**

**사회적 공유와 확산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하자마을의례

개요

하자센터에서는 예년부터 성년식, 달맞이 축제 등 몇몇 의례들을 하자작업장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입춘식 등 몇 가지 의례들이 추가되면서, 돌봄과 환대라는 하자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절기와 마을 내 일정에 맞춘 의례들을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자마을의례는 마음을 모으는 형식이자 과정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자마을 주민으로서의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2014년의 마을의례는 하자 15주년을 맞이하여 3월 입춘식에서 12월 하자생일파티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 간 하자마을을 이루어 낸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 사업 이름 : 하자마을의례
- 대 상 :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 하자마을 주민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 소 : 하자센터 외
- 총 사업비 : 10,289,240원
- 총 참여인원 : 1,220명 (실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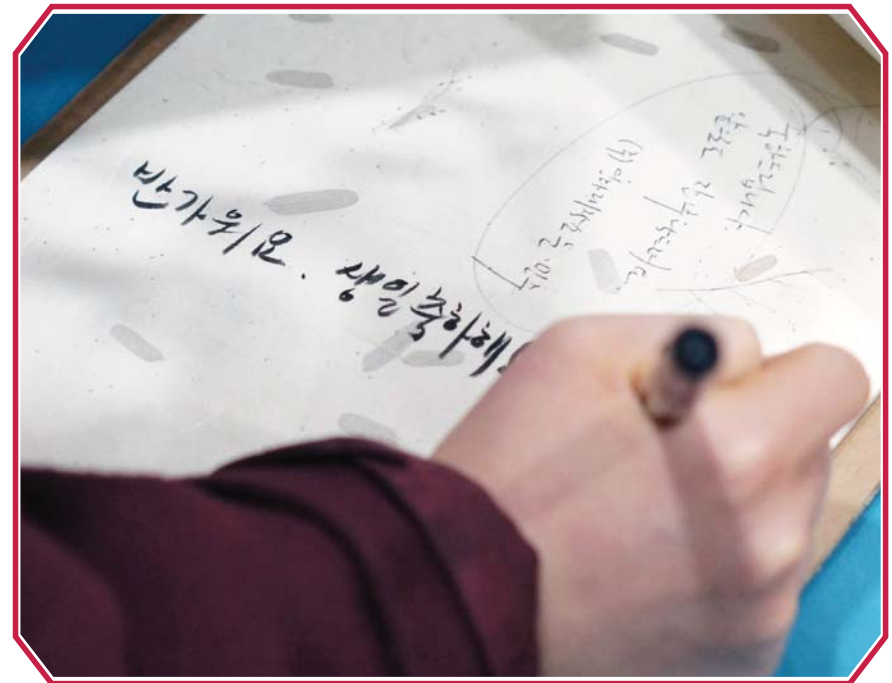
날짜	의례명	내용
3월 29일	하자마을 입춘식 '마을의 씨앗'	하자 네트워크학교 학생들과 판돌들, 사회적기업 및 허브 멤버를 비롯하여 하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웃하여 활동하고 있는 하자마을 주민들이 참여함. 한해살이 계획을 나누며,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하자마을 주민들 간의 상견례 자리
4월 15일	하자마을 시농 '청명한 흙'	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작년에 갈무리 해 둔 씨앗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과 여흥을 나누는 잔치. 하자마을의 농사 시작을 알리는 마을의례
5월 19일	하자마을 성년식	청소년기를 지내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는 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는 자리. 스무 살을 맞이한 하자마을의 청소년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의례
9월 8일	달맞이축제	가족을 떠나 먼 곳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 등 명절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추석을 축제처럼 나들이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 2014년도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노들 야학과 함께 광화문에서 개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한가위 소원을 비는 축제.
11월 18일~19일	김장잔치	하자마을을 비롯해 하자네트워크학교에서 진행한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수확물을 모아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김장이라는 전통 행사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결실을 하자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
12월 18일	하자 생일잔치	15주년을 맞이하여 '하자 15년, 기억의 미래'라는 주제 개관을 기념하는 의례. 하자의 성장을 지켜봐온 친구들과 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억을 공유하고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을 잔치

성과

2014년은 하자의 15주년이 되는 해. 하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준 마을의 어른인 촌장들을 모시고 입춘식, 성년식, 생일잔치를 열어 인간 생로병사의 사이클로서의 삶의 감각을 마을의례를 통해 회복하고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으로 도심에서 텃밭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3년 차, 음식물쓰레기>퇴비>텃밭농사>채종에 이르는 순환이 만들어지고 시농제, 달맞이 축제, 김장잔치는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며 생명의 순환 속에 마을살이를 하는 ‘우리’를 다시 발견해내는 자리가 되었다.

전망

의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과 상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미보다 기운이다. 함께 모인 자리 자체에서 나오는 기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만들어가는 다짐의 자리인 것이다. 때문에 마을의례는 하자의 모토인 자공공(自公共) -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플랫폼 - 을 실현해 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한다. 돈이 중심이 되는 시장과 입시경쟁에서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기 힘들어진 지금, 서로의 기운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감각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자의 마을의례가 상생과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more info

- 입춘식 뉴스레터 <http://www.haja.net/?p=8614>
- 입춘식 영상 <http://vimeo.com/90446056>
<http://vimeo.com/90734470>
- 시농제 영상 <http://vimeo.com/100396297>
- 성년식 뉴스레터 <http://www.haja.net/?p=8952>
- 성년식 영상 <http://vimeo.com/96462255>
- 하자 생일잔치 영상 <https://vimeo.com/114842089>

<환경일보> “대견하고 소중한 스무살, 은 마을이 축하” 하자센터,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성년식 개최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300917>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사업 이름 :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대상 : 교육자 및 학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정책 및 행정 전문가, 청(소)년 등
- 진행기간 : 2014년 9월 26(금) ~ 9월 28일(일)
- 참가방법 : 온라인 / 전화 신청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전관
- 총 사업비 : 금 36,407,079원
- 총 참여인원 : 3,075명(실인원)

개요

2014년으로 제6회를 맞은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매년 포럼,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혁신적인 국내외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행사다. 이번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 하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누출사고, 올해 4월 세월호 사고 등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 속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라는 부제와 함께 논의해 보았다.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창의성을 화두로 다음 세대의 삶과 교육을 이야기해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조직화된 무책임의 체제가 만들어낸 위험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제도교육과 대안교육, 이 대표적인 두 현장에서 ‘포스트 후쿠시마’ ‘포스트 세월호’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갈 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특히 제도교육 현장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앞가림을 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터져도 탄력적 회복력을 갖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많은 대외적 관심을 끌었다.

기획

제6회 창의서밋에는 주제와 관련해 통찰력 있는 담론을 제시하는 연구자, 현장에서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자 등을 국내외에서 초대, 서밋 기간 내내 ‘재난사회의 교육’, ‘شم표가 있는 교육’ 두 섹션을 통해 다양하게 개설된 포럼, 대담, 강연 등으로 국내 청중과 만나게 했다. 이 두 메인 섹션을 중심으로 하면서 워크숍, 마을장터, 나눔부엌 등 만남과 심이 있는 ‘어울림 축제’ 섹션까지 총 3개 섹션, 20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서밋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키노트 스피커 역할을 하는 주요 국내외 게스트들. 이번 창의서밋에서는 직업이나 일도 없고 혼자, 혹은 가족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20~59세 사이의 미혼 인구를 일컫는 ‘SNEP(스넵): Solitary Non-Employed Pers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할 일본의 노동경제학자 겐다 유지 교수(도쿄대),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봉인된 디아스포라> 등 수 권의 저서가 국내 출간된 저명한 학자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국립대), 덴마크의 혁신 교육사례로 꼽히는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교장 등이 내한해 국내 청중들을 만났다. 이밖에도 미국 공립학교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메트 스쿨(Met School)’을 통해 잘 알려진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 BPL) 학습법이 개발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앤드류 프리슈먼에 의해 소개되기도 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과 교사들도 방문해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 교육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포럼에 참여했다.

재난사회, 위험사회 속의 청소년을 위한 배움의 길을 탐색하는 진지한 포럼, 대담, 강연 외에도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시연하는 워크숍, 살살이 관찰하고 둘러보는 투어, 정성을 더해 나눠먹는 공동식탁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울림 축제’ 섹션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어울림 축제’에는 9월 26일 오후 2시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참여자 모두가 밥 한끼를 함께하는 나눔부엌,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책을 만나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그룹들이 총출동하는 마을장터 ‘달시장’, 서밋 기간의 일들을 함께 회고하는 폐막식 등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배치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제작해보는 적정기술 워크숍, 타일 조각을 모아 공공 공간을 장식할 벽화를 만드는 타일 모자이크 워크숍, 물물교환, 수리부터 직접 생필품을 만들어보는 워크숍들까지 포진한 마을살이를 보여주는 ‘달마당’ 등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 및 참여 인원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참여인원	내용
26일 (1일차)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10:00-12:30	신관 203호	15명	* 공교육 안팎을 아우르는 배움의 권리를 덴마크 자유교육을 통해 배우는 자리 - 사회 정선임(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 패널 쇠렌 라운비에르, 클라우스 슈탈(덴마크 IPC), 하태욱(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비진학포럼 : 후기 청소년을 위한 하자의 진로교육	10:00-12:00	본관 1층 마을서당	30명	* 저성장 고실업 시대를 맞이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의 어려움과 삶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 패널 박진숙(주식회사 연금술사 대표), 이충한(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강정석(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
	글로벌시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벌시 연수	10:00-13:00	신관 303호	9명	* 본토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교사들을 위한 글로벌시 기반의 창의적 의사소통 워크숍 - 강사 이진아(띠비,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 담임교사), 데니얼(하자작업장학교 글로벌시 강사)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10:00-13:00	살림집 앞마당	12명	*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시의 덴카컴(Denkacom)이 자체 개발한 라미네이터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해 보는 워크숍 - 강사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청년들
	서밋 나눔부엌	12:00-13:30	신관 1층 허브카페	200명	* 주요 국내·외 초청자, 개막식 참가자 등 모두가 밥상에 둘러 앉아 함께 음식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

26일 (1일차)	개막식	14:00-15:30	신관 4층 하하허허홀	1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밋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 - 여는 퍼포먼스(이야기꾼의 책공연, 쿨레칸) - 축하 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 개막 인사 조한혜정 하자센터장 - 개막강연1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 국립대 교수) 위기에서 창의로: 재난의 시대에 '정치적인 것'을 다시 만들기 - 개막강연2 겐다 유지(일본 도쿄대 조교수): 앞으로의 사회에서 리스크, 희망 그리고 유대 - 개막강연3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교장)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 - 서밋 프로그램 안내 - 닫는 퍼포먼스 페스테자와 쿨레칸 합동공연
	타일벽화 워크숍 희망을 담은 타일 벽화 제작	15:30-17:00	신관 4층 허브정원	100명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앞 야외 공간 벽면을 모두가 힘을 모아 타일 조각을 재료로 한 모자이크 벽화로 만드는 공동 제작 워크숍
	원탁대담 재난 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16:00-18:00	신관 203호	4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재난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개 대담 - 사회 김찬호(알로하, 하자센터 부센터장) - 패널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 국립대 교수), 겐다 유지(일본 도쿄대 교수), 정병호(한양대 교수), 조한혜정(조한, 하자센터 센터장)
	서밋 달시장	17:00-21:00	하자센터 앞마당	2000명	*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을살이를 구현하고 있는 마을장터를 서밋과 연계해 개최
27일 (2일차)	서밋강연1. 공동체 다시 만들기;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10:00-12:00	신관 203호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국의 시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일본의 현장 사례 강연 -사회 조유나(가비, 공방팀장) -강연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 국립대 교수)
	사례공유포럼@놀이-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	10:00-12:00	본관 1층 마을서당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린이 놀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자리 -발표 오방놀이터, 여러 가지연구소, 생각하는 청개구리 청년 놀이활동가

27일 (2일차)	이 시대 교육포럼 1. 전환학년제 (gap year), 힘이 있는 교육에 대한 상상	13:00-17:00	본관 2층 999클럽	52명	*덴마크 포크하이스쿨 중 하나인 국제시민대학(IPC)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사회 박형주(울제, 하자센터 기획부장) -발제 현병호(대안교육연대 대표),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IPC 교장) -토론 정병오(문래중 교사), 오일화(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사람책을 만나다	13:00-15:00	본관 1층 마을서당	22명	* 초대된 인물(사람책)과 대화하고픈 이들(독자)이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대화하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프로그램 - 사람책 김영자(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상동면 총무), 박홍이(물리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영(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서밋 달마당	14:00-17:00	하자 앞마당	75명	* 함께 나누고, 아끼고, 바꿔 쓰며 살아가는 마을살이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익히는 워크숍 - 워크숍 코페는 사람들, 목화송이 협동조합, 마을기술센터 핸드, 맵글고, 땀땀이공장
	이 시대 교육포럼 2.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학습과 성장	15:00-18:00	신관 4층 하하하허허	100명	* 일본, 홍콩, 한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재난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각자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 발표 홍콩창의력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인현고, 성미산학교, 청년초록네트워크, 후쿠시마 하자 - 토론 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서밋강연2. 격차 사회에 놀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16:00-18:00	신관 203호	26명	* 타인과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희망을 발견하는 길에 대한 강연 - 사회 박정규(미래클, 하자센터 자전거공방) - 강연 겐다 유지(일본 도쿄대 교수)
28일 (3일차)	이 시대 교육포럼 3.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10:00-13:00	신관 4층 하하하허허	20명	* 후쿠시마, 세월호, 밀양의 현장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사들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 - 사회 김희옥(하자작업장학교 교장) - 발제 고바야시 나오키(일본 후쿠시마 빈즈 활동가), 저 초이(홍콩 창의력학교 교사), 조영현(성미산학교 교사), 김은형(인현고/태양의학고 교사), 송순옥(과천맑은샘학교/대안교육연대 교사), 이은혜(금산간디학교 교사) - 토론 이현숙(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돌봄사업팀장), 박복선(성미산학교 교장)

28일 (3일차)	이 시대 교육포럼 4.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10:00-13:00	신관 203호	52명	<p>* 비영리교육연구소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의 다양한'학교 밖 학습(leaving to learn)'에 대한 사례를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연결 지어 고민해보는 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경옥(공간 민들레 대표) - 발제 앤드류 프리슈먼(미국 Big Picture Learning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 토론 홍인기(상탄초등학교 교사), 윤귀호(풍물교육연구소장), 서용선(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오일화(함께여는청소년학교 대표), 김민찬(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폐막식	13:30-14:30	본관 1층 쇼케이스	100명	<p>* 3일간의 일정을 회고하고 내년 서밋을 기약하며 유대 관계를 다지는 네트워크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는 공연 청소년 밴드 유자청 - 판돌 회고 - 회고 영상 상영 - 게스트 회고 - 폐막 인사 김찬호(알로하 하자센터 부센터장) - 닫는 퍼포먼스 로자의 훌라춤

성과

홍보 면에서는 대략적인 일정 및 내용, 특히 내한할 해외 키노트 스피커들이 정해진 후에는 관련 분야 언론 대상으로 기획 기사를 제안했으며 결과가 좋아 이미 개막 전에 주요 게스트 및 하자센터장과의 인터뷰 등이 사전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식 보도자료는 개막 3주 전부터 시작해 시차를 두고 총 4회 배포되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홍보 루트를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 홍보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일반 교사,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모으고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각종 포럼과 워크숍 신청은 아카이브 하자(archive.haja.net)를 통해 개설해 신청자들이 다른 워크숍 및 부대행사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오픈해 자공공 아카데미의 콘텐츠 및 이를 주관하는 하자허브의 동향을 전달하고 있는 자공공넷(<http://jagongong.net/>) 메인 페이지를 서밋 체제로 전환해 취지문, 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정보들과 함께 메인 게스트 소개부터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서밋을 둘러싼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 또한 서밋 기간 중 매달 한 번 발행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역시 서밋 체제로 전환, 기간 중 총 5회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하자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했고 이를 하자센터 홈페이지 및 자공공넷에 연동시켜 더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서밋 기간 중에는 모든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영상에 담았는데 특히 개막식의 키노트, 강연 등은 편집 없이 촬영해



자막 작업 등을 거쳐 게시했다. 3일간의 여정을 담아낸 스케치 영상을 비롯해 모든 서밋 관련 영상들은 하자센터의 비메오 계정(<https://vimeo.com/haja>)에 올려 놓았으며 자공공넷 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영상 아카이브에서도 연동된다.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특히 서밋 취지에 공감하는 외부 네트워크 그룹들과의 협업 결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 주된 성과일 것이다. 기존 파트너였던 한국압웨이(생각하는 청개구리), 영등포구청(달사장), JP모간(연금술사 일학교, 살림집 프로젝트)이 서밋에도 힘을 보태줘 정식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세부 프로그램 역시 공동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과의 사전 기획 및 진행으로 실현되었다.

협업 프로그램으로는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한 ‘원탁포럼-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이 있다. 교육부의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교육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을 지속해가기 위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 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대안교육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해 보았다.

‘이 시대 교육포럼 4-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역시 공동 기획,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교육계 전반으로 ‘학교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떻게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배우는 학습을 설계할 것인가 논의해 보는 장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서출판 민들레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포럼을 계기로 발제자인 앤드류 프리슈먼이 몸담은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BPL)의 <Leaving to Learn>(한국어판 제목은 <넘나들며 배우기>)이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도 성과로 꼽을 만하다. 또한 전환기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키노트 스피커인 덴마크 국제시민대학(IPC)의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과 클라우스 슈탈 부교장의 광주지역 강연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서밋 이후 열린 내부 평가회의에서는 프로그램이 더 다채로웠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단순히 포맷(포럼, 강연, 워크숍, 네트워크 행사 등)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포맷일지라도 각각 목적하는 바, 즉 ‘풍부한 정보 제공이나’ ‘남다른 해석을 접하는 기회 제공이나’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이나’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를 들어 포럼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국내외 교사, 활동가, 청소년 등이 각자 하는 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밀착해 만날 수 있는 다른 판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서밋이 각기 다른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섞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이후 이에 대한 질문들을 풍성하게 내놓으면서 자기조직화해 나가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한데 올해에는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more info

사이트 <http://jagongong.net/category/6thsummit/>
신청 사이트 <http://archive.haja.net/archives/index/2014-09>

절망의 사회, 청년들 ‘은둔’과 ‘일베’로 내몰아 (경향신문 문화면, 2014.09.28)
-조한혜정 하자센터장과 겐다 유지 교수 대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60201&artid=201409282128535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_덴마크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 방향 | 대담(격월간 민들레 vol.95)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취재
http://www.mindle.org/xe/index.php?mid=bimonthly&document_srl=520635

한국교육, 이대로는 망한다 (프레스리안, 2014.11.07)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취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49>

선착순 달리기에 내몰린 아이들... 지금 필요한 건 성찰과 힘(조선일보, 2014.10.14)
-쇠렌 라운비에르 교장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3/2014101302273.html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기획

하자센터는 2014년부터 연세대와 JP모간이 함께하는 현장 연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의 주관처 중 하나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에서 출범식을 가진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은 소득양극화, 만성적 실업,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층의 자생(自生)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P모간의 출연금 3억원을 기반으로 한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의 특징은 사업 주체인 학(연세대)과 산(JP모간)은 물론 서울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활동가 등 관·민을 망라한 사회 각 주체들이 모여 혁신적인 모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데 있다.

2014년에는 연세대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하자센터와 청년허브에서 사업을 주관, 1년 동안 기초과정·심화과정·취업·창업·창직 등 총 3단계 구조로 진행되었다. 중심 분야는 요리와 청년주거. 요리의 경우 소위 스펙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층도 진입장벽이 낮으며, 특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주거 역시 양극화 현상 속에 청년층이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 방안이 시급한 분야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은 청년은 물론 다세대가 함께할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공동체 기반의 도시/주거 모델을 만들어갈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 창직,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사업 이름 :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생, 삶의 기반'
- 대상 : 자립을 모색하는 청년, 청소년
- 진행기간 : 2014년 1월~2014년 12월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주식회사 연금술사 및 외부 현장

‘자생, 삶의 기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메인 교육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의 지역 기반 일자리·진로교육 통합 모델인 ‘연금술사 일학교’, 공동체를 기반으로 혁신적 도시/주거 재생 모델을 만들어갈 청년 주체를 발굴, 양성하는 ‘공동체기반 청년살터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분야 기술을 적용한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을 통해 청년 전문가를 키워내는 ‘살림집 프로젝트’이다. 하자센터는 이 중 ‘연금술사 일학교’와 ‘살림집 프로젝트’를 주관 및 공동 주관했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하자센터와 2011년 창업한 도시락 가게 ‘소풍가는 고양이’를 중심으로 저학력·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연금술사가 주관했다. ‘소풍가는 고양이’는 고용 진입 장벽이 낮은 도시락 아이템을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2013년 서울특별시 ‘혁신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파일럿으로 진행되는 ‘연금술사 일학교’는 안전한 일자리와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참여 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3개월간 제공하고, 대신 학생들은 공부하는 틈틈이 ‘소풍가는 고양이’ 및 연계 업장에서 일을 하는 파격적인 구조로 짜여졌다. 이후에는 일자리를 제공할 일터로 파견해 4개월 동안 직능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과정이 끝난 뒤 각 일터와 참여 청(소)년이 상호평가해 취업 등 진로를 결정했다. 청년창업그룹인 (유)별일사무소, 여성네트워크 ‘줌마네’, 사회적기업 오요리 아시아 등이 함께했으며 청(소)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 기반 자영업, 소상공인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지난 봄 서울 및 경기 지역 각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자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모집 및 추천을 거쳐 10명의 청소년을 선발했고, 5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5월부터 7월 중에는 일주일에 3일로 짜여진 기초과정에 들어가 하루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여성네트워크 ‘줌마네’와 함께 연남동, 상수동, 서촌, 혜화동 등에서 지역 문화를 일궈가고 있는 가게 창업자들을 만났고 나머지 이들은 마포 성미산 마을 소재 ‘소풍가는 고양이’ 업장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8월부터는 사회적기업 ‘오요리 아시아’와 ‘소풍가는 고양이’ 두 팀으로 나뉘어 4개월 간의 본격적인 직능교육에 돌입했다. 이후 12월 10일 하자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직접 준비한 에세이, 토크쇼 등을 통해 부모, 멘토, 친구 등 그간 격려를 보내준 이들과 함께한 수료식의 제목은 ‘평범한, 어린 젊은이’였다. 청소년 노동이 각종 부당대우로 얼룩진 ‘알바’ 수준인 현실에서 청소년에게 지역 내 믿을 만한 일자리, 나아가 안전망을 찾아주고자 시작한 연금술사 일학교의 취지를 담았다.

‘살림집’은 하자센터 산하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청년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하자작업장학교는 지난해부터 청년과정을 개설하면서 도시농업과 적정기술,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계속해왔다. ‘살림집’ 프로젝트는 하자센터 앞마당에



선박컨테이너를 이용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만들어 마을의 중심이 될 커뮤니티 카페이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는 야심찬 시도로서 빗물, 태양열, 태양광, 텃밭, 먹거리, 퇴비화 등 다양한 관련 적정기술이 적용되었다.

‘살림집’ 프로젝트는 연금술사 일학교와 함께 지난 9월 열린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 참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때 청년들은 살림집의 기획취지, 설계내용과 진행과정을 소개하면서 살림집의 지붕에 올려 전기 공급을 담당할 소형 태양광 패널을 직접 제작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워크숍들을 통해 다양한 층의 참가자들이 만든 결과물로 총 40개 패널 제작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여 ‘살림집’ 1층 카페에서 사용될 TLUD형 화목난로(일반적인 화목난로보다 연소시간이 길다. 위에서 착화하여 아래로 불을 지피고(Top Lit) 가스화 과정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Up Draft)되면서 고온연소되는 방식)은 전주대 친환경녹색적정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 2층으로 연결된 로켓매스히터(간이구들형태의 난방장치)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외벽가감은 헌웃, 흙과 벗짚, 천연페인트 등 천연재료나 재활용품을 활용했다.

성과 및 전망

‘연금술사 일학교’의 경우 참여 청소년이 모두 일반고 2, 3학년생으로서 현재 교육계 상황에서 기인한 비진학 청소년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자센터가 지난해 연구사업을 진행해 관심을 얻은 바 있는 이 이슈는 일반화 공동화 현상과 함께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사회생활의 전부인 나이이지만 진학은 불가능하거나 원치 않고, 취업교육은 받지 않은 채 마치 실업자처럼 체념한 상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26일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 사례가 소개되었을 때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안전한 일자리와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참여 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월 30만원의 장학금을 3개월간 제공하고, 대신 교육생들은 공부하는 틈틈이 ‘소풍가는 고양이’ 및 연계 업장에서 일을 하는 파격적인 구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시립기관과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주관을 하고 다른 사회적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 여성 문화작업자 네트워크, 청년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그룹들이 고루 참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진로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술사 일학교’는 올해 교육과정을 잘 정리해 커리큘럼북을 만들기도 했다.

살림집의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등 지자체는 물론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적정기술과 자립대안에너지 네트워크 등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청년들은 ‘살림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적정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10월 중에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서울형 적정기술쟁점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 등 이웃 아시아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적정기술 관련 포럼을 열기도 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적정기술 네트워크 구축은 '살림집'의 본격적인 활용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향후 주요 과제이다. '살림집'은 내년에는 하자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이자 카페로 기능하면서, 지역 적정기술 장인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워크숍도 진행하는 등 서울 내에서 적정기술을 알리는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more info

JP모간, 연세대와 청소년 미래 위한 교육 사업 출범
<http://www.newspim.com/common/redirect.jsp?newsId=20140312000390>
 뉴스핌 2014.03.12

JP모간 - 연세대, '자생(自生), 삶의 기반' 사업 출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539109>
 헤럴드팝 2014.03.12

연세대-JP모간, 청소년-청년 현장연계 교육사업 출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113886>
 파이낸셜뉴스 2014.03.12

JP모간과 연세대, 청소년-청년 현장연계 교육사업 출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dxno=883568>
 이투데이 2014.03.12

'올 한해, 하자센터가 파트너들과 함께할 새로운 실험'
 '자생(自生), 삶의 기반' 사업 출범
<http://www.haja.net/?p=8588>

'연금술사 일학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생(自生), 삶의 기반' 사업 프로젝트 스케치
<http://www.haja.net/?p=8962>

6개월 과정의 '일 배우는 학교' '연금술사 일학교'의 일상
<http://www.haja.net/?p=9438>

'연금술사와 살림집 그리고 삶터' 결실을 준비하는 '자생, 삶의 기반' 사업
<http://www.haja.net/?p=9996>



2014 달시장 (영등포 달시장)

- 사업 이름 : 2014 달시장(영등포 달시장)
- 대상 :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주민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영등포 및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 그룹
 -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및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팀
 - 사회적경제 및 복지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마을 공동체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생활기술, 대안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정책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야 담당자 및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창업 희망 그룹
- 진행기간 : 2014년 6월~10월 중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7시~21시
(6월 27일, 7월 25일, 8월 29일, 9월 26일, 10월 31일)
- 참가방법 : 자유 참가
- 참가비 여부 : 없음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 총 사업비 : 54,600,000원
- 총 참여인원 : 회당 평균 1500~3000명(연인원)
- 수행 주체 : -주최 : 영등포구(7~10월), 연세대(6월)
 - 주관 : 하자센터
 - 협력 :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 후원 : 한국암웨이 생각하는 청개구리

기획

올해 달시장은 하자센터, 영등포구청, 서울시, 연세대(하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한국암웨이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산학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4년차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다세대에 걸친 마을의 모든 주민이 지혜와 재능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일, 배움, 놀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마을살이’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보았다. 사회적경제는 물론 적정기술(생활기술), 대안에너지, 지역 연계 진로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왔던 마을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인 슬로건도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장터, 달시장’ ‘마을의 일터, 배움터, 놀이터’로 잡고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 진행되었다.

* 사업 목적

-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 영등포지역 주민들,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청년 창업팀,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청(소)년을 비롯한 취업, 창업 희망자의 진로 모색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그룹들의 활동을 알리고, 콘텐츠를 공유하며, 실제 판매 및 구매가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창업 희망자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화 / 사회적경제 분야 그룹, 지역 문화예술창작자, 영등포구 등 지역 주민, 취업 희망 청(소)년 등이 자발적으로 기획, 진행, 참여하는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 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를 제시한다.

* 세부 섹션 내용

달마당

| 마을의 살림, 마을살이를 보여주는 대표 섹션 / 생활기술, 물물교환, 살림기술, 적정기술 등 마을살이를 경험하는 장

구분	주요 내용
마을수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살이들을 고쳐 쓰는 워크숍 혹은 부스 운영 - 우산수리소 고정 운영
생활기술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워크숍 주민들이 직접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 진행 - 면 생리대, 컵받침, 양초, 비누 만들기 등 * 적정기술 워크숍 집에서 간단히 사용할 적정기술 도구 만들기 워크숍 및 판매·홍보 부스 운영 - 햇빛 건조기, 태양광 패널,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만들기 등
물물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 기술 등을 중고 생필품 혹은 1차 농산물과 바꾸는 대안화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 및 마을 관련 그룹 물품(농산물 및 중고생활품)과 달시장 벼룩시장 및 일반 지역 주민 물품 등이 교환되는 순환의 장 - 영등포청년마을네트워크(청마넷)과 협업으로 운영
재활용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수선, 리폼 워크숍, 미싱 & 손바느질 등 손기술 워크숍 - 헌 옷 팔찌 만들기, 폐 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 등
마을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커뮤니티 창업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영등포에서 창업해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팀 부스 배치
벼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중고물품 벼룩시장 - 옷, 책, 학용품, 장난감,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장터

솜씨골목

| 수공예를 기반으로 한 장터와 워크숍

구분	주요 내용
아트마켓	* 지역 기반 청년예술가, 문화작업자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작품 판매 및 구매
수공예 공방	* 생필품 워크숍 주민들이 직접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 진행 - 면 생리대, 컵받침, 양초, 비누 만들기 등 * 적정기술 워크숍 집에서 간단히 사용할 적정기술 도구 만들기 워크숍 및 판매 · 홍보 부스 운영 - 햇빛 건조기, 태양광 패널,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만들기 등

먹자골목

| 건강한 먹거리, 주민 참여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터와 워크숍

구분	주요 내용
보통직판장 (오가닉 장터)	* 1차 생산자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및 그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직거래 제공하는 장터 * 생산자협동조합, 도시농업, 귀농 생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터
먹거리장터	* 안전하고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나누는 장터 * 다양한 식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음식을 통해 먹는 즐거움과 함께 이웃을 포용하는 장터 * 영등포 지역 내 맛있는 마을식당들과 ‘숨은 아마추어 고수’들이 참여하는 장터

|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의 장

구분	주요 내용
손작업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센터와 한국암웨이의 창의교육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워크숍 * 흙, 씨앗 등 자연 재료, 폐목재, 폐현수막 등 재활용 재료 등을 이용한 손작업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작업자 및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 - 어린이, 어린이와 부모, 성인 등 다세대 대상 기획 및 진행 - 지역 주민의 강사 활동 지원(옆집 아줌마의 종이접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바느질, 아빠들의 줄넘기 등)
어울림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가 참여해 몸과 손을 쓰는 집단 놀이 * 봉숭아 물들이기, 떡 만들기 등 일상 놀이 * 줄넘기, 비석치기, 기차놀이, 여우잡기 등 공동 신체놀이
어린이 진행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자기 재능을 다른 어린이와 나누는 활동 - 청년/ 청소년 놀이활동가와 짝을 이뤄 진행
공간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하는 청개구리’ 키트(워크숍 부스, 놀이풀장, 놀이감, 안내판 등 설치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및 진흙놀이, 칠판, 공 던지기, 오목, 림보 등 ○ 하자 외부 나무집들 놀이공간으로 리디자인 ○ 흙공방, 중정 피아노 등 허브 자원 활용 놀이
영유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부모(유모차족)가 참여하는 워크숍 및 활동 ○ 영유아를 위한 놀이감, 부모 대상 손작업 워크숍(유아용품 직접 만들어보기 등) ○ 수유실 등 편의공간 확보

축제마당

| 장터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마을축제

구분	주요 내용
달시장 마을 의례	* 마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테마 행사 진행
축하공연	* 사회적경제 관련 그룹 및 인디 밴드 출연
마을공연	* 영등포 지역 주민/단체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무대
달시장 미디어 ‘달디오’	* 달시장의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하는 장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성과

2014년 달시장에서 강조하는 ‘마을살이’의 핵심은 신설된 메인 섹션인 ‘달마당’에서 구현되었다. 마을 사람들, 마을 이야기를 만나는 장으로 설정된 ‘달마당’에서는 물건은 물론 재능이나 기술까지 다른 주민들과 바꿀 수 있는 물물교환, 우산 등 살림살이들을 고쳐 쓰는 마을수리소, 먼 생리대나 수세미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생필품 워크숍, 미싱이나 손바느질로 수선, 리폼해 보는 재활용공방, 햇빛 건조기 같은 적정기술 도구를 만들어보는 적정기술 워크숍 등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또한 영등포 및 서울 전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팀들은 물론 마을 주민, 청(소)년 등이 주축이 되어 막 사업을 시작한 커뮤니티 스타트업 팀들이 모인 ‘마을가게’ 섹션, 영등포 지역 주민(거주 또는 근무)만 참여시켜 마을장터의 원래 취지를 지켜나가는 버룩시장도 달마당에서 펼쳐졌다.

특히 올해에는 영등포사회적경제협의회, 영등포 마을공동체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단, 영등포 청년마을네트워크, 영등포 희망동네 등 그간 자체적으로 생긴 지역기반 그룹들이 합류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이밖에 올해 달시장이 선보인 또 다른 새로운 시도로는 ‘마을놀이마당’을 들 수 있다. 하자센터와 한국암웨이와가 지난 2012년부터 함께 펼쳐온 어린이 창의교육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가 후원하는 ‘마을놀이마당’은 다양한 문화예술 및 손작업 워크숍은 물론 엄마, 아빠, 이웃 어르신, 친구 등 모두가 참여하는 단체놀이를 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지역 기반의 마을놀이터이다.

제대로 놀 줄 몰라, 놀이도 배워야 하는 이 시대에 ‘마을놀이마당’은 세대간 어울림을 고민하며 놀이 감수성을 회복하는 실험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놀이활동가(가칭)들이 결합해 활동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영등포 지역 주민 작가, 예술작업자들을 발굴하고, 어린이 기획단이 스태프로 활약하는 등의 성과도 함께 쌓아가고 있다. ‘마을놀이마당’의 경우에는 미취학기 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상 매회 높은 관심을 끌었고 체험놀이나 워크숍 위주에서 벗어나 중심에 단체놀이를 배치하는 등 놀이 자체에 집중하는 실험을 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올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달시장의 다른 골목과 마당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숨씨골목’은 지역 기반 청년예술가, 문화작업자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과 함께 소소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공예공방’이 신설되어 인기를 끌었고, 언제나 가장 많은 인파를 동원했던 ‘먹자골목’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과 도시농부들, 귀농생활자들이 정성껏 길러낸 건강한 식재료와 가공식품은 물론 분식부터 일식 간식, 프랑스 요리에 이르기까지 골라먹는 재미 가득한 먹거리 장터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장터를 지향하는 달시장 전체 취지에 맞춰 전 판매자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 주민들도 수저와 컵, 대접으로 구성된 식기 세트를 보증금 1천원에 대여해 사용하는 멋진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달시장에 올 때 예코백과 텀블러, 간단한 식기를 챙겨오는 주민들이 늘어났을 정도. 음악, 춤, 퍼포먼스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마당’에서는 올해 재능 있는 영등포 주민들의 무대를 적극 선보이기도 했다.

성찰 및 전망

올해의 달시장은 메인섹션 ‘달마당’과 다세대 놀이터 ‘마을놀이마당’ 신설, 매월 주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 영등포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및 마을 관련 그룹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한 걸음 나아간 네트워킹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자생단)의 도움을 받아 달마당에 영등포 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참여시켰고, 지역 청년조직인 영등포 청년마을네트워크(청마넷)과는 물물교환을 함께 진행했다. (주)쌈지농부와 연계, 도시직거래장터인 보통직판장이 ‘먹자골목’에서 유기농 장터를 꾸준히 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달마당에 배치된 각종 워크숍의 경우 많은 이들이 참여했으나 대부분 비용을 주관 측에서 지원해야 하는 등 자립구조가 약했고 지역 조직과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되지는 못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도 향후 더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마지막 장인 10월 달시장에서 진행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적거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 및 마을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각의 섹션 안에서는 의미를 담아 실현했으나 전체 구성 상에서는 통합된 메시지를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관련 그룹 및 지역 주민 연계와 맞물려 홍보 면에서도 향후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4년은 새로운 홍보 방식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포스터, 전단지 등 기존 방식만을 사용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한 해였다. 포스터의 경우는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홍보 효과가 좋았으나 관련 시설이나 아파트 등에 비치하는 전단지는 별반 효과가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할 홍보 수단이다. 향후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에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련 정보를 꾸준히 콘텐츠화하여 사이트 및 블로그에 축적하고, 특히 달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스토리로 만들어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운영 면에서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5월 개장을 연기하여 6월에 개장을 했고 이 때문에 7월 흑서기 휴장 없이 10월까지 이어갔다. 다행히 더위나 장마, 태풍 등 우려했던 날씨 변수는 없었으나 중간 휴지기가 없어 예산, 운영 등 다각도에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 내년에는 중간 점검을 위한 휴장 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달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올해 달시장의 경우 6월은 자체 운영금으로, 7~10월은 구청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총 예산대비 약 90%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 중 워크숍 비용이 매월 전체 예산에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워크숍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주최측에서 대부분 보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을살이’의 콘셉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각 색션 구성을 기획하다 보니 주최측에서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비용 지출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가 만나 협업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달시장이 주민들과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현황을 바로잡는 데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more info

사이트 www.dalsijang.kr
블로그 <http://dalsijang.blog.m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alsijang>
트위터 <http://twitter.com/dalsijang>

‘달빛 아래 마을 장터, 달시장’ <TBS VJ리포트> 2014.07.29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037144

‘이런 시장이? 시장의 놀라운 변신’ <KBS 아침뉴스타임> ‘특목 매거진’ 2014.09.30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39611&ref=D

‘함께 즐기고 나누는 마을 축제, 영등포 달시장’ 다음 스토리볼 ‘서울 시장 9경’
<http://storyball.daum.net/episode/5536>

‘마을장터의 모델’ 서울 영등포 달시장 개최’ <연합뉴스> 2014.07.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1/0200000000AKR20140721029700004.HTML?from=search>

‘대안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개최’ <여성신문> 2014.07.21
<http://www.womennews.co.kr/news/73898#.VGld8mxldg>

‘영등포구,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한강타임즈> 2014.07.21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69>

‘영등포구, 25일부터 ‘달시장’ 운영’ <뉴스시스> 2014.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1_0013059668&clD=10201&pID=10200

‘영등포구,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을 운영’ <환경일보> 2014.07.21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307314>

‘주민들 재능 공유하는 마을장터’ <내일신문> 2014.07.2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5277

‘7월 25일 “영등포에 왓지떨힌 달이 뜬다~” <아시아뉴스통신> 2014.07.21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687258&thread=01r01>

‘재능공유 ‘영등포 달시장’ 25일 개장’ <시민일보> 2014.07.21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267>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려 외’ <세계일보> 2014.07.2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1/20140721005122.html?OutUrl=naver>

‘영등포구-하차센터, 마을장터 운영’ <국민일보> 2014.07.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41530&code=11131400&cp=mv>

‘영등포구, 주민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어’ <뉴스1> 2014.07.22
<http://news1.kr/articles/?1779524>

‘영등포 달시장 오늘 개장’ <문화일보> 2014.07.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2501071343011002>

‘29일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운영’ <뉴스시스> 2014.08.2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8_0013136892&clD=10201&pID=10200

글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대외 홍보사업

개요

2010년 이후부터 하자센터는 핵심가치인 '자공공(自共公)'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한 학습생태계를 실험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공간을 지향해 왔다. 자공공이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줄임말로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를 살리며,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불안정한 '위험사회'를 살아내는 가치로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는 마을살이'를 강조함으로써, 상호부조와 나눔, 그리고 우정과 환대의 원리가 있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 및 관련 전문가, 파트너기관 및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홍보에서도 하자센터라기 보다는 '하자마을'이라는 더 넓은 구도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을 전하고자 했다.

2014년에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하자센터 및 연계 네트워크 기관 및 그룹들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다.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는 정기, 비정기 하자투어를 비롯해 보도자료 발송, 취재 협조, 기획안 제안 등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 공식 사이트인 하자넷 및 정기 발송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하자센터 콘텐츠를 축적하는 아카이브하자, 자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자공공넷,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각도의 홍보 톨을 기획, 운영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렛, 자료집 등 비정기 간행물들을 꾸준히 발간, 하자센터의 성과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 사업 이름 : 대외 홍보사업
- 대상 :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2014년 12월

* 주요 대외 홍보 경로 현황

연번	홍보 내용	대상	형태	비고
1	하자넷(공식 사이트)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www.haja.net
2	자공공넷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http://jagongong.net/
3	영어, 일어 블로그	국내외 대중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http://ej.haja.net/
4	하자작업장학교 사이트	교사 및 학부모, 청소년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board/
5	달시장 사이트 및 블로그	사회적경제, 마을 관련 팀 및 대중	온라인 (수시 업데이트)	http://dalsijang.kr/
6	SNS	대중	트위터, 페이스북 (수시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hajacenter https://twitter.com/hajacenter
7	하자마을 뉴스레터	신청자 및 대중	매월 1회 및 비정기 발송	http://www.haja.net/?cat=3
8	아카이브하자	신청자 및 대중	온라인 신청 및 아카이빙 서비스 (수시 업데이트)	http://archive.haja.net/
9	프로젝트별 외부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보고서	프로젝트 대상자 및 대중	온&오프라인 배포 및 게시	
10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	온&오프라인 발송	

1. [전사회] 눈물에도 감전된 밀양, 사람이 있어 희망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216780>
한겨레 2014.01.09
2. 청소년 진로고민·직업 선택 상담, 인터넷서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20500>
세계일보 2014.01.12
3. 인문학이 사회와 소통하는 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219440>
한겨레 2014.02.02
4. 변화 중인 푸드 마켓
<http://mnbmagazine.joins.com/magazine/article.asp?magazine=201&articleId=J2C913XQZ6ZV5G>
썸씨 2014.01.13
5. '대안 문화운동 代母'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이념갈등 해소할 중간지대 넓혀야”
<http://news.donga.com/3/all/20140117/60241653/1>
동아일보 2014.01.18
6. [조한혜정 칼럼] ‘총장 인재 추천제’ 확실성 강화로 흐르지 않기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0732.html>
한겨레 2014.01.21
7. 조한혜정 교수, 일민문화상 수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24368>
여성신문 2014.01.24

8. [김호기의 ‘우리 시대 사상의 풍경’](9) 페미니즘, 여성해방과 양성평등을 향하여: 이효재와 조한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437256>
경향신문 2014.2.2
9. [조한혜정 칼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배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3625.html>
한겨레 2014.02.11
10.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여성들이 ‘아빠처럼’ 된 건 아닌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222195>
한겨레 2014.02.24
11. “함께하는 경험이 자녀 생각의 힘 키워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445656>
경향신문 2014.02.24
12. "학교 떠나도 '마을 살리기' 운동 계속할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696911>
조선일보 2014.03.01
13. [조한혜정 칼럼] 사회적 타살, 이제 책임을 지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6762.html>
한겨레 2014.03.04
14. 하자작업장학교의 조금 특별한 졸업식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514374799347>
아시아경제 2014.03.05
15. JP모간, 연세대와 청소년 미래 위한 교육 사업 출범
<http://www.newspim.com/common/redirect.jsp?newsId=20140312000390>

뉴스핌 2014.03.12

16. JP모간 - 연세대, '자생(自生), 삶의 기반' 사업 출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539109>

헤럴드팝 2014.03.12

17. 연세대-JP모간, 청소년-청년 현장연계 교육사업 출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113886>

파이낸셜뉴스 2014.03.12

18. JP모간과 연세대, 청소년-청년 현장연계 교육사업 출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3568>

이투데이 2014.03.12

19. [조한혜정 칼럼] 놀이를 허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9787.html>

한겨레 2014.03.25

20. 군포 '밥이 되는 인문학', 박범신·조한혜정·이진경 강단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378>

경기일보 2014.04.08

21. [조한혜정 칼럼]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청소년 명상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2881.html>

한겨레 2014.04.15

22. [조한혜정 칼럼]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5784.html>

한겨레 2014.05.06

23. “대견하고 소중한 스무살, 온 마을이 축하”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300917>

환경일보 2014.05.19

24. "현재와 무엇이 달랐을까?" 과거 성년의 날 돌아보기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2734

위키트리 2014.05.19

25. [조한혜정 칼럼] 선거에서 은퇴하는 할머니를 위하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0541.html>

한겨레 2014.06.03

26. [더 나은 미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민 장터' 서울 곳곳에 활짝 피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2766183>

조선일보 2014.06.10

27. 가부장제 맞선 한국 여성학 30년...이젠 젊은층 답답함 풀어줄 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35332>

한겨레 2014.06.11

28.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도심 속 마을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5&aid=0000113124>

한국경제TV 2014.06.16

29.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제3회 '생각하는 청개구리' 개최

<http://www.acrofan.com/ko-kr/commerce/news/20140619/00000019>

아크로팬 2014.06.19.

30. 한국암웨이 “어린이, 부모, 예술가가 어울리는 세대초월 놀이 한마당” 개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231688>

매일경제 2014.06.19

31. 생각하는 청개구리, 더불어 놀며 잠자던 창의력 깨워요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73925&thread=09r02>

아시아뉴스통신 2014.06.19

32. 한국암웨이, 어린이 창의력 깨워 '지혜의 옷'을 입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19_0012992937&clD=10201&plD=10200

뉴시스 2014.06.19

33.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제3회 ‘생각하는 청개구리’ 개최
<http://www.acrofan.com/ko-kr/commerce/news/20140619/00000019>
 아크로팬 2014.06.19
34. 학교·사회 무관심 ‘비진학’ 청소년 “암담해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52204175&code=940202
 경향신문 2014.6.25
35. “위험사회의 대안은 ‘다시, 마을이다’”
 [마을주의자]<12> 무주 구름샘마을 마을학자 조한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2&aid=0002000612>
 프레시안 2014.6.27
36. [조한혜정 칼럼] 학교가 스스로 소생할 호흡과 시간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237745>
 한겨레 2014. 7.2
37. ‘마을장터의 모델’ 서울 영등포 달시장 개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1/0200000000A_KR20140721029700004.HTML?from=search
 연합뉴스 2014.07.21.
38. ‘대안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개최
<http://www.womennews.co.kr/news/73898#.VGld8mxxldg>
 여성신문 2014.07.21
39. ‘영등포구,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69>
 한강타임즈 2014.07.21
40. ‘영등포구, 25일부터 ‘달시장’ 운영’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1_0013059668&clD=10201&pID=10200
 뉴스1 2014.07.21
41. ‘영등포구,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을 운영’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307314>
 환경일보 2014.07.21
42. ‘주민들 재능 공유하는 마을장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5277
 내일신문 2014.07.21
43. 7월 25일 “영등포에 왓자지껄한 달이 뜬다~”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87258&thread=01r01>
 아시아뉴스통신 2014.07.21
44. 재능공유 ‘영등포 달시장’ 25일 개장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267>
 시민일보 2014.07.21
45.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려 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1/20140721005122.html?OutUrl=naver>
 세계일보 2014.07.21
46. 영등포구-하자센터, 마을장터 운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41530&code=11131400&cp=nv>
 국민일보 2014.07.22
47. 영등포구, 주민장터 ‘영등포 달시장’ 열어
<http://news1.kr/articles/?1779524>
 뉴스1 2014.07.22
48. 영등포 달시장 오늘 개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2501071343011002>
 문화일보 2014.07.25
49. 달빛 아래 마을 장터, 달시장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037144
 TBS VJ리포트 2014.07.29

50. [조한혜정 칼럼] 애도, 그 환대와 생성의 장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8961.html>

한겨레 2014.07.29

51. [조한혜정 칼럼] '유나'를 위하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821.html>

한겨레 2014.08.26

52. 29일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운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8_0013136892&cID=10201&pID=10200

뉴스시스 2014.08.28

53.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제4회 생각하는 청개구리-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830_0010073197

뉴스시스 2014.08.31

54. 한국암웨이-하자센터 '창의력 깨우는 놀이터' 성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1_0013143393&cID=10201&pID=10200

뉴스시스 2014.09.01

55. [조한혜정 칼럼] '적대의 국민'과 '환대의 시민' 사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6470.html>

한겨레 2014.09.23

56. “절망의 사회, 청년들 ‘은둔’과 ‘일베’로 내몰아”

조한혜정. 겐다 교수 대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82128535&code=960201

경향신문 2014.09.28

57. 이런 시장이? 시장의 놀라운 변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39611&ref=D

KBS 아침뉴스타임 '톡톡 매거진'

2014.09.30

58.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하자센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ttp://edu.mt.co.kr/eduView.html?no=2014100208385515201>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2014.10.08

59.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씨 "함께하는 삶 돌봄·배움 공동체 구축해야"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6839>

전북일보 2014.10.12

6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든든 지원

<http://www.hankookilbo.com/v/158f52a4d31541c1950e8622157528e8>

한국일보 2014. 10. 14

61. [더 나은 미래] 선착순 달리기에 내몰린 아이들... 지금 필요한 건 성장과 쉼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게스트 최렌 라우비에르(Soren Launbjerg) 교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3/2014101302273.html

html

조선일보 2014.10.14

62. 아내 일기 들춰보는 기분... '술직 담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4385

오마이뉴스 2014.10.17

63. [조한혜정 칼럼] 은행나무의 수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0848.html>

한겨레 2014.10.21

64. “공정경쟁 위해 기업 자율규제 강화를...그래야 진화 가능”

[2014 아시아 미래포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조한혜정 명예교수 대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0861.html

한겨레 2014.10.22

65. 10년 뒤 20년 뒤까지 천천히

[기획2]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선택한 목수, 내가 할 수 있는 목공을 하는 목수, 살아갈 자신감을 얻는 목수... 도시의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는 목수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75.html

한겨레21 2014.10.27 제1033호

66. ‘나만 행복해도 되나’ 길 위에서 묻다

<나의 여행 이력서>/뜨인돌 펴냄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5>

시사인 2014.10.27

67. 한국교육, 이대로는 망한다

[민들레] 덴마크에서 배우는 대안교육의 법제화 방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549>

프레스이안 2014.11.7

68. [조한혜정 칼럼] 음유시인 신해철님을 보내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5037.html>

한겨레 2014.11.18

69. 하자센터, '청개구리 공유마당' 개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02010001447>

아시아투데이 2014.12.02

70. [조한혜정 칼럼] 사직단은 누가 왜 복원하려는 걸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9361.html>

한겨레 2014.12.16

71. 여행하며 진 마음의 빛, 이제 빛으로 돌려줘요

‘오라이 프로젝트’ 기획한 박정규씨

<http://www.hankookilbo.com/v/19ed365eeac443a7b164f51b15797fb3>

한국일보 2014.12.21

72. 자전거·아웃도어 '아나바다' 바자회, 27일 하자센터서 개최

<http://bike.mt.co.kr/articleView.html?no=2014122313114126610>

머니투데이 2014.12.23

73. 함께 즐기고 나누는 마을 축제, 영등포 달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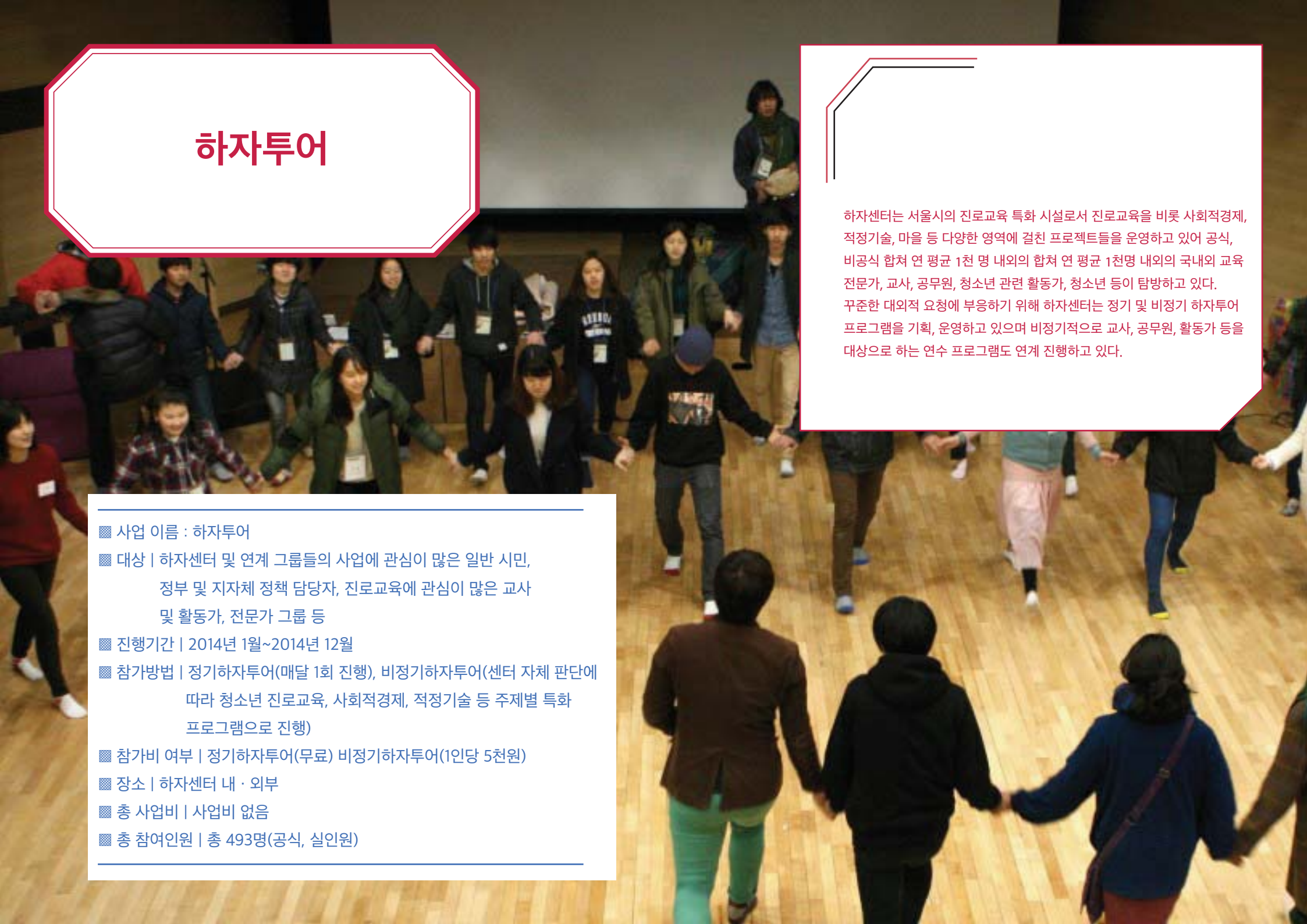
<http://storyball.daum.net/episode/5536>

다음 스토리볼 ‘서울 시장 9경’

하자투어

하자센터는 서울시의 진로교육 특화 시설로서 진로교육을 비롯 사회적경제, 적정기술, 마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어 공식, 비공식 합쳐 연 평균 1천 명 내외의 합쳐 연 평균 1천명 내외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활동가, 청소년 등이 탐방하고 있다. 꾸준한 대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하자센터는 정기 및 비정기 하자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교사,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연계 진행하고 있다.

- 사업 이름 : 하자투어
- 대상 | 하자센터 및 연계 그룹들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및 활동가, 전문가 그룹 등
- 진행기간 | 2014년 1월~2014년 12월
- 참가방법 | 정기하자투어(매달 1회 진행), 비정기하자투어(센터 자체 판단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 사회적경제, 적정기술 등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 참가비 여부 | 정기하자투어(무료) 비정기하자투어(1인당 5천원)
- 장소 | 하자센터 내 · 외부
- 총 사업비 | 사업비 없음
- 총 참여인원 | 총 493명(공식, 실인원)



연번	일자	기관 및 팀 명	내용
1	1.15	풀무학교	기관 방문 및 투어
2	1.16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 임직원 및 일반인	정기하자투어
3	1.22	대전 전환교육센터 주관 연수교육 참여 활동가들	활동가 연수 목적 하자투어
4	1.24	싱가포르 사회가족부 공무원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5	2.7	민주당 김광진 의원 및 순천 YMCA 관계자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6	2.12	대학생 단체 아이섹코리아 주관 포럼 참여자들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7	2.13	아름다운가게 간사 및 인턴	인턴 연수 목적 방문 및 투어
8	2.18	의정부여중 교사 및 대안학교 담당자들	청소년 관련 기관 방문 및 투어
9	2.21	천안YMCA 활동가들	활동가 연수 목적 하자투어
10	2.27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11	3.6	홍콩 통와병원 복지 파트 직원들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2	3.13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무원 및 대학생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3	3.27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14	4.24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15	4.30	대만 청년그룹 Happen Coworking 활동가들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6	5.7	대안학교 여명학교 교사진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17	5.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 교사과정 수강생	교사 연수 목적 하자투어
18	5.22	공립형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교사들	교사 연수 목적 하자투어

19	5.22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20	6.10	경기도교육청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1	6.11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해외 청소년 활동가 연수 참여 멕시코 청소년 활동가 및 공무원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2	6.17	순천향대 주관 해외 연수 참여 팔레스타인 공무원 및 청소년 활동가들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3	6.19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24	6.30	YMCA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5	7.2	정읍시 주민자치과 주관 마을활동가 연수 참여자들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6	7.2	울산지역 대안교육 교사 및 활동가들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7	7.7	시흥시청 공무원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28	7.24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29	7.31	한국청소년진흥원 주관 코이카 글로벌 연수 참여 해외 청소년활동가들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30	8.1	광명 YMCA 주관 IDEC 참여 국내외 게스트들	한국 유관센터 참관 목적 하자투어
31	8.21	일반 시민	정기하자투어
32	8.26	전북교육청 임원	유관센터 참관 목적 하자투어
33	9.18	일반 시민	정기하자투어
34	9.23	홍콩 민정사무부 장관 및 스태프들	한국 내 유관센터 참관 목적 하자투어
35	9.26 ~ 9.28	덴마크 국제시민대학(IPC) 교장 및 부교장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36	9.26~9.28	홍콩창의력학교 학생들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37	9.26~9.28	빈즈 후쿠시마 활동가들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38	9.26~9.28	호주국립대학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 및 조교팀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39	9.26~9.28	도쿄대 겐다 유지 교수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40	9.26~9.28	앤드류 프리슈먼 빅픽처러닝 이사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참여
41	10.17	공간 민틀레 주관 상담 교사 교육생들	연수 목적 유관센터 참관 하자투어
42	11.17	K2 인터내셔널 일본 실무자들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43	11.20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44	12.16	일본 변호사 및 교수진	한국 내 유관센터 벤치마킹 및 참관 목적 하자투어
45	12.19	일반 시민	정기 하자투어

2014 하자센터 연간보고서
haja Center annual report

기획 & 편집 협력기획팀
디자인 여다함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 2677 9200
www.haja.net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4, haja Center. Some rights reserved.

